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SEP 1 4 1981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13 1981년9월8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uesday, September 8, 1981

우편파업중의 크레딧카드 이자청구 문제화
갚지 않아도 된다?
은행들은"이의받으면 재고한다"식

캐나다의 주요 은행들은 크레딧카드 사용자들이 우편파업중 청구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체불에 대한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는 3개주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 전국의 일부 크레딧카드 사용자들은 이자 지불요청에 대해 항의하면 이를 면제 받기도 하나 어떤 사용자들은 주정부의 보호법이 있더라도 이자지불을 강요당한다. 온타리오주, 퀘벡주, 알버타주는 이같은 소비자보호법이 있으나 은행들은 42 일간 계속된 우편파업기간중 청구서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 지불체납을 이유로 이자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내셔날·뱅크만은 파업중 사설우편제도를 서비스를 인용, 청구서를 배달했기 때문에 체납자들은 이자를 부담해야한다 동 은행은 현재 21% 이자를 부과, 내년부터는 체납이자율을 24% 로 올린다. 어떤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이자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이를 재고하겠다」는 통지서를 함께 발송했다. 퀘벡주정부는 소비자보호법을 발동, 주민들을 부당한 이자부담에서 보호하겠다고 밝혔으나 온타리오및 알버타주는 이번 경우 소비자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온타리오주 소비성의 올가·카멘여사는 "아직 무어라고 말할 수 없다 동법은 우편파업을 염두에두고 만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일부 법학교수들은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이자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알버타주에서는 이법을 무시할 예정이다 도날드·프라이언 소비성관리는 "우편파업때문에 부채를 안 갚는다는것은 이법의 정신과 어긋난다 우편파업은 체납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퀘벡주 관리들은 법을 강화할 움직임이다 "우편파업기간중이라도 은행들은 반드시 청구서를 고객에게 보냈어야 한다 사설우편료 22¢ 정도는 은행측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쟈끄·다진네 소비성관리는 말했다

한편 퀘벡주 로얄뱅크의 비자(VISA)카드담당 부매니저 얼·로버트수씨는"연방법에 따른 은행 (차터드뱅크)들이 주(州)법을 따라야 하는지는 의심이 간다 우리 은행은 퀘벡주에서도 고객에게 이자를 계속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소비국은 은행의 운영은 연방은행법을 따라야하지만 크레딧카드의 사용은 은행과 소비자의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주(州)법의 관할 사항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어메리칸·익스프레스·카드사용자들은청구서를받는대로 잔액을전부갚아야 한다는 조항때문에사용자는 소비자보호업자는 관계없이 이자도 함께 갚아야 한다

한반도 태풍권 벗어나
인명피해 80명에 도달

(서울4일=연합) 한반도 남부를 엄습한 태푸「에그네스」호는 사망 51 실종 29 부상38명의 희생자를 내고 4일 새벽03시 울릉도 동쪽으로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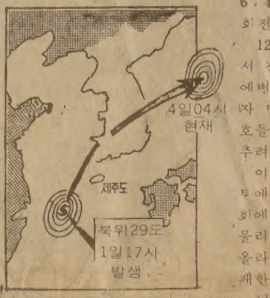
수해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태푸으로 68,057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78,266헥타의 농경지가 피손내지 침수됐다

태푸의 피해 지역은 대부분 남부해안지방이다

한국정부는 군·관·민을 동원 수해복구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수재민에게는 세금감면등 특혜를 주기로 했다

한편 이 태푸 영향권내에 들은 중공 상해지방에서는 9명이 사망했고 5명이 실종됐다

관상대 관측에 따르면 태푸「에그네스」호는 제주남쪽에서 발생 시속 61km로 한반도 남쪽을 때리고 동해를 거처 일본으로 향했다



북한미사일은 샘2 SR-71기 격추시도

(동경2일=연합) 지난26일 미 정찰기 SR-71을 향해 발사된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은 신형 샘-2미사일 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경제지인 동신문은 정보소식통을 인용 동미사일은 고공 3만미터상의 적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고성능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사일의 현대화뿐만아니라 다른 무기들의 질적 양적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동기사는 보도했다 정보소식통은 평양측은 정찰기를 격추하려했으나 마하3(음속의 3배)이나 되는 정찰기 속도 때문에 빗나갔다고 전했다

이덕희 2회전에
U.S 오픈테니스 개막

◇이덕희 양

(뉴욕) 40만달러의 상금이 걸린 U.S. 오픈테니스대회 1회전에서 지난 2일 한국의 이덕희양이 호주의 강호 수잔·레오를 6:3 6:4로 가볍게 물리치고 2회전에 진출했다

128명이 겨루는 1회전에서 전년도 우승자 크리스·에버트 캐나다오픈 우승자 트레이시·오스틴등 강호들은 무난하게 64명으로 추려지는 2회전에 올랐다

이덕희양은 2주전 토론토에서 열린 캐나다오픈대회에서 세계9위 [illegible]치시를 물리치고 3회전(16명)까지 올라 나바노틸로바에게 분패한 바 있다

남자부에서는 세계1위이며 전년도 우승자인 존·매켄로 2번시드의 비욘·보그등도 쉽게 2회전에 진출했다

한편 1일 열린 남자부 1회전에서 이 대회 4번시드이며 크리스·에버트의 약혼자였던 지미·코너스는 크리스의 남편 영국의 존·로이드를 6:0 6:0 6:2로 가볍게 물리쳐 연적을 코트에서 복수한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해설) U·S 오픈대회는 남·녀 128명이 각각 본선에 진출 일반대회의 64명보다 두배가 된다 일반적으로 프로테니스대회는 개인경기로 토나멘트방식이다

따라서 이대회에서 우승하려면 128, 64, 32, 16, 8, 4, 2명의 각회전을 거쳐 7연승을 거두어야 우승할 수 있다

토나멘트방식에서는 회전(回戰) 리그방식에서는 차전(次戰)이라 부른다

이대회 남자부에서는 존·매켄로가 3연패를 노리고 있다

교포 북한방문은 불찬성
—봉두완의원 재 설명—

토론토한국총영사관은 2일"본국정부는 현 시점에서 교포들의 북한방문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다시 강조했다.

총영사관은"북한측은 계속 기만전술을 쓰고있고, 최근 북한전투기들의 백령도 영공 침범사건, 미군정찰기 SR-71기미사일 공격등에서 보듯이 도발을 계속하기 때문에 교포들의 이북방문은 시기상조이며,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총영사는 지난 28일 봉두환의원등 한국국회의원 환영리셉션에서도 교포들의 북한방문에 대해 경고했었다.

한편 봉의원은 지난주 본사와의 통화에서 "교포들의 북한방문에 대해 내가 총영사 리셉션에서 한 발언은 순전히 내 개인적 의견이었다 사실상 이 문제는 국회의원이언급할 사항은 아니었다" 고 말했다.

한·가의원협회 한국측 주석대표로 캐나다를 방문한 봉의원은 "정부는 시민권을 가진 교포들의 북한 방문을 제재할 방법이 없으나 이를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본보는 지난 27일자 "북한방문 자유 의사대로"제하의 기사에서 봉의원이 이상훈 총영사리셉션에서 행한 발언을인용, "봉의원은 교포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에대해 한국정부가 개의하지 않는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노스욕 전기료 내년부터 올라

노스·욕의 가정용 전기료가 내년부터 오른다

전기 인상율은 앞으로 2~3개월안에 결정되나 집 소유자는 하루 6센트 정도를 더 내야한다 이것은 월 2달러의 추가징수를 의미한다

이번 인상은 온타리오·에너지위원회(Ontario Energy Board)가 온타리오 하이드로(Ontario Hydro) 에게 전기 도매가격의 인상을 권고한 것이 주요동기라고 알려졌다

이에따라 온타리오 하이드로의 주요고객인 노스·욕·하이드로는 가격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부담 시킬 예정이다

한국 문학도 강의
토론토대서 박교수초빙

토론토대학에서 처음으로 한국문학이 강의된다.

서울대국문학과 박동규교수(43)는 9월학기부터토론토대학 동양학부 에서 1주 2시간씩 현대한국문학을 중심으로 한국문학 전반에 걸쳐 강의한다.

교환교수 자격인 (1년) 평론전공의 박교수는 한국어도 1주 5시간씩 강의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토론토대학 동양학과 에서는 한국문화사 종교, 한국어등이 강의됐었다.

박교수는 59년「현대문학」지 추천으로 문단에 데뷔 13년간 서울대인문대학 교수로 봉직해 왔다.

◇태풍과 같이 쏟아진 폭우로 물바다가 된 목포시내 3일 하룻동안 쏟아진비가 13인치로 기록됐다. 「에그네스」는 80명의 인명피해를 남기고 4일 동해로 벗어났다.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식 자 부 장 : 박 부 웅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The Korea Times of Toront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Friday & Saturday issues are printed together.
Subscription Fee
$90/year, $8/month
구독료(선금)인$90, 월$8
영구구독료 $500.00
ISSN 0319 2962
2nd class mail No. 5248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416) 533-2361-4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HENRY)KANG
Canada Life
12년간 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868-0922
R)622-5147

완인태권도
完人路拳道
Wanin Taekwon-Do

이는
이경태 사범이
아직까지도 최일선에서 지도하는 사범이요 태권도
전문인으로써 태권도 수련의 교육적 가치가 중하고
태권도의 과학화와 무도철학의 정립을 위한 사명감이
중함에 따라 연구·정진하여 온 바를 체계화 시킨
태권무도 입니다.

1. 완인태권도는 수련상의 제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무술을 익히고 그 과정으로서 무예를 닦는 것을 정도로 합니다.
2. 완인태권도는 무술및 무예로서의 지도방법과 기술적인 내용을 과학화한 무도이며 이의 절대적인 우선을 위하여 계속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3. 완인태권도는 정신적인 발달및 인격적 확립을 위하여 무도철학을 정립·개발시킵니다.

Kyong Lee Taekwon-Do Centre
세계태권도연맹·카나다태권도협회가입 회원 도장

다운타운도장	615 YONGE ST. (at Isabella St.)	929-5511
북부도장	2281 YONGE ST. (at Eglinton Ave.)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 E. (at Pharmacy Ave.)	759-2500

※962-3000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통화중이나 응답이 없을 때).

관 장 : 이 경 태 — 이곳 토론토에서 최초로 태권도 보급(1967)
건국대학교 태권도부 사범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
제3회 세계태권도대회 카나다국가팀단장
카나다태권도협회회장(1977~1980)

지도사범 : 이 현 우 — 태권도5단

조 사 범 : 존·웨잉거스트(3단), 랜디·매다(3단),
멜·암바팔리(3단)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 (416) 533-2361

SSH

「다윗의 기적」끝내 불발

캐나다, 미국 대파 8 : 3

(에드몬튼)캐나다는 항상 고전을 겪는 난적 미국을 맞아 마이크·보시의 결승골로 4 : 3으로 리드한후 4점을 추가, 8 : 3으로 대승을 거두었다.

3일 에드몬튼과 위니펙에서 속개된「캐나다 컵」하키쟁탈 세계하키대회 2차전에서 캐나다 외에 소련은 스웨덴을 6 : 3, 체코는 핀랜드를 7 : 1로 물리치고 각각 승리를 거두었다.

캐나다와 미국의 대전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3피어리드 전반 10분까지 계속됐다.

2피어리드까지 3 : 1로리드하던 캐나다는 3피어리드에 들어와 미국의 연속 2골로 동점을 이루었다. 이후 미국 마이크·오코넬의 페날티로 캐나다는 파우어·프레이 찬스를 맞았다.

지금까지의 파우어·프레이에서 별 재미를 못보던 보우맨 감독은 진용을 바꾸어 페렛트, 크레츠키, 라플러 대신 골·게타, 마이크·보시를 넣었다.

보시는 지금까지 그레츠키와 연습을 안해보았지만 게임에서는 콤비를 이루어 결승골을 넣었다. 그레츠키가 자기 특기대로 골·네트 뒤에서 골 앞의 보시에게 퍽을 패스하자 보시는 가볍게 밀어넣었다.

이때 미국팀 감독 루·넌은 "페렛트가 업사이드 포지션에 있었다."고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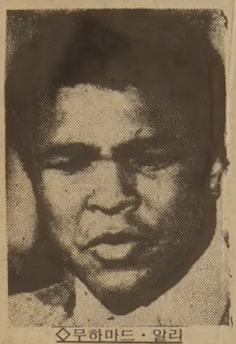
그때까지 잘 막아내던미국은 결승골 이후 무너져내려 8 : 3으로 대패했다.

캐나다는 5일 위니페으로 장소를 옮겨 체코와의 3차전을 갖는다. 이 게임은 CTV(8 PM)를 통해 중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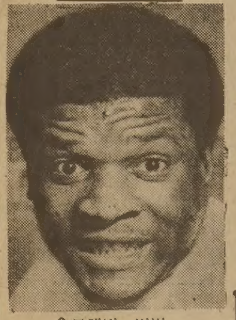
「파우어·플레이 (Power Play)—하키에서 상대방선수가 페날티로 퇴장당했을 때 숫자적 우세를 이용, 공격하는 방법, 이때의 숫적열세 수비팀의 대항작전을 페날티·킬링(Penalty Killing)이라 한다.」

알리와 대전 예정

캐나다챔피언 버빅



◇무하마드·알리



◇트레비·버빅

연방헤비급 권투챔피언 트레버·버빅은 전 세계헤비급챔피언 무하마드·알리의 대전제의에 아무 두려움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빨리 대전을 가질수록 좋다고 말했다

알리는 1일 오는 12월2일 바하마에서 버빅과 대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복싱전문지「링」지에 의해 세계헤비급 7위로 마크된 버빅은 알리와의 대전에 앞서 캐나다에서 뱅쿠버 출신 고드·라셋트와싸우겠다고 말했다

작년 10월 챔피언 래리·홈즈에 10회 기권패한 알리(39)는 현재 세계랭킹에서 탈락됐나 3번이나 세계챔피언을 쟁취한 바 있다. 알리는 떠버리요 시인이며 회교신자로 통한다

자마이카 태생의 버빅은 프로전적 19승2무1패로 지난봄에 홈즈에게 판정패했으나 홈즈가 리턴매치를 기피하고 있는 헤비급의 다크호스로 알려졌다

(하리팍스) 캐나다와 영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섹스교 부부 출국

경찰수사후 권유

(서울4일=연합)속칭「섹스교」로 통하던 사이비 종교를 포교하려던 두 미국인 부부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법무부의 출국권유에 따라 4일 한국을 떠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존슨씨부부와 다이먼트씨 부부는 79년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섹스를 신봉하고 혼음을 조장하는 자칭종교를한국사회에 퍼뜨려 왔다.

이들은「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경(性經)을 갖고 젊은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접근, 포교 해왔다.

결혼 축하

신 랑 : 이승수군 (이부현씨 장남)
신 부 : 황은혜양((황원복씨 3녀)
때 : 9월19일(토) 하오 1시
곳 : 한인장로교회 (1183 Davenport Rd. Tor.)
주 례 : 박 희 민 목사
피로연 : International Chines Restaurant (하오2시) (421 Dundas St.W.)

교 민 농 정

◆유현승(중앙도서관 도서분류과장)=메트로 토론토내 80개 도서관중 10개의 큰 도서관에 도합 약 4천권의 한국도서를 구입, 비치케한 공로자로 정평이 나있거니와, 작년부터는 김창열 한인YMCA 총무와 손잡고 스카보로도서관에서 추석놀이 한국민속(고전춤·윷놀이·한국문화영화상영)등을 실시케 하는등 민간 문화외교관으로도 활약이 크다

미시사가도서관의 올해 추석놀이는 오는 19일 하오1시30분~4시에 있다

◆이영현(영리무역 사장)=조카 이승수군의 혼인(9월19일)을 앞두고 준비에 바쁘다 CNE출품(한국상품 등) Y합창단 뒷바라지(후원회이사장)등 공·사 바쁜 중에도 집안의 대사 치르기에 마음 쓰느라 말 그대로 눈코뜰 새 없는 형편

가을의 퇴근 〈시〉

변 은 숙 (문협회원)

나무들이 마지막 단장을 한다。
푸름 그대로 주저 앉으면
너무 슬퍼 보여서 그렇다。

잎이 물들지 않고
새파란채로 떨어진다면
모두 젊은 나이로 죽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여자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화장을 한다。

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치마를 펄럭이며 퇴근한다。

박봉으로 일에 묻힌 어린 처녀들이
모두 잎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은
지분이 묻지 않은 파리한 살갗으로
가을을 가로질러 가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낙엽 위를
치마를 펄럭이며 퇴근한다。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54)

팔리·모왓 원작, 천 재 훈 옮김

이들의 한 사람으로서내가 빨리 말을 배워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오텍과 오호토는 머리를 맞대고 이틀 동안을 두고 여러가지의 각도에서 이문제를 토의했다 나는 참다못해서 내주위에 있는 물건의 이름을 묻고 또 동사를 행동으로 해 보이면서 내쪽에서 덤벼들었다 내가 알지못했지만 이것이 자기네들이 계획을 반대로 들어맞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쪽이 선수를 썼다고 믿게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혼자가 아니면 둘이서 같이 이들 선생님들은 세심하게 나의 공부에 참석해주었고 어떤때는 너무 열심히 하고 또는 하나의 간단한 단어를 이해하는데 복잡하게 혼동이 되어 폭소를 터뜨리며 그 노력을 넘기곤했다 그런데도 나는 빨리 배웠다 너무빨리 배워서 에스키모말이 어렵다는 말을 여러번 들었지만 아주거짓말 같았다 한달이 지나자 나는 의사를 표시하고 나에게 말하는 것을 모두 알아들을 수 있었다 나는 상당히 으쓱 대었고 자신이 언어학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해 보았다 내가 그렇게 빨리 진전을 보인 진짜이유를 발견하기까지는 거의 일년이 지나간뒤였다 물론 비결은 오텍과 오호토 그리고 그나머지의 모든 사람들의 협조였는데 그 언어를 나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을 고안했던 까닭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배우기 힘든언어였다

그들은 상당히 날카로운 눈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었다 첫째 이유로는 백인들은 아마도 모자라는 두뇌를 갖고있어서 그들의 복잡한 말을 도저히 배울 수 없을것이라고 생각 했으며. 그들은 내가 선수를 쓰도록 계획을 세우면서 내신상에 필요한 말부터 배우도록 고안을해서 지름길로 나를 인도해 주었던것이다

내가 물건의 이름을 물어보면 설명을 붙이지 않고 직선적인 대답만 해주었다 예를들면 사슴하면 간단하게 툭투라고 기억하기 쉽게 가르쳐주었고 힘들이지않고 웬만큼 복잡한 문장을 지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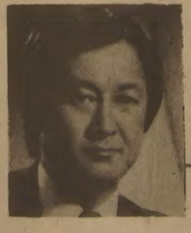
그러나 정확하게 하자면 이말이 매우 제한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지못했다 이단어는 큰뜻으로 사슴의 실물만을 의미한다 두살된 숫사슴처럼 사슴의 특별한 특징을 이야기할때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다른단어가 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의미로 사슴을 말할때 이할미우트의 언어에는 열두어가지의 다른 단어가 있다 오텍은 한개의 뜻이 갖는 푸부한 의미를 나의 부당한 암기력에 짐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현명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으며 또한 내가 사슴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느때나 한특유한 단어만 쓰게했을 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나와 대화를 나눌때 다른 특유한 단어를 못쓰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대개의 다른 명사를 사용할때도 마찬가지였다 이사람들은 나에게 근본 단어를 가르쳐주었고 자기서부터 고생되는 접두사와 접미사로 하여금 그들의 언어는 아마 오늘날 쓰여지는 어떤 언어보다도 훨씬 능가하게 융통성이 있으며 섬세한 의미를 갖는 언어임을 알게 되었다 전적으로 그들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근본에스키모어를 창안했고 그들 스스로 사용해서 나에게 이야기 할 때 뿐만아니라 내가 들을 수 있는 한도에서는 자기들도 그렇게 대화를 나눴다

물론 장사를 할 때 처럼 불완전한 말의 발달은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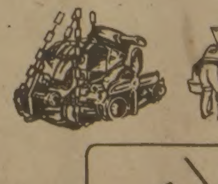
그러나 어떤 종족을 막론하고 이런언어는 세월이 가면서 점차 복잡하게 되었지만 큰 노력없이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할미우트사람들은 일부러 이런 언어를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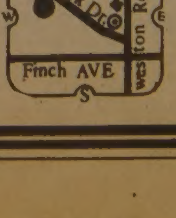
그것은 계획에 의한 것이었고 열심히 가리키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계속)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REAL ESTATE BROKER
MORTGAGE BROKER 이 대 환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샾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주매상 $7500, 렌트 $2800, 리스21년 Asking $279,000,
다운페이멘트 $160,000
버라이어티
주매상 $7,200, 렌트 $1120, 리스3년+5년(3베드룸포함)
주매상 $5,500, 렌트 $1,300, 리스2년+5년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DRIVE IN햄버거 SHOP(3주전에 Open)
주매상 $8000, 렌트 $3000, 리스10년, Asking $269,000
다운페이멘트 $80,000(스토아 오픈시간 10시~10시)
일요일 쉬는 백화점안에 있는 Fish & Chip
주매상 $7,000, 리스6년반, 렌트 $2350+Common경비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10시~6시,
일요일·공휴일은 문닫음, Asking $250,000
다운페이멘트 $120,000
세일즈맨 신 영 하 R) 423-3114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NORTH YORK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Oven Baked Finish
교포우대
(B) 749-0555
(R) 881-4053
215 TORYORK DR. 송 대 헌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集中暴雨…66명 死亡·실종

이재민 4千명·財産피해 55億
南部지방
農地침수 萬餘정보·船舶73척 파손
木浦·海南·康津·高興·珍島 한때浸水
태풍東進따라 釜山·慶南도피해늘어

濟州道서북쪽에서 주춤거리는 바람에 木浦와 海南등 그 영향권에 든 전남지역에 집중호우를 쏟은 제18호 태풍 애그니스가 3일 남해안을따라 동북동진함으로써 경남晋州、河東、金海、泗川、昌寧、密陽등 경남남서부지방과 蔚山등 남동부지역에도 집중폭우와 함께 강풍이 몰아쳐 곳곳에서 농경지와 가옥침수、교통두절、통신단절등 큰 피해를 냈다。

이와함께 인명피해도 늘어 전남북、부산、제주등지에서 3일하오현재 사망35명、실종22명、부상9명등 6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재민 4천97명이 발생했다고 중앙재해대책본부가 밝혔다。

2일 쏟아진 폭우로 시가지전역이 침수됐던 木浦를비롯、海南、康津、高興、珍島、莞島등 전남 해안지방일대는 3일하오 애그니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일단 비가 멎고 물이 빠지기시작、주민들이 피해복구작업에 나서고 있으나 피해상황도 속속 늘어나고있다。

중앙재해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재산피해는▲농경지침수 1만2천3백18정보▲도로유실 60개소▲선박파손73척▲항만어항시설과 99개소등 도합 55억원이상이다。(3일상오6시현재집계)

대책본부는 태풍이 진행하고있는 부근에위치한 부산경남지방에 계속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할것으로 예상、경계태세를 갖추도록 긴급시달했다。이에따라경남도는수해대책인원과장비를 경남 남부해안지역일대로 집중 이동배치했다。

水害임시취재반
<영남> 사회부 鄭巢鎬기자 / 사진부 金海雲기자
<호남> 사회부 徐鍾道기자 / 사회부 朴珍列기자 / 사진부 朴泰弘기자

◇물바다가된 湖南 곡창지대
연4일째내린 집중호우로 물바다로 변해버린 전남羅州郡 多侍面 일대농경지。벼포기들은 완전히물에잠겨 전혀보이지않고 농가와 공장건물의 지붕、그리고 허리까지잠긴 나무들만 보인다。【光州=聯】

颱風 애그니스 消滅
오늘上午 東海로 빠져나가

5일간 국민들의 간장을 졸이게하며 濟州서쪽 바다에서 맴돌던 제18호 태풍 애그니스가 4일상오 끝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 소멸된다。

반경3~5백㎞의 영향권에 집중폭우와 강풍을 몰아왔던 애그니스는 지난달30일 濟州지방에 폭우를 쏟기시작、만5일동안 濟州근해에서 주춤거리다 전남 해안지방을 강타했으며 3일밤에는 경남해안지방을 엄습한후 심술6일째인 4일새벽 에너지가 소진된채 열대성 저기압이돼 동해로 빠져갈것이다。

중앙관상대에 의하면 3일하오3시 현재애그니스는 경남巨文島부근해상 (북위34·2도 동경127·7도)에서 매시 15~10㎞의 느린속도로 동북동진、이날밤중으로 경남해안으로 지방에 집중호우를 계속퍼부은후 4일새벽에는 대한해협으로 빠져 소멸될것으로 내다봤다。

애그니스는 북상과정에서 진로를 여러차례변경、그세력이 현저하게 약화돼 중심기압이 9백85밀리바인 C급 태풍으로 변질됐으나 아직도 중심부근에는 초속 17m、반경3백㎞이내에서는 초속10m의 폭풍우를 동반하고있어 전남、경남지방과 남해안 도서지방일대에는 집중호우와 해일의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관상대는 3일하오9시를 기해 태풍이 접근하는 동해해상에 발표했던 태풍주의보를 태풍경보로、영동지방의 호우주의보를 태풍주의보로 바꿨다。

◇강우량

海南	661·4
井州	660·0
長興	629·9
木浦	560·5
莞島	552·4
濟州	549·0
晋州	406·1
南海	398·0
麗水	384·0
大邱	366·6
江陵	321·0
東草	317·3
西歸浦	291·3
蔚珍	288·9
春川	285·0
大田	279·6
群山	257·7
浦項	256·4
全州	244·0
巨濟	206·0
忠武	190·9
淸州	182·7
仁川	190·6
水原	182·4
釜山	179·4
光州	172·0
蔚山	171·8
서울	148·5
瑞山	142·0

海南 6百61㎜로 最高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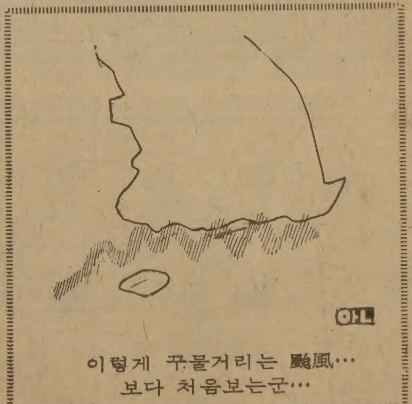
한편 지난29일부터 3일하오4시현재 주요지역의강우량순위는 별표와 같다。(단위㎜)

合同조사반 派遣
災害대책본부

중앙재해대책본부는 남해안지방의 태풍피해복구를 위해 4일중 관계부처실무자로 구성된 태풍피해 합동조사반을 구성、全南北및 慶南·濟州지방에 각각 파견키로 했다。

재해대책본부는 피해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예비비를 지출、긴급복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社會漫評



이렇게 꾸물거리는 颱風… 보다 처음보는군…

勞組방해業主 嚴斷토록
民正, 政府에 촉구
工事代金 조기放出도

民正黨은 3일 근로자권익의 옹호를 위한 勞動관계종합대책을 발표、추석을앞두고 각기업이 종업원들의 滯拂勞賃을 조속히完拂、청산하고 不當노동행위를 근절시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李鍾贊정책위의장은 이날 『8월말현재 전국 2백51개기업체에서 67억7천6백여만원의 임금이 滯拂되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추석전체불을 촉구하고 『최근 일부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을위반、사업주가 勞組활동을 방해하는등의 不當노동행위가 근절되지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와같은 惡德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벌로 다스려야한다』고 강조했다。

李의장은 이와 관련▲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국영기업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각종지원금을 早期집행하고 ▲정부 發注工事代金및 각종물품代金을 早期에 방출、추석자금 공급을 원활히 하며 ▲賃金代替 지불제도를 도입、기업이 不況때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불못하는 병폐를 없애도록 法的조치를 취할것도 촉구했다。

그는 또 勞動關係法이 개정되기 이전인 지난해 11월22일부터 잠정적 행정지침으로 시행해오던 勞組운영지침은 상임任員陣의 임용기준예산편성및 집행기준 產別·지역별 연락협의기구 설치운영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것은 노동관계법 개정전의 잠정적인 행정지침이었으나 노동법 개정이후에도 계속 발효되고 있기때문에폐지되어야한다』고 건의했다。

李의장은 이날 또 ▲사업주및 근로자의 기본의무를 명示하고 ▲산업안전보건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사업장에 안전및 보건관리책임자를선임 ▲위험방지및 보건장해방지에 필요한 조치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할것도 아울러 촉구했다。

韓·덴마크首相 회담
南總理 코펜하겐着、協力방안 협의

【코펜하겐3日=河長春특파원】3박4일간의 스웨덴공식방문일정을 마친 南惠祐국무총리는 3일상오11시35분 (한국시간하오7시35분·이하현지시간) 두번째 방문국인 덴마크의 코펜하겐국제공항에 도착、앵커·요르겐센 덴마크首相내외와 林明鎭駐덴마크대사등으로부터 따뜻한 영접을 받은뒤 이어 요르겐센수상이 주최한 오찬에 참석하고 韓·덴마크수상회담을 갖는등 덴마크방문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스톡홀름=河長春특파원】南惠祐국무총리는 『정치의민주화라는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며 하루아침에 모든것을 바꾸어 놓을수는 없는것』이라고 전제 『한국은 현재 보다 민주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에 관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스웨덴을 공식방문중인 南총리는 2일하오2시30분(한국시간 하오 9시30분) 이곳 그랜드호텔에서 가진 현지기자들과의 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특히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저마다 다른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각나라들은 특유의 정치 경제 사회문제를 가지고있으며 그 나라의 방식에따라 해결해나가는것』이라고 덧붙였다。

南총리는 南北대화문제에 관해 『아직까지는 북한측의 냉담한 자세로 남북관계가향상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1·12」및 「6·5」제의등 우리측 접근방식이합리적이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현될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한국의對東歐圈관계에 언급、『한국은 직접적으로 敵對하지않는 나라에 대해서는 체제와 이념을 초월해 통상관계등에서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對韓차관 60億弗
日소극자세 비판
다나까 前首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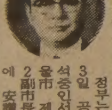
【東京3日=宋孝彬특파원】다나까(田中)前일본수상은 3일 하꼬네(箱根)에서 열린 自民黨의 다나까派연수회에서 『일본은 세계에대해 응분의 분담을 이행해야한다。50억~60억달러를 가지고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고있으나 혼자만 번창하다는것은 세계에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한국측의 60억달러 경제협력 차관요청에대한 日정부의 소극자세를 비판했다。

각료會談事前협의
日外務省직원來韓

오는10·11일 이틀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제11차 韓日정기각료회의의 사전협의를 위해 일본外務省의 와다나베(渡邊幸治) 아시아局참사관이 3일 來韓했다。

와다나베참사관은 이날 오후4시 외무부에서 崔東鎭亞洲局長과 만나 1주일앞으로 다가온 각료회담을위한 議題와 日程및 공동성명草案등을 협의했다。

서울 第2副市長
安讓熙씨를 發令



정부는 3일 공석중인 서울市 제2副市長에 安讓熙 서울市 재무국장<사진>을 승진발령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

地平線

사람은 길을 의지해 산다。태초에 길이 있었다─고 할만큼 그 역사는 오래다。원시인이 사냥·낚시를 다닌 산속·갯가의 발자국은 벌써 길이다。孟子가 高子의 마음가짐을 비유해 말한 『산중턱 사람발자국 나는 길은 어느 기간 계속해다니면 길이 나고、얼마동안 다니지 않으면 띠풀이 우거져 막혀 버린다』는、그런길이다。▼길은 여러가지다。이미 기원전 3천년代에、地中海와 발트海를 연결하는 「琥珀의 길」이 있었다。지금의덴마크에서 독일을지나、알프스산맥을 넘어 이탈리아에 이르는 交易路다。같은 交易路로 「비단의 길(실크·로드)」도 있었다。동양과 서양을 잇는 이 길의 역사도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이 길을 따라 우리나라에까지、서양 고대문명의 엷은 빛이 드리운다。▼아마 근대적인 길의 시초는 영국의 「매커댐道路」일것이다。존·매커댐(1756~1836)이 19세기초에 창안한 이 길은 크기가 고른 자갈을 깔고 타르로 굳힌 것이다。아스팔트가 나올 때까지 최신공법의 성과로 쳤던 이길은 産業革命과 병행해일어난 交通革命의 한 단면이다。이 같은 새길의 건설을 촉구한 것은 마차의 高速─그때로서는─운행이다。▼20세기의 「매커댐道路」는 30년대에 건설된 히틀러의 아우토반이다。50년대를 지나서는 이른바高速自動車·高速道路시대가 열린다。다시 한 20년을지나、京釜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우리도 그틈에 끼게 되었다。그뒤 10년사이、우리나라 고속도로는 8개노선 1천2백94㎞로 늘어났다。이처럼 재빠른 성장에、釜馬고속도로가 오늘 추가된다。도로연장은 釜馬43·5㎞중 신설구간 20·6㎞만큼 늘어난다。▼우리나라사람이 즐겨찾는 「世界랭킹」을 꼽아보면 우리는 세계제9위의 고속도로 국가다。9위라는 순위가 서운하다면 세계제1의 기록도 제시할수가있다。京釜고속도로를 「最少工費」로 「最短時日」에 시공한 실적이다。그러나 그길이 뚫리고 11년동안 보수비가 건설비를 웃돌았다는 사실은 세계몇위나되는지、과문한 탓으로 알수가없다。▼釜馬고속도로는 그와같은 「最少」「最短」의 前轍을 피했다고 한다。그러다보니 공사비는 1㎞에 15억원、도합 6백80억원이 들었다。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 해도、京釜고속도로의 1㎞1억원에 비하면 대단한 돈이다。그만큼 제대로된 도로는 비싸게 먹힌다。국토개발계획(82~86년)의 엄청난 고속도로사업이 「大役事」임을새삼 실감하면서、이른바 「道路經濟」란 말 뜻을 생각한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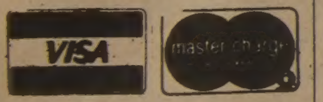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08
은 : 온스당 US 8.97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SAY
CHARGE IT!
WE HONOR



오시지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한국일보사 광고국

═치과개원안내═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하기장소에서 치과개원을 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개원일시 : 9월1일부터(오전8 : 30~오후5 : 30)
장　　소 : 586 EGLINTON AVE. E.
(Bayview×Eglington)
전　　화 : 483-9515(B)

치과의사 최 해 경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인 검진으로"

ZENITH
VIDEO SENTINEL SYSTEM™

특별염가

취급 품목
TV, RADIO
STEREO
ZENITH, SANSUI
AKAI, TOSHIBA

삼성사 668 BLOOR ST. W. ☎ : 533-4125

美·蘇, 앙골라事態싸고 攻防

앙골라 "對蘇·쿠바防衛조약 發動" 경고

【리스본2日AP=聯合】앙골라정부는 2일 自國을 침공중인 南阿共軍을 격퇴하기위해 소련·쿠바등과 맺은 방위조약을 적용할 태세가 돼있다고 발표했다. 앙골라 각의는 이날 유엔회원국이 외세의 침공을 받았을때는 집단방위체제를 가동할수있다고 규정한 유엔헌장 제51조에따라 소련·쿠바등과 맺은 방위조약을 적용할 필요성에 합의했다.

"蘇軍 주둔으로 騷擾高潮" 美
"美 南阿共지지는 불장난" 蘇

앙골라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또 미국이 최근 유엔安保理에서 南阿共의 앙골라침공 사태를 비난하는 결의안에 부표를 던짐으로써 南阿共의침략행위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프랑스주재 앙골라대사가 소련·쿠바등과 맺은 군사조약을가동시킬 가능성을 시사한후수시간만에 나왔다.

쿠바는 현재 1만5천내지 1만9천명의 병력을, 그리고 소련은 최소한 1천명의 고문관들을 앙골라에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南阿共은 2일 2명의 소련군장교가 南阿共軍과의 교전에서 사망했으며 소련군사병 1명이 생포됐다고 발표한바 있다.

南阿共국방성대변인은 南阿共軍이 이외에도 소제T34탱크 6대, 대공포및 군용차량 다수를 앙골라군으로부터 노획했다고 말했다.

앙골라 관영 앙고프통신은 정부발표를 전하면서 南阿共軍이 앙골라·나미비아 국경에 연한 앙골라영토 일부를 점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모스크바3日UPI聯合=特約】남아공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불장난」이며 미국의 정책은 앙골라에서 백인정권의군인과 흑인게릴라간의 분쟁을 확대시키는 모험이라고 저명한 소련의 평론가가 3일 말했다. 소련당국은 남아프리카의 최근 전투에서 소련군이 사망했다는 보도에 논평도 확인도 하지않고있다.

그러나 소련은 남아프리카사태와 관련, 미국에 강경한 경고를 함으로써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한 소련의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타스통신의 외신부차장 브라디미르·마트야쉬는 미국이 지난 8월31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南阿共軍의 앙골라침공비난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을 비난했다.

그는 또『미국의 지도자들은 군사력의 막강함을 거리낌없이 떠들고 동맹국들의침략적 행동을 뒷받침하고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의 도발적행동의 증거로▲미국과 리비아간의 공중 충돌과 지중해에서의힘의과시▲북한의영공을 침범한 SR71기의 북한미사일공격도피▲쿠바근해서의 해군작전▲지중해연안 디에고가르샤섬의 핵무기배치와 페르시아만및중동지역의군사력증강등 일련의사건을 들었다.

마트야쉬는『이상열거한미국의행동들은 세계의 패권을잡으려는 미국의 목표추구와 연결된다』고 말했다.

◇앙골라서 노획한 蘇製무기 南아프리카軍당국은 최근의 앙골라작전에서 노획한 蘇製 多發로키트발사대를공개했다. 왼쪽의 對空砲는 製造元미상이다. 【프리토리아2日AP聯合=特約】

◇南阿共軍이 생포한 蘇兵士 南阿共和國 군대가 지난주 앙골라침공중 수톤의 蘇製장비와 함께 생포한 蘇聯특무상사 니콜라프·페오도로비치. 【프리토리아(南阿共) 3日UPI=聯合】

美, 유엔서나미비아討議동의

【유엔本部2日AP=聯合】미국은 2일 당초의 불참입장을 바꾸어 나미비아(西南아프리카)문제를 논의하기위해 3일 개최될 유엔총회 긴급특별회의에 참석할것이라고 美유엔대표부의 조안·덕키공보관이 밝혔다.

이에앞서 美 유엔 대표부의 공보담당참사관인 스티브·먼슨씨는 미국이 오는15일 개최되는 나미비아 문제에 관한 유엔총회긴급회의에 정식으로 참석치 않고『업저버』로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1백54개 유엔 회원국가운데 특별회의소집요구 정족수의 과반수를 훨씬넘는 1백11개국이 현재까지 소집요구에 동의했는데 당사국인 南阿共은 제외돼있다.

【워싱턴2日AFP=聯合】美국무성은 2일 南阿共과 교전중인 앙골라내에 현재 소련고문관 1천명과 동구공산권고문관들을 포함, 총 1천4백명이 배치돼 앙골라군과 나미비아반군들을 지원하고있다고 확인했다.

딘·피셔국무성대변인은 소련과 동구권고문관들의 앙골라주둔을 확인하면서 이들의 존재가 남아프리카 지역의 소요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피셔 대변인은 또소련이 西南아프리카인민기구(SWAPO)에 무기와 보급품을 제공하고있으며 이들 고문관들이 앙골라軍과 일부정부기구내에서 군사고문및 기술고문의 역할을 수행하고있다고 밝혔다.

日 核재처리 自由化

美·日원자력會議 工場건설支援도 합의

【東京3日=宋孝彬特派員】美日원자력실무자회의는 3일 일본의 핵재처리를 무제한 자유화할것에 합의했다고 이날현지發기사로 일본유력지들이 1면에 크게 보도했다.

합의내용은 오는 10월이후 일본 東海村의 핵 재처리 공장에서 나온 核연료의 재처리를 무제한 인정하며 제2의 핵재처리 공장의 건설도 미국이 적극 지원한다는것으로 오는 10월말 공동성명을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지난7월 레이건 대통령은 핵확산의 우려가없는나라의 核재처리는 적극인정한다는 정책을발표했다.

이에따라 일본의 核재처리 자유화요청에미국이응한것이라고일본신문들은보도했다.

엘살바도르에 外勢본격介入

美, 정부군協力…쿠바등은 게릴라支援

【워싱턴2日UPI=聯合】엘살바도르 내전은 수개월전부터 美군사고문관들이 엘살바도르 정부군을 돕고있는데 이어최근에는 쿠바 고문관들이 반정부 좌익게릴라들을 지원하고 있는것이 분명해짐으로써 본격적인 외세개입양상을 보이고 있는것으로 2일 알려졌다.

美국무성은 이날 성명을통해『우리들이 입수한 정보들은 정확한 숫자는 확인할수 없으나 쿠바군사고문관들이 엘살바도르게릴라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명은 또 일부 니카라과인들도 작년부터 반정부군에 합류하고있다는 정보도 입수됐다고 덧붙였다.

국무성의 이날 성명은 쿠바군사요원이 엘살바도르내전에 개입하고 있다는 미국정부의 가장 강력한 시사이다.

蘇, 國防費지출增大

【워싱턴2日=聯合】소련은방대한 국방비지출때문에 국민생활수준의 정체·경제성장둔화등의 부작용을 빚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국방비지출을 늘려가고 있다고 美국방성의 한 연구보고서가 2일 밝혔다.

상·하양원 합동경제위원회가 공개한 국방성의 이 보고서는 소련이 국방비를 계속 늘려 얻은 "상당한 소득"은 레이건美행정부로 하여금 美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토록결정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보고서는 미국이 80년에 1천1백50억달러의 군사예산을 지출한데비해 소련은 1천7백50억달러를 지출했다고 밝히고 80년 소련 군수산업은▲6천대의 전차및 5천5백대의 장갑차량▲79척의 군함▲10만2천9백75基의 미사일▲항공기2천5백65대를 생산했다고 말했다.

中共 石油나무발견
★「유난」큰나무서 50kg

중공과학자들은 중공남부의 섬인 해남에서 디젤유와 비슷한 유질의 기름을 생산하는「유난」이라는나무를발견했다고光明일보가보도.

이신문은 이 나무한그루가 보통10~25kg의 기름을 생산할수있으나 큰나무는 50kg이상의 기름이 나오는 것도 있다고 밝히고 해남섬일대에는「유난」나무의 숲이 10ha에 달하나 현재는 나무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北京=聯】

海外토픽

勤務연령 45歲로
★印度, 스튜어디스들에

인도대법원은 최근 인도의 국제선및 국내선항공사에 근무하는 스튜어디스들의 근무연령을 45세까지로 확대시킴으로써 스튜어디스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인도 스튜어디스들의 근무연령은 국제선인 에어·인디아가 35세, 국내선인 인디언항공이 30세로 되어있어 이 연령이 지나면 매년 새로이 연장근무를 허가받도록돼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헌법위배라고 판시, 근무연령을 45세까지 연장했다.【뉴델리=AP】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㊳

洗腦공장「大和塾」

刑에서 풀려나 다시 強制教育場으로
日本精神 배우기·神宮參拜 강요당해

西大門署에 갇혀있을때 였다. 하루는 꿈에 어머니가 나타났다. 전에도 꿈에 어머님이 보이면 좋은일이 있었던 기억이 나 吉兆라고생각했다.

그런지 얼마뒤 형사가 유치장으로 와 엄지손가락을 펴보이며『일본에서 이런분이 왔는데 널 만나자고하니 좀 가자』고했다. 형사들이 모는 오토바이옆자리에 타고가보니 조선호텔이었다.

거기엔 일본貴族院의원인 사까니(坂谷)남작과 宮內部차관인 세끼야(關屋貞三郎)잘로가 와있었다. 그들은 날 보더니『할말이 없네. 일본정치가 이렇게 야만적인것을 여기와서 처음 알았네』라며 용서해달라고했다. 세끼야차관은 나의 고문당한 상처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그가 조사당한던 얘기를 묻길래 말을안했더니『나를일본인으로 알지 말고 같은 기독教友로알고 애기해달라』고 했다.

흥업구락부사건은 마침내 일본까지 번져지식층사이에 큰파문을일으켰고 급기야 이들이 달려와 총독에게 관련자를 석방하라고 항의했었다는 것이다. 日帝는 흥업구락부의 장인 尹致昊형님을 또 잡아가둘수 없어 딜레마에 빠져있다가 일본서 要人이 달려와『조선人物의 씨를말리려는것아니냐』고 항의하고 신문에 크게 보도되고 하니 하는수없이 나를 석방했다.

이래서 西大門경찰서에서6개월, 西大門형무소에서 3개월가량을 보내고 9개월만에 풀려났다.

그때 검찰청으로 가니 나가사끼(長崎)검사가『首魁 尹致暎. 네 죄는 사형에 처해도 마땅하다. 그러나 裕仁天皇의 聖恩으로써 內鮮一體의 一視同仁하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특별히 용서해 6년징역에 처할것이로되 네가 일본정신을 체득해 앞으로 일체 부정한 일을 안 한다는 조건아래 4년刑을 구형하며 이것도 특별히 기소유예로 내보낸다』고 말했다. 고문한처지에 무슨 생색이나내듯 훈계까지 하는데는 기가찼다.

나는 석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팔다리를 맘대로 놀리질 못했다. 당시의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있어 날만 좀 궂으면 어깨, 팔이 결려온다.

석방된지 얼마후부터 소위「大和塾」엘 강제로 끌려다녔다. 大和塾이란 총독부가 우리의 애국인사, 민족주의자및 思想주의자들에게저들의 일본정신을 주입시켜 정신을 개조한다는 洗腦工場이었다. 당시 서울에서 가장 큰 大和塾은 南山과 奬忠壇에 있었다. 내가 끌려다닌 大和塾은 서울西大門北阿峴洞쪽에 있던 감리교신학교에 있었다. 지금 내가 살고있는 忠正路집 아래쪽이다.

왜놈들은 하루 5、6시간씩 앉혀놓고 洗腦교육을 시켰다. 때로는 일본군인이 나와 강연을하기도하고 때로는 뚱뚱한 일본중놈이 나와 佛經을 읽고 정신을 차리라는 얘긴지 냉수를 머리에 끼얹기도 했다.

대열을 지어 神宮參拜도 시켰는게 南山의 4백계단을 진땀을 빼며 오르내리던 기억이 지금도 뼈아픈 惡夢으로 되살아난다.

왜놈들은『일본정신을 체득하라. 머리에 든 나쁜 사상을 전부 버려라』하면서 무지막지하게 몰아세웠다. 졸거나하면 등뒤에서 몽둥이로 사정없이 패기도 했다.

◇日帝는 中國대륙침략을 본격화하면서 한국국민들에게 創氏改名과 神社參拜를 강요했다. 사진은 당시 서울南山神社。

大和塾에 끌려나온 사람들중에는 공산주의자들도 있었는데 모두들 개처럼 취급당하는 중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은 더 모질게 당했다.

日帝는 이런 강제교육을 敗戰할때까지 계속했다. 나는 흥업구락부사건이후부터 해방전까지 계속 이 洗腦교육의 포로가 된 셈이다.

사실상 軟禁상태였다. 밤낮으로 동태를 감시당했으며 일본헌병은 軍曹를 우리집에 파견시켜 아침부터 밤12시까지 나의 집을 지켰다.

내가 당한 고통은 그래도 작은 受難중의 하나였다. 中·日전쟁에 이어 日帝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뒤 우리민족은 피눈물나는 핍박을 당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징용에 끌려가고 전쟁터에 끌려가 희생을 당했다.

徵用·徵兵·供出등 人的, 物的자원이 강제로 징발돼 전쟁의 미끼가 됐다.

日帝는 皇國臣民이란 이름의 칼을 씌워 수많은 청년, 학생들을 전쟁터로 몰아넣는가 하면 노동력의 戰力化를 위해 근로報國隊를 만들어 강제노동을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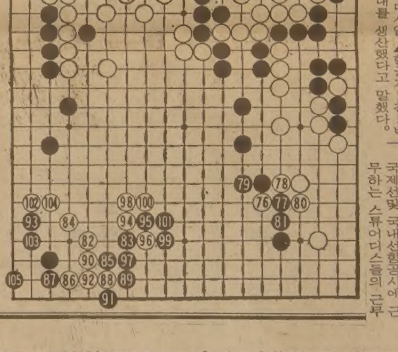
또 자발적 獻金·獻納이라는 이름으로 물자를 강제수탈했고 양곡, 鍮、鍮器제품에다 심지어 잡초까지 강제로 거뒀다. 나도 배급을 못타 애를 먹었다. 한번은 내집을 감시하는 고바야시(小林)軍曹가 딱하다 싶었던지 배급표를 얻어줘 간신히 빵을 사 먹기도 했다.

굶주림이 더해가면서 日帝의 종말은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局 第5譜 76~105 (각5시간 덤5집반)

白(5段) 張秀英
黑(4段) 鄭壽鉉



大勢는 一進一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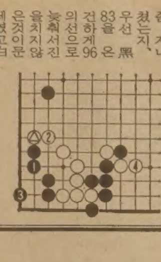
옛날 兵法에서는 싸움에 이긴날 밤에는 투구를 벗지말라고 한다. 자칫 적의반격을 당하여 前功이 無爲로 되기쉽다는 가르침이거니와 이바둑이 바로 그일을 연상케 하고있다.

상변의 작전에서실패한黑이 중앙을 보강할겸 그 우측白에 압력을 가하며 뛰고 또뛰었을때 白76으로 건너붙여서 끊은것이 마음의 해이를 보여주는 숫법이었다. 다른것은 차치하고「끊어도 소용없는」곳을 끊은자체가 의문. 결국 黑77이하81까지 黑만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으니 한말로해서 이적행위였다.

『이로인하여 대세는 오히려 黑이 유망해졌다』는 趙8단의 해설.

그런데 이번에는 黑이 갑자기 과격한 수를 둔탓에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형세를 뒤집은 기세가 좀 지나쳤는지, 우선 黑83은 온건하게 96의 선으로 늦춰서 진을 치지 않은것이 문제였고 白84때의 黑85는 직접 93으로 귀를 굳혀야 온전했던것이다.

공연히 85를 두는바람에 白은 반격의 기틀을 얻고 86이하로 귀에 선제공격을 가하여 黑은 1백5까지 구구도생하게되었다. 하지만 白94,96의 예리한 공격에 이어 白98로 1백2를 먼저두어 참고도처럼 黑1、白2때 黑1백3이 불가피할때 白4로 뻗어 통렬한 반격을 가했더라면 어찌되었을까. 본보의 결과는 黑으로서 불행중다행이었다. 【一凡】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

"알렉산더야, 그도너트를더이상 먹지말아라"
"입맛을 버리게되고지방기많은 탄수화물은신체기관에 해롭다。"
"그래도 네가 그걸 계속먹으면…" "…아빠몫이 하나도남지 않겠죠"
"정말이구나!"

싸다고 소문 난 가나안
카텐
2390 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토론토 교육 위원회
모국어 등록 프로그램
1981—82

등록날자 : 1981년 9월15일 오후1시30분~7시30분. 부모들은 이 시간중 학교에가서 자녀들의 등록을 마치거나 또는 81~82년도 안내책자 10페이지에 있는 등록신청서를 보내도 된다.

안내책자는 학교 개학 첫주에 모든 국민학생들에게 분배된다.

모국어 교실에서 학생들은 그들의 모국어를 공부하고 문화적 유산을 배운다.

수업료는 메트로·토론토의 거주자들에게도 무료이다.

문의처 : 598-4931 EXT. 605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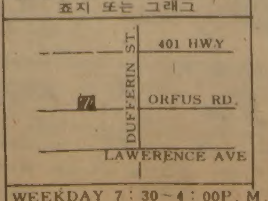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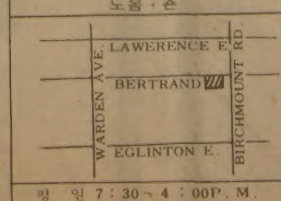
LOEB
CASH "N" CARRY

우리는 3개의 장소를 이용하여 친절하고 예의 바른 자세로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을 깨끗하고, 넓은 복도위에 가득채워 놓았읍니다. 물건의 구별을 쉽게하기 위해 케이스를 낱씩 쪼개 진열해 놓고 염가로 봉사코자 하오니 오셔서 구경하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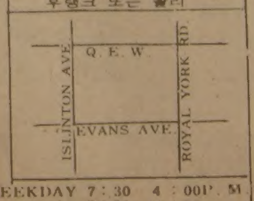
또한 우리는 매주마다 스페샬품목을 정해놓고 판매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십시요.

20 ORFUS RD. 782-8851
죠지 또는 그래그


WEEKDAY 7 : 30~4 : 00P. M.
토요일 7 : 30~11 : 30

55 BERTRAND 752-7292
노움·존


평 일 7 : 30~4 : 00P. M.
토요일 7 : 30~11 : 30A. M.

160 EVANS AV 255-6366
후랭크 또는 촬리


WEEKDAY 7 : 30~4 : 00P. M
토요일 7 : 30~11 : 30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南海岸 江·貯水池 범람위기

——애그니스 심술暴雨 4~6백㎜ 쏟아져

河東·晉州·釜山 유례없는 물바다

5일간 濟州서쪽에 머물면서 濟州와 全南해안 일대에 큰비를 뿌린 애그니스는 다행히 육지에 상륙하지는않아 많은 국민들의 조마조마했던 마음을 한결 놓이게 했다. 그러나 애그니스는 대한해협을 빠져나가면서 마지막 심술을부려 전남木浦 등지와 경남 河東, 晉州, 釜山으로 이어지는 남해안연변도시와 농경지와 공단에 4~5백㎜의 폭우를 퍼부어 유례없는 물난리를 안겨주었다. 3일하오 현재 남해안일대에 산재한 강(江) 지류는 수위가 갑자기 높아나면서 범람위기에 직면해있는가하면 晉陽湖, 장흥의 4개저수지도 위험수위를 훨씬넘고있다. 또南江, 蟾津江, 寶城江, 耽津江, 榮山江, 德川江지류들이 거대한 수량을 간신히 지탱하며 근처 晉州, 泗川, 河東, 長興, 寶城, 康津, 羅州, 山淸등 소도시들을 넘나들고있어 주민들을 안타깝게했다. 남해안 서쪽에서 애그니스를 따라 동진해간 집중폭우로 남해고속도로도 도로가 통행금지돼거나 유실된곳이 많았고 수만정보의 농경지가 새로이 물에 잠긴것으로 보인다. 한편 3일낮 폭우가 그치기시작한 全南지역에는 군·관·민이 합심, 즉각적인 수해복구작업에 들어갔다. 전공무원과 예비군이 총동원돼 물이 빠져나가는 도로와 가옥, 파괴된 시설등을 복구하기위해 밤을 새웠다.

◇必死의 고무보트 脫出 태풍의 여파로 퍼부은 5백54·6㎜의 폭우때문에 2일상오11시부터 고립됐던 전남 羅州郡 山浦面 德禮里1區 23세대, 1백20여명의 주민들이 3일상오 대형고무튜브를 연결해만든 구명대에 매달려 구조되고있다.

山사태·防波堤붕괴

釜山·慶南

沙上工團침수 도로막혀 우회通行 釜山

5마을 4백명孤立 救助못해

【釜山·慶南】 경남도에는 2일밤과 3일사이 평균 1백62·6㎜의 비가 쏟아져 산사태로 6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으며 5명이 부상을 입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南海郡과 河東郡으로 각각 3백75㎜, 3백21·5㎜. 이 비로 3일 상오 5시께 河東郡 金南面 개천리305 영천부락 뒷산이 무너져 이 마을 조영호씨의 아들 운석군(7)과 딸 원희양(1)등 어린이 2명이 숨졌다. 또 河東郡 古田面古河里709 오경석씨집도 산사태에 깔려 이집에 살던 박종석씨(30)와 박인수군(5)등 2명이 숨지고 오씨부인 박금숙씨(47)가 실종됐다. 晉陽郡大坪面 下村里42 김대국씨의 손녀 은희양(4)도 산사태로 숨졌다.

이날상오 6시부터 河東郡玉宗面大谷里 추동부락앞 덕천강변과 山淸郡 丹城面沙月里등 도내5개부락에서 4백여명이 불어난물로 고립됐다가 이날낮 12시현재 32명이 구조됐으며 나머지는 구조용헬기가 뜨지못해계속고립돼있다.

경남 재해대책본부는 이번 비로인한 재산피해를 모두 7억6백99만4천원으로 집계 발표했으며 이중 도로5개소 5백16m, 하천제방 3개소 3백80m 수리시설 3개소가 유실되고 긴급복구에나서고있다. 또 선박13척(19·07톤) 전파, 4동이 파괴됐고 도내행정전화의 절반가량이 이날하오4시현재 불통되고 있다.

이날하오 4시현재 경남도내의 晉州—山淸, 河東—九禮, 密陽—昌寧院旨—智異山 구간등 5개소의 도로가 두절됐다.

재해대책본부는 앞으로 피해가 더늘어날것으로보고 모두9천92명의 인원과 42대의 중장비를 동원 복구에나서는 한편 27개市郡에 수해방지및 복구비상령을 내렸다.

한편 부산시에도 이번 폭우로인해 3일상오11시부터 北區沙上공단확장신호대앞 로터리등 부근일대도로가 침수돼 이른아침부터 金海, 馬山지역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낙동路로 우회했으며 釜山鎭區凡川4洞 철도공작창후문앞 대로변가로수들이 강풍으로 뿌리째 뽑혀나가 대책본부요원들이 정리에 나섰다.

또 海雲臺區 佑洞水營비행장앞 도로5백m가 침수돼 인근선창부락 주민들이 입시호안을설치해 피해를 줄이고있으며 西區 甘川洞 舊平洞 해안주민도 유실된 도로의 복구작업에 나섰다.

한편 부산시 재해대책본부도 3일상오 민방위대원과공무원 예비군등 모두4천9백여명의 인원을 동원, 지난2일 해일로 붕괴된 影島區南港洞방파제 보수등 유실된도로 호안과 방파제의 축조작업에 나섰다. 부산시교위도 이날 하루관내 초·중·고교에 휴교를 지시했다.

◇復舊에 땀흘리는 농부 「풍년들 빼앗길수없다」는 농민들의 의지는 굳기만하다. 태풍여파로 폭우가 휩쓸어 놓고간 벼논에서 농민과 공무원들이 벼포기를 일으켜세워 묶고있다. 【全南潭陽郡古西面東雲里=聯合】

木浦비 멈추고 물빠져

6명死亡·실종 新安 4천町步 침수

【全南】 木浦市와 新安郡관내도서지방등은 2일 하루종일 거세게 내리던 비가 3일 상오께부터 서서히 개면서 각재해대책본부는 피해 상황집계를 서두는등 바쁘게 움직이고있다.

이번태풍 이후 3일하오 현재까지 木浦시내에서는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保達山일주도로와 臥武洞남부제방등이 부분적으로 붕괴됐고 농경지 1백81ha와 가옥 3천여동이 침수됐으며 시내전체가 한동안 물바다를 이루기도했는데 정확한 피해액은 아직 집계하지못하고있다.

또 新安郡에서는 2일새벽 4시께 智島邑防築里 道德島앞해상에서 3·7t급 신흥호를 뭍으로 끌어올리던 선장 김오천씨(43)등 3명이 닻줄이 끊어지면서 배와함께 실종됐고 전경작지의 43·6%인 3천9백4ha가 침수되는등 3일하오현재 군집계로 모두 6억9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木浦지방에는 지난 31일이후 3일하오1시까지 모두5백45·1㎜의 비가 내렸으며 2일 하룻동안에만 3백94·7㎜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10개道路 파손

【江原】 지난 30일부터 3일상오까지 楊口지방에 최고2백70㎜의 비가내린것을 비롯 도내평균 2백5㎜의 강우량을 보인가운데 전답 2백42ha가 침수되고 교량1개소 유실, 지방도 10개소가 산사태나 급류에 유실 또는 파손되고 댐수문개방으로 저지대 시설등이 침수돼 조류1백여마리가 떼죽음을 당하는등의 피해를 입었다.

복구작업 한창

내일 交通트일듯

【濟州】 2일정오를 고비로 태풍의 거세가 누그러지기 시작하자 군·관·민은 총동원, 초속25m의 강풍으로 정전, 또는 두절된 통신시설등을 복구하는 한편 유실된 도로·축대등의 보수작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濟州道는 태풍피해가 의외로 적은데 안도의 한숨을 쉬고 3일늦게까지 남은 피해를 모두 복구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4일부터는 육지와의 일부 해상교통도 트이게될것으로 기대하고있다.

動物園도 浸水 소동

잠자던 곰등 SOS

春川 育林농원 물바다

猛獸들 철책안서 울부짖어

캥거루·새등 잠자다떼죽음

강원 春川댐밑에 자리잡고있는 育林농원 동물원에 2일 새벽3시30분께부터 물이밀어닥쳐 사육장이 침수되었다.

잠자리에 물이 들기시작하자 호랑이 곰 사자등 덩치가 큰 맹수류들은 잠에서 깨어나 울부짖으며 철책을 앞발로 긁어대며 사육사들이 철책안에 급히 선반을 가설해주어 그런대로 대피처를 구했으나 잠에 골아떨어져있던 5년생 캥거루와 고라니는 물을 피하지못해 빠져죽었고 공작·오골계·당닭등 조류 1백여마리도 떼죽음을 당했다. 【春川=聯】

◇春川 育林농원 동물원에도 물이 스며들어 동물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해외硏修生 규정위반쇼핑

全體의 4%에 불과

女學生이 골프채들고 오기도

관세청은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해외연수를 다녀온 1천7백94명의 학생 가운데 10만원이상의 물품을 사갖고 온 79명으로부터 1천73만6천원의 관세를 징수했다.

관세청은 지난 8월15일부터 31일까지 입국한 해외연수생들이 갖고온 물품 가운데 카메라 40대, 카세트 타자기 레코드판등 악용품류 55점, 의류 손목시계 선물용품 3만43점등 총4백38점 1천4백25만6천원어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것이다.

이번 해외연수생중 규정이상의 물품을 휴대한 학생은 전체의 4%에 불과하고 1인당 과세대상 물품금액도18만4백55원에 부과한것이다.

이번 해외연수생중 규정이상의 물품을 휴대한 학생은 전체의 4%로서 일반 국내입국자들의 과세비율26%에 비하면 6분의1에 해당할뿐 아니라 1인당 과세대상 물품금액도 평균18만4백55원으로 규모가 아주작은 편이다.

한편 골프채를 갖고온 학생은 김모군(연세대)과 오모양(大邱제일여중)으로 본인들이 직접산것이아니고 해외거주 가족으로부터 국내가족에게 보내는 선물로서 아이언1개, 우드1개, 퍼터1개등 모두 중고품 낱개였다.

韓國麻紡에 큰불

强風으로 鎭火늦어, 3億어치타

【天安=聯】 2일하오 7시55분께 忠南牙山郡排芳面公須里282 주식회사 한국마방(사장 宋儁根·55) 제4공장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창고안에 있던 저마(모시)타래실등을 태워 3억1천5백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2시간만인 이날하오10시께진화됐다.

이불로 5백96평크기의 벽돌슬레이트 창고가운데 2백98평이 전소되고 창고안에있던 저마타래실 1백파운드짜리 5백뭉치(2억원상당)와 이타래실의 반제품 2·3톤(8백5만원) 저마생산원료인 아크람 3톤(1천60만원) 부산물 61톤(9백15만원)등이 모두탔다.

조직解決士 둘檢擧

4千萬원 갈취 同業미끼 會社뺏어

大邱

【大邱=聯】 大邱시경은 3일 채권·채무번제를 청탁받아 해결해주고 2년동안4천여만원의 금품을 갈취해온 해결사조직 정보파를 적발, 두목 孫圭範씨(41·大邱市中區北城路·전과3범·일명 전보)와 행동책 金在培씨(34·전과3범)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행동대원 金石씨(28·전과1범) 李祥烈씨(26·전과5범)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두목 孫씨는 지난79년8월22일 大邱市中區東城路2가1171 해외통운상사 대표 鄭元澤씨(31)가 자금이 부족한것을 알고 鄭씨에게 동업을 요구, 80만원을 투자한뒤 鄭씨에게 압력을 가해 회사운영권을 포기서를 쓰게한뒤 1천여만원상당의 이 회사를 강제로 빼앗았다는것.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533-2361 독신청은

모든 購買活動의 决定은 女性으로부터 시작됩니다. 國內唯一의 女性 週刊誌인 주간女性은 흑자재정을 願하시는 廣告主 여러분의 廣告下命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주간女性
(416) 533-2361

이사 하셨읍니까?
●주소변경을 잊지 마십시오.
독자번호와 새주소를 곧 알려주세요.
한국일보 독자부
☎533-2361

海記飯店
HOI KEE REST
●CLAM ●SNAIL
●LOBSTER ●CRAB
한국인의 입맛에 꼭 맞는 진미 중국요리
가게가 끝나신후 꼭 들려 주세요
새벽6시까지 영업합니다
영업일: 월요일~일요일
영업시간: 오전11시반~새벽6시까지
133 DUNDAS ST. W
TEL. 977-3441
海 記 飯 店

태권도 跆拳道
SON MYUNG SOO TAEKWON-DO
ONTARIO OPEN TAE KWON-DO! TOURNAMENT
때: 1981년9월26일
장소: UNIVERSITY OF TORONTO (Sports Gymnasium) 55 Harbord St. Toronto
PRESENTED BY SON BROS TAL KWON-DO CENTRE
DYNAMIC DEMONSTRATION
(2190D BLOOR ST. W. TOR.)
☎763-1155-6

공 고
금번 세종한글학교는 오는 9월12일부터 새학기를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뉴스래터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상기 학교에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579-9899
576-7021(김 덕 수)
세 종 한 글 학 교
교장 김덕수

아직도 작년값으로 팝니다
밍크 털오바를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털 오바◆
새 진열장을 갖추고 고객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털코트, 자켓, 모자, 스톨, 털목도리등
BIG SAVINGS NOW!
•영업시간
MON. TUES. WED. SAT. 9:30-6:00
THURS. FRI. 9:30-9:00
•신품: $99이상 •중고품: $10이상
202 SPADINA AVE.
MRS. PARK
☎: 363-6077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FULL TIME가게헬퍼구함
남자분에 한함
☎ 762-1572 769-9854

DRESS MAKER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368 2819 미스타 원

도나스 샵에서 FULL TIME 헬퍼구함
밤11시~아침7시
☎ : 782-7409(오전중)

주말에 맥스밀크에서 일하실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KINGSTON & MIDLAND
☎ 266 3644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 구함.
오후3시~밤 11시까지 (주6일) ☎ : 921-0624.

급 구
● 스토어 매니저 구함, 약간의 보증금 요함.
● 풀타임 캐쉬어, 풀타임 헬퍼 구함
☎ 742 0800, 241 4755 미스타 차

야채가게에서 파타임으로 일하실 분 구함
자세한 것은 전화문의 바람
☎ 964 3354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WEST근처
☎ : 767-0762 미스타 김

주방헬퍼2명, 웨이트레스 1명 구함
☎ : 536-0290
한 국 관

미싱자수 기술자 구함 :
자격2년이상
☎ : 690-3434 미스타 유 (오후6시~9시)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 구함.
오후3시~밤 11시까지 (주6일) ☎ : 921-0624.

베이비 시터 구함 :
입주차 우대함
☎763-7450 미세스. 김

주말스토아 헬퍼구함
ALBION RD.
☎ : 745-6330

사무실 청소할 분 : 부부로서 경험있고 영어회화
가능한분, 파타임
☎ : 298-3383 마이크

"급 구"
① 윤전기및 인쇄용카메라 기술자
② 윤전기및 인쇄카메라 기술 배우실분
③ 경리사원
(영어·타자 가능자)
☎ : 533-2361. MRS. LEE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500달러
고등학교앞에 있음
☎ 533 0334

매매 : ● 도나스 캐비넷 셋트
●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아스킹 $165.000
☎ : 535 2804 미세스 김

매 매
FRUIT & FLOWER가게 : 3개월전 OPEN
전부 새장비, 주매상 4000 4500 권리금 3만달러
917 KINGSTON RD.
☎ 691-6768

①버라이어티·스토아(주매상 $5.500)
②버라이어티·스토아(주매상 $3.500)
③버라이어티·스토아(주매상 $4.000)
황 순 일 ☎ : 481-3443, 745-5485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위치좋은 코너 그로서리 가게 매매
주매상 : $3000~$3500(특히 야채 적합함)
3888 BLOOR RT. W..

버라이어티 스토아매매 : 주매상 5200+로타리오
수입으로 렌트 충당함 호조건으로 양도코자 함
주소 : 3240 EGLINTON E.

가정형편상 가게를 급히 팝니다.
주매상 : $3천2백(좋은 Offer중)
☎ : 781-7305

DOWNTOWN MALL안에 있는 성업중인
FAST FOOD STORE임
주6일 영업, 주매상 $2000, 아스킹 $33000
☎ : 536-0463

한방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 9시~9시(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다이나)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781 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촌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꽃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미 용

팁스 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헬렌 미용실 미세스·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 판 부 :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
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 일반상점실내장식,
건축설계 상담및 시공
인 쇄 부 :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 637A BLOOR ST. W. TOR.(은하보석상 옆)
공 장 : 287 Horner Ave. Etobicoke.
전 화 : 535-0647, 465-1722 대표 : 송 관 헌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상하수도 수리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DALMER'S시설판매수리
에어콘·전기·개스·워킹쿨러, 후리저
☎ : (B) 746-3840, (R) 493-9945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기 타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탁

번역 CHARLES YU(유좌석) 통역은
10 SUNRISE AVE. UNIT203 TOR. 월요일만
통역 M4A 2R1 ☎ : 759-9505(5시이후) 합니다.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온가족이 꼭 필요로하는 교과서
WORLD BOOK…월부가능
문의처 : 533-2364(day) 242-5774 김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주간女性

블론디 딘·영 作

"오늘 특별메뉴는 피자 오믈렛이요"
"뭐가 따라 나오지요?"
"당신이 골라 잡으시구려"
"중탄산 소다아니면 마그네시아중에서 말이요"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현명한 광고의 선택은 현명한 투자방법입니다.

BRITANNICA

BRITANICA 3
대형백과사전(전30권)
GREAT BOOKS
세계문학전집(전54권)
400달러 할인

● 특히 학자, 학생, 사업가, 부모들을 위해
30만종 이상의 각 방면에 관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함.

오후5시 이후 신 용 목 배

● 교인, 학교 각 단체회원에게 특별할인
● 타 백과사전 소지자께 특별할인
● 소년용, 아동용 백과사전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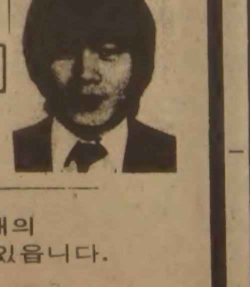
문의처 : 536-9082(B), 245-7522(R)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각종부동산의
매매및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 COMMERCIAL AND INDUSTRIAL PLAZA BUILDING
● APARTMENT BUILDING
● HOTEL AND MOTEL
● NEW STORE LEASE

오랜 경험과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로 수익성 높은
투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 시 성
(B)497-0600
(R)298-8558
D.E. McALLISTER
250 Consumers Road

* 생명교육보험
* RRSP
(세금공제 은퇴저축)
* 은퇴연금
* 사업보험
* 화재, 자동차보험

김 홍 량
(B) 482-0166
(R) 624-2103

IMPERIAL LIFE
covers you for life

The Korea Times Toronto

週刊한국

The Korea Times of Toront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Friday & Saturday issues are printed together.

Subscription Fee
$90/year. $8/month
구독료(선금)연$90. 월$8
영구구독료 $500.00
ISSN 0319 2962
2nd class mail No. 5248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416) 533-2361~4

(일간) No. 612 1981년9월7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September 7, 1981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今週의 人物

北部 세무서 姜貞根씨 피살사건 해결한

宋憲二 鄭洛鎔 文泰鳳 羅采錫

4명의 刑事 한국의 스타스키와 허치

남방셔츠의 윗단추 세개를 풀어젖히고 푹푹 찌는 더위를 식히며 宋憲二경사는 선풍기 앞에서 鄭洛鎔경장과 文泰鳳·羅采錫형사와함께 군만두로 간식을 들고있었다. 『어디가서 한30분만 머리부터 찬물 좀 뒤집어 쓸데없어?』 『가시죠. 냉탕전문집이 한군데 있읍니다. 수돗물이 아니라 지하수를 끌어올려 목욕물을 쓰는 목욕탕이에요. 뼛속까지 시원해질겁니다.』 냉탕에 들어갈땐 머리부터 먼저 처박아야 제맛이라며 앞장서서 안내하는 羅형사를 따라 일행 4명이 형사계 문을 막 나설때였다. 『이봐 5반장! 서울대학병원으로 피서 좀 갔다오지 그래. 우선 날 따라서 과장님 방까지 가자구!』 뚱뚱한 吉秉國형사계장의 걸음걸이가 긴박한 상황임을 알려왔다. 7월30일 폭염이 내습한 날의 저녁7시께 東大門경찰서 형사계5반의 4명은 이 시각부터 만14일간을 냉탕은 뒤로 미뤄야 했다. 북부세무서 姜貞根씨 피살사건의 범인들을 쫓아 폭염의 14일간을 뛴 이들은, 이 사건해결이전에도 올해들어서만도 칼과 유리병으로 대항하는 소매치기단「재수파」, 車치기 강도단「귀공자파」, 「번개파」, 절도단「귀빈파」등등 장안의 유명 惡黨들을 솜씨게 잡아들인 진짜「스타스키와 허치」들이다.

◇부챗살 수사

宋憲二반장이 吉秉國형사계장을 따라 함께 브리사웨곤을 타고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은 7월30일하오 7시를 좀 지나서였다.

땀에 전 수첩을 꺼내「북부세무서 1과 주사」「상해부위—명치와 아랫배」「발생시간—30일18시50분」「발생장소 孝悌洞20의1 북부세무서앞 10여m」등등 가능한한의 기초자료를 적었다. 의사 2명이 칼을 맞은 姜씨를 응급치료하는사이 宋반장은 鄭洛鎔경사와 文泰鳳·羅采錫형사등과 함께 북부세무서앞 사건현장으로 차를 달려 목격자 찾기에 나섰다.

『현직세무서원이 세무서앞에서 당해? 그것도 여름 저녁이라 해가 한낮같고 행인이 있는 길이고…단순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이번이 복잡하겠구나 싶어「부챗살을 생각하라」는 계장님 말씀을 되새겨보았읍니다.』

부챗살이란, 여러개의 갈래를 가졌지만 그 한줄 한줄이 손잡이 한곳으로 모여져 하나가 된다는 수사방법.

姜씨 사건의 모든 가능성을 부챗살처럼 펼쳐 본 宋반장은 東大門경찰서에서만 16년째 근무중이고 형사계 경력이 9년, 다른 3명도 東大門경찰서에서만 10년이상 강력범을 다뤄온「東大門通」들이다.

『姜씨의 담당구역 대상업체들을 대충 4백여점포로 압축할수 있었어요.』 시장 골목 골목의 낯익은 상인들을 머리속에 떠 올려보면서 宋반장등 4명은 사건현장을 10여차례 왕복하며 탐문, 검토, 분석하는한편 일반범법자의 우발적 범행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치밀한 수사를 펴나갔다.

『姜씨 피살 전날엔, 사건발생장소 인근이 議政府행 합승 택시등이 모이고 불량배가 서식하는 곳이라서 담뱃불을 빌려달라며 14㎝길이의 칼을 들고 위협하는 사건도 있었고 해서 범행의 모든 가능성을 분석해 보았읍니다.』

세무에 얽힌 원한 관계와 그외의 범법자의 범행가능성을 7대3의 비중으로 나눠「부챗살수사」는 삼복더위속에 강행돼 나갔다.

◇2백20명을 집중수사

姜씨의 시체가 해부된 결과 명치부근의 칼맞은 자리는 腹腔에 미달됐고 하복부를 칼 맞은 자리는 깊이가 12·5㎝나 돼 간을 스치고 위를 관통한 다음 척추를 건드린 치명상이었음이 드러났다.

『전문적 칼잡이의 소행임을 믿게 됐어요.』

형사계 55명 전원이「미제사건없는 동대문경찰서」의 명예를 걸고 이 떠들썩한 姜씨피살사건에 총력전을 폈다.

사건의 관련가능성을 놓고 수사대상에 올려놨던 사람은 자그마치 2백20여명이었다. 그중 80%가량은 일일이 만나보고 사건당일의 행적을 조사해야 했다. 그러나 이들을 일일이 찾아내는 일부터가 무더위탓으로 쉽지 않았다.

『우리가 찾는 사람을 만나려고 관계자를 찾아가 묻노라면 꼬치꼬치 캐묻게 마련인데 처음 얼마간은 대답해주다가 나중엔 짜증을 내며 일어서 나가니, 어거지로 붙잡고 놓어질수도 없고 애먹었어요.』

이 수사과정에서는 30여명을 즉심에, 7명을 칼 소지자로 입건 또는 구속하는 소득외에는 치정관계나 재산관계, 부인의 스캔들같은 관계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姜씨의 업무와 관련된 세무누락분 추징관계의 인물 13명과 체납처분자 3명등 도합 16명의「원한관계의 얼굴」을 걸러낼 수 있었다. 이어 2명으로 압축됐으나 이 2명중 1명은 아들이 의사고 다른 아들은 대학교수여서 의심할 여지가 없게됐다.

◇東大門경찰서 관내에선「강력未濟사건은 없다」는 신화를 낳고있는 형사계5반의「스타스키와 허치들」—왼쪽부터 宋憲二경사·鄭洛鎔경장·文泰鳳·羅采錫형사.

최종의 인물—그가 바로 광장시장 예지상가 A동 동우직물 주인 金光源(35)으로 이번 사건에서 칼잡이 해결사 주에게 살인을 청부시켰던 주범이었다.

이제 金光源을 덮치는 것은 시간문제 뿐이었다. 이보다 앞서 文泰鳳, 羅采錫형사는 세무서원 姜貞根씨가 청계천4가 일식집 日蜂앞에서 지난 7월9일 심하게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과 남자4명, 여자1명등 5명의 목격자 진술에 나타난 범인들의 인상착의가 이번 사건의 범인과 동일인임을 알고 시장 일대의 칼잡이들을 찾아나섰다.

『을지로2가 진양부동산의 李岩이가 칼잡이 깡패 3명을 고용하고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읍니다. 애들은 하야트호텔나이트클럽 주도권을 놓고 80년정초에 칼싸움을 하다 구속된후 금년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칼잡이죠.』

당시「OB파」와「성내파」의 주도권싸움은 全州의 칼잡이 李욋榮(26)을 끌어들였었고 裡里에서 金明煥(23)·崔春燮(31)이 올라와 합세했던 사건인데, 이들이 부동산회사간판을 단 李岩의 밑에서 활동중인 사실을 알아냈다.

『「이사람들아! 그러는게 아니야. 응, 내 애길 잘 들어야지. 흥분부터. 하지 말라구」하고 진정시켰어요. 당장 덮쳐버리자고 덤비는 형사들을 말리고 작전을 다시 점검했읍니다. 밑에서부터 치느냐, 아니면 위에서부터 치느냐가 작전의 골자였읍니다. 섣불리 잡으려들다간 한두놈쯤 놓칠 염려가 없지 않았거든요.』

金光源부터 검거해놓고 하수인은 그다음에 덮칠것이냐, 아니면 하수인인 칼잡이부터 잡을것이냐하는 문제를 놓고 7일동안이나 고생하며 관련용의자 전원의 행적을 찾아나섰다.

피해자屍體보고 犯人을 전문칼잡이로 단정

"主犯부터 잡느냐·下手人이냐"놓고 苦心도

李욋榮의 애인「주은희」라는 여자를 찾아내려고 20~30세사이의 同名人 카드 4백여장을 고른다음 주소가「경운동1의8」인것을알아냈다. 「은희」의 집앞 잠복 3일만에「은희」가 어디선가 외박을하고 아침 10시에 귀가한 다음 남자의 남방셔츠를 들고 집을 나서는것을 미행했다. 세탁소에 들러 남자의 바지를 찾아든「은희」는 원서동의 비원장여관 101호실로 들어갔다. 태권도 4단의 羅형사와 유도4단의 宋반장의 번개같은 일격과 목죄기에 걸려들어 반항할 겨를도 없었던 李는 방바닥에 엎어진채 팔을 뒤로 젖혀 수갑을 받으며 헐떡거렸다.

『한생애 럭비운동 좀 했어요. 무술도 계속하고 있고요. 전북 익산군 용남저수지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게 칼잡이 두놈(金明煥·崔春燮)을 잡으려갈땐 전자봉에 카르빈·권총같은 것으로 중무장을 하고 우리팀 4명과 다른팀4명등 8명이 내려갔죠. 이놈들이 저수지 물속으로 뛰어들어갈까봐 치밀한 작전을 짰읍니다.』

4명이 중앙을 돌파하고 다른 4명은 흩어져 텐트를 향해 좁혀들어가 도주로를 차단했다. 金이 극약을 자기 입에 털어 넣겠다며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지만 崔가『야, 그래도 죽는것보다는 큰집 가는게 나을거야』라며 설득하더라는것.

◇강도·도둑전문

姜씨 피살사건으로 초반전을 긴박하게 뛰고있을때인 4일 저녁엔 원효로에서 尹景花노파 피살사건이 터져 경찰은 무더위속에서도 오싹하는 직장으로 입맛을 잃을정도였고, 姜씨 피살사건의 범인들을 일망타진한 13일밤엔 화장품가게 주인 李清子여인(39)이 피살돼 경찰서마다 홍역을 치러야했다.

잇따른 강력사건이 東大門경찰서를 선두로 착착 해결되자 경찰전체의 사기회복은 물론, 宋경사를 비롯한 5반의 형사4명에겐 동대문시장 상인들과 무명의 시민들로부터『큰일 했다』며 많은 격려전화가 걸려오는등 기분 괜찮은 분위기.

『형사계 전원이 하나가 되어 손잡고 일한 덕분입니다. 수사엔 운이 따라야 한다는 말들도 하지만 한명의 범인을 잡아내는데도 온 정성을 다 쏟은 결과라고 봅니다. 과학적 두뇌와 집념이 없으면 운도 따르지 않는다는게 우리들의 수사신조죠.』

宋반장은 경사로 그간 5반장직무대행을 맡아왔는데 4명 모두가 일계급특진상신이 돼 곧 宋반장은 경위로, 鄭경장은 경사로, 文·羅형사는 경장으로 승진될것이 확실한 것같다.

『물론 승진은 고무적이고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吉秉國)말씀은「계급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고 하시거든요. 그분은 30년이상 경찰에 몸담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신단 말이예요. 계급이 높아져서 이름없이 사라지는것보다는 1등가는 순경이 되라는거예요. 사실 일선에서 정신없이 뛰는 버릇이 생긴후로는 우리4명은 강도·도둑잡는것 외에는 다른 마음이 없는사람들이 돼버렸어요.』

5반의 宋반장팀 4명의「스타스키와 허치들」은 吉계장 취임 2년사이에「東大門경찰서에는 강력사건의 未濟가 없다」는 신화를 낳았다.

한편 吉계장의 말을 빌면, 어떤 종류의 강력사건이 터졌다 해도 이들 4명에게만 맡기면 마음이 푹 놓인다는 것이다.

명석한 두뇌와 책임감, 집념과 경험에서 뛰어날뿐아니라 이들의 태권도, 유도등 무술을 합치면 18단이나 돼 웬크라도 맨손으로 부숴버릴만한 솜씨라는것.

항상 파도를 몸에 품고 다니며 전후1백45회의 소매치기로 1억원상당을 털어온「재수파」의 金在洙(전과9범), 姜建國, 吳雄根, 金永洙등을 검거하던 지난2월24일엔 동대문구전농2동 프랑스제과점과 청아다방앞에서 시퍼런칼과 유리병을 마구 휘두르는 일당을 羅·文 두형사는 맨주먹으로 10여분간 격투끝에 붙잡았다.

지난 3월28일 용산구이태원동 귀빈해장국집에서 검거한「귀공자파」車치기단 4명은 포니승용차 37대를 훔쳐 89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르며 9천여만원을 강탈해온 악당들—. 검거당시 일당은 식칼과 쇠파이프를 들고 대항하는것을 난타전끝에 3명을 잡았고 宋경사는 이웃 지붕을 타고 고양이처럼 날쌔게 달아나는 범인을 역시 지붕을 타고 심야의 추적을 감행, 지붕위에서 함께 뒹굴며 낚아채 땅바닥으로 안고 떨어진 똑탄같은 사나이다.

해방후 절도기록을 올린 成潤文, 南朱元, 金克근등 일당 16명의 상습특수절도단이 宋반장등 4명의 형사에게 걸려든 것은 작년 연말께. 이들의 절도액수는 77년2월부터 1백87회에 걸쳐 2억2천만원에 달했다.

이밖에도 수표를 소매치기한후 피해자의 신고를 앞질러 승용차로 먼저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해가는「번개파」소매치기단 소탕, 빈 점포의 셔터를 뚫고 침입하는「귀빈파」절도단 일망타진등도 모두 올들어 5반 4명의 종횡무진한 활약으로 이뤄졌다. <張榮濂기자>

祝福의 아침

王秀英

머리를 비우고 몸을 비우고
내 마음 다 비우리라
텅 빈 내 속에
두려움으로 설레임으로
主님 돕시어 비로소
이 세상 처음 내쉬는
숨결
새로운 혈관에 시원한
바람이 편한 잠을 키우는
말씀
다정하여라 오래 못본
친구함께 미소하는
아침
이제 가득차리라
내 머리 내 몸
내 마음에

감사말씀

이번 저희 아버님(김대련<베드로>) 장례에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감사드림이 도리오나 우선 지면을 통하여 인사 드립니다.

귀가정에 하느님의 풍부하신 은총이 있으시기 축원합니다

1981년 9월 일

유 족 : 미망인 조 정 례
장 남 김 영 기·김 자(자부)
차 남 영 상·순 예(자부)
삼 남 영 옥·금 남(자부)
사 남 영 규
장 녀 영 숙·김태식(사위)
차 녀 영 선·원종철(사위)
삼 녀 영 자·김길수(사위)

주식회사 황용현 부동산
(TOM HWANG REAL ESTATE LTD)
101 DUNCAN MILL RD.,SUITE 404
DON MILLS, M3B 1Z3
전화 : (B)449-8644, 8645(H)286-1548

부동산 BROKER
모게지 BROKER

금주의 새 리스팅

드라이크리닝사업
주매상 $3000 맥도날드 햄버거 옆,
$100,000다운, 가격 $150,000

건물달린가게
1 주매상 $6,500 3베드룸, 코너, 외국인 경영 50,000만 다운, 잔액 모게지 잡아줌. 가격 $220,000
2 주매상 $4,000 3베드룸 코너 가격 $129,000

바라어티
1 몬트리얼에 있는 수매상 $13,000 시간짧고 이윤좋은가게. $100,000다운 가격 $155,000
2 주매상 $3,700 일요일 닫고 주중 시간도 짧음. 그로서리 없으며 NET월수입 $3,000 가격 $35,000
3 바라어티와 픽업 드라이크리닝겸한 가게 월 순수익 $4,000 리스 월 $400 4년 5년 5년옵션.

꽃 과일가게
1 주매상 $3,500~$4,000 월 $550 담배와 티켓 포함되지 않음. 일요일 닫고, 주중시간 짧음. 현 외국인 경영 가격 $22,000

샵핑몰안에 있는 기프트 가게
년매상 약 170,000 가격 $80,000

이외 투자용 건물, 프라자및 GAS STATION 자리도 있읍니다.

초대합니다

—고종옥수상집 출판기념회—

「사제작가 고종옥(마태오)님의 수상집 <고향에 못갈지라도>의 출판기념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하오니 교민 여러분부터 자리를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때 : 1981년9월18일(금) 하오7시
곳 : 프린스호텔(프린스·볼룸센터)
(900 York Mill Rd. Don Mills
☎ : 444-2511
회비 : $15(부부) $10(개인)

※칵테일 피티·저서 드림. 고신부의 장편소설<사랑의 지도>·<예수 없는 십자가>·<이세상의 이방인>도 과거 못받으신 분에게는 이날 드립니다.

발기인 :
김공선 구상회 김명규 김문고
김종옥 김지일 김창열 남상헌
박영철 박충도 박희민 유재신
윤여화 윤호영 이상철 이석현
이축기 이형인 전충림 전태균
정철기 조성준 조성호 조창환
함병섭 허영식 홍순귀 …가나다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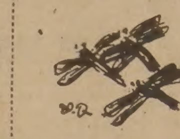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 (416) 533-2361

夫婦 아베크 칼럼

今週의 主題

대화

金良灝씨 · 趙東春씨



흔히 이런 말을 한다. 사람은 얼굴을 뜯어 먹고 사나고…。그러나 이런 생각은 결혼전의 생각이다. 결혼한 다음에는 아내가 미스·코리아에 버금가는 미인이거나 아니면 조물주의 상대적(?)이거나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것이 남자들이다.

그런데도 여자들이란 그런것이 아닌것 같다. 결혼한 다음에도 계속 포장용사를 하는것을 보아도 얼굴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가를 알 수 있다. 여기서 신경을 쓰는것은 자기 자신이지 결코 남이 아니라는것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은 얼굴보다 마음씨에 신경을 쓰는것을 알아야 한다. 생각은 얼굴보다 마음씨에 신경을 쓰는것을 알아야한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며, 습관은 운명을 만든다고 MRA창시자 프랭크·벅박사는 말하지 않았는가.

대개의 아내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것을 본다. 결혼전에 잘 통했던 그 대화의 장본인은 어디로 갔는가. 사람은 옛사람이로되 생각은 옛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는것이 아니라 퇴화해 가는 것이다.

유리창도 닦지않으면 먼지가 뿌옇게 되듯, 사람도 계속 개발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지를 못하게 되는것이다.

남자들은 밖에서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한다. 독서와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아내들의 경우 유일한 교육매체는 바보상자인 텔리비전이요, 인간관계란 몇몇 동창들의 모임. 그것도 기껏해야 한달에 한번 정도이니 여기서 무엇을 듣고 말하고 생각하겠는가?

시집살이 얘기, 남편험담, 아이들 때문에 속썩는다는 애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속극, 화장품 얘기로 종결짓는 이 대화에서 자기개발에 무엇이 도움이 되겠는가?

적어도 신문과 잡지, 그리고 교양이 될 도서를 읽지 않고 대화를 할 생각을 말라.

아내들이여! 그 예쁜 입에서 제발 예쁜 얘기가 나와 주기 바란다.

(언어문화원장)

당신은 여성들이 얼마나 자신의 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요즘 각 학교의 어머니교실은 있어도 아버지교실은 없읍니다.

내가 <사랑받는 아내교실>을 운영하면서 <사랑받는 남편교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무리 눈씻고 찾아보아야 내 눈이 나빠서 그런지 통 보이지 않습니다.

또 여성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데 서점에서 책을 사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의가 다 여잡니다.

여성지들은 매달 대여섯군데에서 경쟁을 하듯이 쏟아져 나오지만 남성들의 잡지는 만들어 보았자 적자랍니다.

이게 모두 남자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신문을 제대로 읽지 않는 많은 아내들은 안 읽는것이 아니라 못읽는다는 것을 남편들은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상을 차려 남편과 자식들을 내어 보내고 이때부터 청소하랴, 설겆이 하랴, 빨래다, 시장보기다 하는 사이에 어느 새 저녁이 되고 저녁일을 끝내고 나면 녹초가 되는게 아내들이요, 유일한 오락인 텔리비전을 보는것까지 타박한다면 아내들은 무슨 재미로 살겠읍니까?

장바구니 들고 춤추러가는 아낙네들도 있다지만 우리는 소수를 가지고 전부를 착각해서는 안될겁니다.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를 깎아가면서 노력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도 툭하면 말이 안통한다고 면박을 주니 그게 어디 남편들이 할 말인가요?

쥐꼬리만한 월급봉투를 가져다 던져주고 혼자서 생색을 내는데 우리 한번 역할을 바꿔봅시다요.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해 월급을 타올테니 청소, 빨래, 시장보기, 상차리기, 애보기, 어디 한번 해 보시지요. 우리 여자처럼 중노동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매일 한다는 얘기가 『오늘은 집우고 어디 갔어요?』『왜 그렇게 낭비가 심해!』

쓰다듬고 엎어주지는 못할망정 이런 몰인정한 말이 어디 있읍니까?

남편님들! 무식하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책을 사다주고 아내편에서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말이 안통한다는 얘기가 나올리 없을것이 아닙니까?

(아내교실 실장)

<다음주 아침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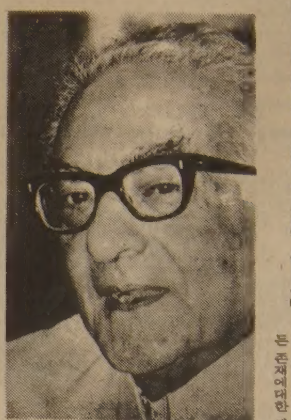
젊고 신비로운 印度精神의 [illegible]

來韓한 크리팔라니氏가 말하는 「타고르의 世界」

文學 화제

長詩「기탄잘리」는 인류의 등불

작품마다 순진하고 소박한 감수성 가득



◇타고르의 傳記作家인 크리쉬나·크리팔라니씨。그는 『타고르의 精神은 인간이 가질수 있는 가장 순수한 原形』이라고 말한다。

詩人 라빈드라나트·타고르의 傳記 作家인 크리쉬나·크리팔라니씨(74)가 31일 한국을 찾아왔다. 크리쉬나·크리팔라니씨는 抗英운동으로 옥중에 갇혔던 타고르와 한감방에서 지내며 개인적 친분을 맺고 타고르의 문학에 깊이 빠져 타고르의 생애를 세계에 알리는 3권의 傳記를 써 냈다. 크리팔라니씨는 봄베이대학과 런던의 링컨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나 타고르를 만난 이후부터는 타고르 연구에 심취하고, 타고르의 유일한 血族인 나디타여사와 결혼해서 一家를 이루었다. 간디옹과 前수상 네루등과 친하게 지냈고, 現수상인 인디라·간디여사를 가르치기도 한 크리팔라니씨는 상원의원을 지낸 정치가의 경력도 가지고있다.

『세계문학사에 「라빈드라나트의 時代」가 기록된 만큼 타고르가 남긴 작품들은 장엄한 데가 있지요. 13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長詩 「기탄잘리」(獻詩)는 인류를 비치는 한 등불로서 비유되는 작품입니다. 이 詩를 佛譯했던 앙드레·지드는 이처럼 비한 데 없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詩를 프랑스에 가져오는 것은 큰 영광」이라고 말하고, 「이 詩는 갖가지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계를 따뜻하게 비쳐주는 빛」이라고 감동했었지요』

크리팔라니씨에 의하면, 옥스퍼드 세계 詩選集에서도 타고르의 詩를 가장 많이 수록하고 있다.

타고르의 詩를 英譯한 W·B·예이츠는 「지금까지 이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서정시는 읽어 본 일이 없다」고 말하고 「그의 詩는 경건하고, 소박하며, 또한 끝없이 아름다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정신적인 아름다움의 總體인 것 같다」고 평했다. 타고르의 文學은 印度의 오랜전통과 장엄한 고유문화에서 심오하고 신비적인 소재를 취한다. 인도인들은 타고르의 文學속에서 끊고 신비스러운 인도精神이 승화돼서 나타났다고 평가하며 그의 이름을 詩人의 자리에서 「聖人」의 자리로 올려놓고 숭앙한다.

그의 詩는 「기탄잘리」「열매모으기」 등과같이 神을 사모하는 경건한 作品, 「詩들」「꽃다발」 등과 같이 英國의 식민정치에 저항한것, 「초승달」 등과 같이 세속에 오염되지 않은 인간의 순수한 原形을 그린 서정시, 「庭園師」「애인의 贈物」 등처럼 인도 고유의 鄕土美를 그린 작품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대개의 작품들을 흐르는 主題는 생명자체와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한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요약된다.

『타고르가 사모한神은 세상과 自我를 一體로 본 힌두이즘의 神입니다. 그의 모든 작품에는 순진하고 소박한 감수성이 가득 풍겨있고, 이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한 순수한 사랑의 기대와 행복감이 감미로움만큼 정감있게 묘사돼 있지요. 타고르가 가졌던 지배적인 사상은 「이 세계를 사랑하는것이 神을 만나는것」 이지요. 예이츠가 표현한대로 타고르는 「영혼을 발견하고, 그의人生과 文學을 그대로 영혼의 맑고 순진한 성질에 맡긴 사람입니다」

크리팔라니씨는 타고르의 詩가운데서 「기탄잘리」 이외 「초승달」「샤말리에서」 등을 絶品으로 꼽는다. 「초승달」은 우리나라 독자에게도 잘 알려져있는 詩로 「끝없이 펼쳐진 바닷가에 어린이들이 모입니다/어린이들은 헤엄칠줄을 모릅니다/그물을 던지는 법도 모릅니다…」로 펼쳐진다. 「샤말리에서」는 타고르의 최후작으로 역시 어린 소년들의 순진하고 깨끗한 세계를 그린 작품이다.

타고르의 詩에는 소년 소녀가 자주나타나며 소년 소녀의 純情的인 세계를 소로해서 세상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을 밝혀내는 작품이 많다. 그의 詩에서는 어른이 주인공이되는 경우가 많지않아 마치 깨끗하고 따뜻한 童話를 읽는것처럼 맑고 순한 기분을 갖게한다. 크리팔라니씨에의하면 타고르의 가문은 代代로 철학자등 많은 천재를 키워냈다. 타고르도 어려서부터 요람속에서 음악과 인도神話속에 싸여 지내왔으며 19세때 이미 소설을 써서 文名을 얻었다. 타고르는 抗英지도자 이기도했으나 명상가에 더욱 가까운 기질을 지녀, 매일 새벽3시부터 두어시간씩 명상하곤 했다. 타고르의 賢人的인 명상생활은 유명한 것으로, 어느저녁 江가에서 풍경에취해 명상에빠져 뱃사공이 강가에 배를 댄채 몇시간이나 기다렸던 일이 있었다.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쉬카타에 조그만 집을 마련해서 어린이들을 가르쳤고 후에는 비슈바바라티대학을 설립했다. 또한 노벨문학상의 상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학교에 투입할 만큼 개인 소유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크리팔라니씨는 「타고르의 정신은 시대와 장소를 통틀어 깊이 간직되는 인간의 가장 순수한 原形」이라고 말하고, 「그의 모든 作品에는 인류를 위로해 주는 아름다운 음악과 詩가 흘러넘쳐있어 언제나 어디서나 세계 독자로 부터 사랑 받을수 있다」고 평한다. 크리팔라니씨는 체한기간동안 「타고르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강연을 가지고, 「간디와 타고르의 사상에 관한 비교연구」를 주제로 국내人士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현재 네루前수상이 세운 인도도서출판기구인 「국·트러스트」 회장으로 재직하고있다. 이번 서울 방문은 국제문화협회와 한국타고르문화회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黃性淑기자】

演芸

영화「避幕」첫 本選 진출

베니스 映畵祭서…20년만의 첫 榮光

한국일보社 주최 81년 연극·영화제 대상을 받은 李斗鏞감독의 「避幕」(世經興業제작)이 제43회 베니스영화제에서 예선에 통과됐다.

지난 7월25일부터 8월10일까지 17일간 계속된 이번 예심에는 각국에서 출품된 총 2백여편의 우수작품들이 열띤 경합을 벌였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避幕」을 비롯한 22편만이 선정된 것이다.

예선에 통과된 이들 작품들은 오는 9월2일~13일까지의 본선에서 최종 우수작품 심판대에 오른다.

베니스 영화제는 1931년 제1회 세계 3대영화제의 하나로서 경쟁영화제로는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 권위를 지켜오고 있는 영화상이다. 세계영화의 경영장으로 꼽히고 있다.

이 제전에 우리나라는 1961년 (22회) 成春香을 시작으로 지난69년까지 총15편의 극영화를 출품했으나 한 편도 수상이나 예선에 통과된 작품이 없었다.

다만 1961년 베를린영화제에서 「馬夫」가 특별 은곰상을 수상한것이 유수의 국제영화제에서 우리나라작품이 받은 수상의 전부였다. 따라서 이번 避幕의 예선통과는 그로부터 꼭20여년만의 일로 한국영화의 세계진출이라는 측면에서도 밝은 전망을 안겨주는 낭보가 아닐수 없다.

영화 「避幕」은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속에 뿌리박혀있는 정서적인 소재를 극화한 오리지널 작품으로, 우리에겐 이미 예날에 잊혀진 수천년 민속의 샤머니즘 解冤思想을 그리고 있다.

요컨대 한 핏줄의 집념이 그녀의 싸늘한 정념에 의해 원수를 욕수해 나간다는 극적 줄거리. 그러나 이고전을 미스터리와 서스펜스라는 초현대감각으로 채색함으로써 연출기법이 이번 예선통과에서 영향을 받은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避幕에는 兪知仁、南宮遠등이 나와 열연했다.

◇젊은 무당 목화로 나오는 兪知仁이 범을 잡아 밖으로 내보내는 대담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도할말있다" 전해와

滞美중인 裵三龍

◇裵三龍

在美동포위문공연차 미국에 갔던 裵三龍이 「9월쯤 귀국하겠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나도 할말있다」는 기사가 실린 … 1부를 연예협회로 보내왔다. … 「캐나다 공연때 북괴가 날조해서 선전한것」이라고 해명,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異色 사진 현상公募

인기歌手 安廷양

『첫사랑』의 히트가수 安廷(22)이 컬러TV(14인치) 1대와 카메라5대를 상품으로 내걸고 「하늘」을 주제로 한 사진을 공모하고 있다.

安廷양은 작년 봄「첫사랑」으로 가요계에 데뷔, 1년만에 각방송 티켓스트 프로의 1위를 차지한 정도로 급성장한 신인가수.

이토록 인기가도를 달리는 安廷이 이색적으로 사진공모를 하게된 이유는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면서 제2탄으로 발표한 신곡 「좋은 하늘 아래」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는것. 응모사진은 8×10 규격의 컬러사진에 한하며 9월12일까지 응모된 작품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당선작 1점과 가작 5점을 뽑아 시상할 예정. 응모주소는 강남구신사동 山51의1 한국음반사무실.

◇가수 安廷

주간女性 (416) 533-2861

健康진단

<口內炎> 궤양성…抗生劑 잘못써도 생겨

口內炎이란 입안에 생기는 일종의 궤양성 종기이다. 口內炎이 되면 무엇을 먹을때마다 자극을 받아 입안이 아프며, 심하면 음식을 먹지 않을때도 아픔은 입안에 남아서 기분이 몹시 우울하게 된다. 口內炎의 원인은 여러가지있으나 아직은 이렇다하게 확실히 규명되지 않고있는데, 입안에서 일어나는 세균감염 흑은 입속이 언제나 불결해서 거기서 세균감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또 의치를 해넣은 경우, 그 의치가 언제나 잇몸의 한곳에만 닿아 거기서 염증이 생긴다음 결국은 口內炎으로 진행되는경우도 많다. 또는 세균감염이라도 眞菌의 감염이 일어나서 그곳에 口內炎이 생기는수도 있다. 또 흔히 女性에선 일종의 알레르기 현상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흔히 女性의 월경의 전후, 또는 그기간중에 자주 발생한다. 아니라, 계절이 바뀔때 자주 口內炎이 나타나 계절과 인과관계가 있는 알레르기가 病因이 된다고도 보고있다. 특히 몸이 쇠약해 오래누워있다든가, 또 發熱이 심해서 입안에있는 세균이 맹위를 떨쳐 口內炎이 되기도 한다. 때로는 약을 잘못써서 생길때도 있다. 그런 예로는 抗生劑에 의한 피진은 입속粘膜에 궤양을 생기게하고 口內炎이 되는것이다.

口內炎이 됐을 때는 무엇보다 입안을 깨끗이 해야한다. 그것은 이를 매일 닦는다는것과는 의미가 좀 다르다. 즉 입속을 자주 양치질해서 깨끗하게 하라는것이다. 양치질은 붕산수라든가, 옥시돌의 희석액으로 자주 하는게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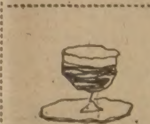
특히 비타민B군이나 비타민C를 충분히 취할필요가 있다. 비타민B군중에서도 B₃, B12를 중심으로 취하는것이 좋다고 한다.

또 口內炎의 일종으로 다性口內炎이라는 것이 있다. 口內炎은 口腔粘膜에 직경2～3㎝의 작은 궤양이 생기는 반병인데 특히 어른의 경우 자주 재발하고 이것은 다수 생기는 경우로 나타나면 이것을 再發性口內炎이라고 한다.

呂卿九 (醫博·東南醫院長)

成形상담

<눈등脂肪> 제거해도 흉터나 副作用 없어



問 37세의 가정주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특히 잠자기 직전에 물이나 음식을 먹고 잠자리에 들면 이튿날 눈등이 소복하게 부어 눈을 뜨기에도 불편합니다. 아기아빠가 몇번이가 성형외과에 가서 지방을 제거하라고 하였으나 막상 수술 받을 것을 생각하니 과연 지방을 빼도 되는 것인지, 망설여지는군요. 주위의 얘기가 하도 분분하여 여쭈어 봅니다. 혹시 수술한 자리에 흉터 같은 것은 없을는지요?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눈등이 아침나절만 부어있고 오후가 되면 눈을 뜨는데 지장이 없읍니다. 그렇다고 신체에 어떤 병이 있는것도 아닌것같습니다.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도동 김혜진)

答 정확한 것은 진찰을 해봐야 알겠으나 질문 내용대로라면 복잡한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내과적으로도 귀하가 건강을 자부하고 계시니까요. 이렇듯 내과적 질환이 없는 경우는 단순히 눈(눈등)의 지방만 제거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방제거술을 받으셔도 흉터나 부작용 같은 것은 남지 않습니다. 혹자는 지방을 빼면 칼을 대야 하는데 어떻게 칼자국이 안남을수 있는가 하고 의심을 많이 합니다만 칼을 대는 것은 사실이나 수술후 그 칼자국이 남의 눈에 띄게 남지는 않으니 흉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않으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외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없읍니다. 비교적 숙달된 의사라면 간단히 끝나는 수술이란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나친 걱정은 마시고 성형외과를 찾으십시오. 여기서 한가지 덧붙인다면 지방제거 수술을 받으셨다 해도 수술직후 눈등이 금방 빠지는것은 아닙니다. 수술후 약 10여일이 경과 되어야만 서서히 눈등이 빠아지니까요. 수술일자는 2～3일 정도면 가능할 것입니다.

李秉道(醫博·중도외원장)

移民과여행자를위한 생활英語

담당 민병철 【美·루먼大 영어연구원장】

DIRECTORY ASSISTANCE.

전화를 하면 알아 들을 수 없는 녹음이 흘러 나오는 수가 있다.

The number you have reached 275—7897 has been disconnected. (돌리신 275—7897 번호는 끊겼읍니다)였다.

대부분 이사를 가게되면 새로 옮기는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는데 411의 directory assistance(전화번호안내)에 다시 알아보면 안내양이 I'm sorry the number is non-published. It's not to be given out to anyone. (미안합니다만 그 번호는 발표되지 않는 번호입니다。누구에게라도 번호를 알려주지 않기로 되어 있읍니다)라고 거절한다。이와같이 unlisted number (번호부에 실려있지 않는 번호)로 해놓는 경우는 emergency(응급)가 아니고는 알수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번호를 옮기면서 새번호를 남겨놓도록 부탁하면 자동적으로 녹음이 들리게 되는데 내용은 The number you have reached 427… has been disconnected. Calls are being taken by 769…. Please make a note of it. 라고 하며 상기 내용을 반복한 다음 If you need assistance you may stay on the line and an operator will answer. (돌리신 427…번호는 끊겼고 대신 769…에서 전화를 받고있읍니다. 노트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끊지말고 기다리십시오。그러면 교환이 나올것 입니다。)이상과 같다.

A : Directory Assistance. May I help you?

B : Yes, I'd like the number for Robert C. Brown in Chicago. I don't have the exact address, but I think it's on Sheridan Road.

A : I have a Robert C. Brown on Sheridan Road, but the number is non-published. It's not to be given out to anyone.

B : Is there any way I can get the number?

A : No, I'm sorry, I can't help you.

B : I see. Thank you anyway, operator.

A : 전화 번호 안내입니다。도와드릴까요?

B : 네。시카고에 살고 있는 라벗씨 브라운의 전화번호를 알고 싶습니다。정확한 주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쉐리단 로우드로 생각됩니다。

A : 쉐리단 로우드에 살고 있는 라벗씨 부라운은 나와 있읍니다만 전화 번호가 난 퍼블 리쉬드로 되어 있군요。누구에게라도 번호를알려주지 않도록 되어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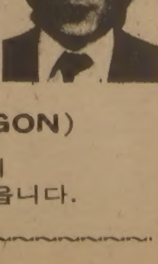
B : 그 번호를 알아 낼수 있는길이 없을까요?

A : 미안 합니다만 도와 드릴 수가 없군요。

B : 알겠읍니다。교환양 어쨌든 감사합니다。

※directory assistance : 전화번호 non-published : 발표되지 않은 operator : 발음이 「오퍼레이타」가 아니고 「아퍼레이러」

<한국일보시카고支社제공>


Grant Br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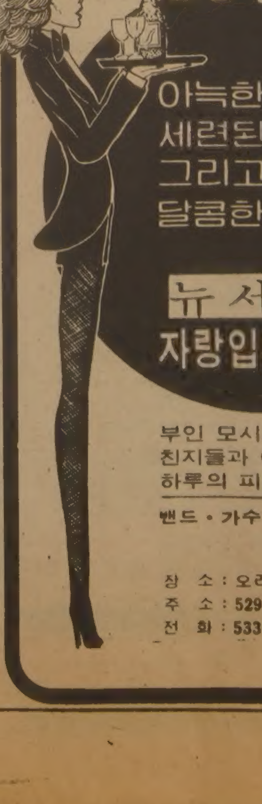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GM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각종 웨곤(WAGON)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뉴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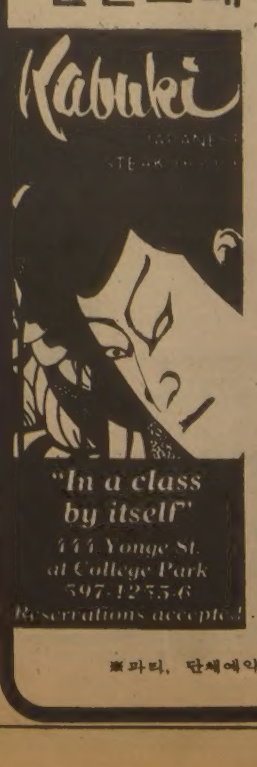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 · 가수 · 무용단 매일 공연함

장 소 : 오리엔탈 팰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일본스테이크 집
전형적인 일본식



STORE HOURS
평 일 :
스페샬점심시간
11 : 45AM～2 : 30PM
5 : 00PM～11 : 00PM
토요일 :
5 : 00PM～11 : 00PM
일요일은 문을 닫지만 예약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일을 합니다.

※파티, 단체예약등 환영함.

GREAT CHINA HERBS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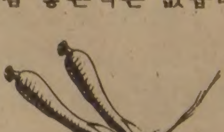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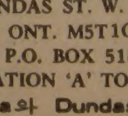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약은 없읍니다.

中国商業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 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大中華藥材行

482 DUNDAS ST. W. TORONTO, ONT. M5T1G9
P.O. BOX 5181
STATION 'A' TOR.,ONT.
(Spadina와 Dundas북동 코너)
OPEN : WEDNESDAY
CLOSE : TUESDAY
* 영업시간 : 9 : 00AM～9 : 00PM

977-8858～9

連載小說

스물두살의 자서전

金洪信 作
崔然石 畵
㊴

우리나라 최고의 도시라고 큰소리치는 서울의 다리에 구멍이 나고 아스팔트 갱바닥에 옛날 거지의 옷처럼 누더기가 되어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이 험난한 산악의 아스팔트를 보면 뭔가 잘못된 도시행정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았다. 현대의 거지는 그런 누더기를 입지 않는다. 그런데 도시행정만은 어째서 아직도 거렁뱅이의 누더기 꼴인지 모르겠다.

어떤 늙은이가 병사는 죽어서 말한다고 헛소리를 했었다. 병사는 살아서 말하는 것이지 죽어서 말하는 게 아니다.

한계령 산악길을 지친듯 기어오르, 는 버스의 차창에 매달려 우리는 모두 감탄만 하고 있었다.

금강산에 비기면 욕 먹는다는 설악의 정경 앞에 나는 갑자기 금강산 구경을 하고 싶었다. 아니 내 배짱대로라면 금강산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한 뒤에 백두산과 압록, 두만강에서도 텐트를 치고 싶다.

한계령 위에서 차가 멎었다. 대팔계란 위에 올라가 목청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메아리가 길게 여음을 물고 내려 꽂혔다.

지난줄거리

다혜와의 통화에서 총찬은 결별이라는 선언을 받고 울적한 심사를 가누지 못했다. 오누 누나의 권고로 설악산으로 떠나기로 하고 소아마비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명식이와 동행하기로 했다. 출발부터 차표를 두고 나오는 실수를 했고 명식이는 차가 못떠나게 버스앞에 눕는 독기를 보였다. 관광버스의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횡포를 겪으며 설악산으로 출발한다.

물 한 모금을 입에 물고 명식이와 나는 물싸움을 했다. 명식이는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잘도 좇아 다녔다.

『야, 사진 한방 찍자.』

명식이가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우리는 십수년 전에나 유행했을 그런 어색하고 경직된 자세로 한계령·정상에 서서 승객 가운데 젊은 사람한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다. 사진 찍어주던 승객도 우리의 촌스런 자세에 웃고 말았다.

『돈 왕창 벌어서 이놈의 설악산 사버리자.』

명식이는 이런 여행이 처음이라는 표시가 났지만 나는 그런 명식이의 말투가 좋았다.

『팔까?』

내가 익살스럽게 물었다.

『안팔면 접수해 버리는 거야.』

『거, 좋고좋고.』

『사실 난 이런 데가 첨이다. 이 더러운 놈의 다리 때문에 미치게 가보고 싶어도 참을 수밖에 없었지. 이제부터 한쪽 다리 마저 없어지더라도 돌아다닐 거다.』

명식이는 흥분해 있었다. 우리는 겨우 오늘 아침부터 말을 터놓는 사이였지만 마치 어릴 때부터 친했던 것처럼 부담없이 얘길 나눌 수 있었다. 우리는 그만큼 배가 맞았다.

『너 돈 충분해?』

명식이가 물었다.

『억수로 써도 돼. 누나한테 보내달라면 되니까.』

『그게 아니고 저놈의 옥수수 좀 먹어도 되느냐 말이다.』

김이 무럭무럭 피어 오르는 옥수수가 마당 한가운데 쌓여 있었다. 동네 아주머니인 듯 싶은 사람이 철퍼덕이 주저 앉아서 어린애 젖을 빨리고 있었다.

『통째 다 사도 돼.』

내가 기분 좋게 말했다. 명식이는 내게서 만원짜리 한장을 빼어가더니 옥수수 두개를 사들고 왔다.

『임마, 겨우 두개 사면서…』

『맛있는 건 조금, 모자란 듯 사는 걸 알아야지.』

옥수수 맛은 그 특유의 은근한 맛을 냈다. 출출할 시간이어서 그런지 맛이 좋았다.

『야, 법으로 옥수수를 이렇게 맛있게 할 수 없냐?』

명식이의 익살이었다. 법대생 다운 농담이었다.

『옥수수 맛 하나 어쩌지 못하는 놈의 법을 우린 지겹게 배우고 있으니 원.』

『누가 아니래. 인류 최초로 법만든 녀석이 누구더라? 그 녀석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죽어라하고 매일 볼기짝 맞고 있을거야.』

『맞아 죽어도 싸지.』

우리는 휴식시간이 끝나고 다시 차에 올라 탔다. 내버려 두면 아까 출발 때처럼 명식이가 또 차앞에 벌렁 누워버릴지 몰랐다. 태어나서 이런 여행을 처음 해보는 녀석이어서 몹시 흥분하고 있었다.

나는 실력이 없어서 고등고시를 치르지 않는 형편이고 명식이는 실력이 있으면서도 신체적 조건 때문에 포기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둘은 법조계에 대한 질투가 언제나 들끓고 있었다. 할말을 다 하라고 내버려 두면 불만할 것이다.

버스가 내리막 길을 달려 내려갔다. 맞은편 자리의 여학생인 듯 싶은 애들이 아까부터 봐왔지만 제 세상이 좋아 보였다.

난 아직 童貞에다 순진무구한青年 그자체란 말이에요
울긋불긋한 해수욕장 風景이 정겨웁게 가슴에 와닿고

나는 명식이의 동정을 이번 여행길에서 떼주고 싶었다.

『난 아직도 동정입니다. 나는 도덕 그 자체죠. 순진무구한 청년 그대로입니다.』

언젠가 술좌석에서 명식이는 혀꼬부라진 소리로 이런 고백을 했었다.

『총찬씨는 숫총각입니까?』

명식이가 취한 얼굴로 내게 물었다.

『아뇨.』

나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부럽습니다. 총찬씨는 숫총각 딱지를 어디서 뗀 거요?』

『어려서…그냥 그런 여자죠 머.』

나는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난 깨끗한 여자한테 떼줄거요. 귀찮고 번거로와서 빨리 이놈의 동정 누구에게가 주고 싶지만…창부나 깨끗한 처녀가 아니면 안 줄거요.』

명식이의 어투가 사뭇 도전적이고 나를 불결하게 취급하는 것같았다.

『이형은 여자가 없소?』

내가 이렇게 진정으로 물었다.

『나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난 계속 혼자이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은 쓸쓸해 보였다. 신체적 불구 때문에 그 흔한 애인이 없는것 같았다.

『재들 이쁘지?』

내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관심없어.』

차가운 목소리였다.

버스는 양양을 돌아 동해의 명승지 길을 타고 북상하기 시작했다.

오른쪽으로 바다를 낀 해변길이 길게 뻗어나갔다. 낙산해수욕장에서 승객 일부가 내리고 차는 다시 낙산사를 끼고 돌아 설악 해수욕장으로 들어갔다.

울긋불긋한 백사장 풍경이 정겹게 가슴에 와 닿았다.

『명식이 수영하러 왔다고 욕하지 않을까.』

『지랄하구 있다. 너 그 따위 소리 한번만 더 했다간 목을 비틀어 버릴거야.』

내가 화를 냈다.

『야냐, 괜히 그런 거야.』

명식이는 멋쩍게 웃었다.

『너 수영 잘한다고 했잖아.』

내가 물었다. 명식이는 시골에서 자랄때 수영만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했다고 했다. 다른 운동은 다른 애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지만 수영만은 물속에서 기량껏 겨룰수 있었다고 했다. 얼마나 열심히 수영을 배웠는지 몇번이나 강에서 빠져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도 했다.

그래서 결국 명식이는 동네의 수영선수가 되었었다. 그것이 내가 명식이를 가까이 하는 명식이의 장점인 것이었다.

『여기서 네 수영실력 한번 보여주자구. 구명요원들이 배타고 쫓아오도록 보여주란 말야.』

나는 명식이를 충동질했다. 녀석의 무지와 사람 앞에 자신있게 나서는 배짱을 가르쳐 주고 싶었다.

『바다는 첨인데.』

『강물보다 쉬워. 처음엔 나만 따라서 해. 강물에서 한시간 떠있을 수 있으면 여기선 두시간도 충분해. 물이 차니까 올리브유만 듬뿍 칠하고 들어가면 돼.』

『까짓거, 해보자.』

우리는 다시 여행사의 미니버스로 설악동으로 들어갔다. 처음부터 명식이와 둘이서 떠난 여행이었으면 해수욕장 근처의 여관을 잡았을텐데 다혜와 이 여름의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 설악동 쪽에 여관을 잡은 것이었다.

내 음모는 간단한 것이었다. 다혜를 훔치는 것이었다. 그래서 누나 말처럼 다혜를 우지끈 뚝딱 꺾어놓고 말 계획이었다.

여자는 꺾어놓지 않으면 항상 팔팔하게 살아서 다루기 어려운 것이었다. 한번 꺾인 나무는 꺾은 사람 맘대로이듯이 나는 다혜를 마음대로 다루고 싶었다.

욕망의 끝에는 내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책망할 일이 못되는 것이다. 여자를 해치우고 도망가는 사내가 아니니까 그 정도는 괜찮은 것이다. 요즘 누가 결혼할 때까지 귀찮게 그놈의 처녀, 총각 딱지를 끌어안고 사느냐 말이다.

『다혜하고 왔으면 근사할뻔 했잖아.』

명식이는 제법 내 기분을 이해하려고 들었다.

『현지조달도 있고 차관도 있는데 멀.』

『그러면 죄 받는다.』

『받을 때 받더라도.』

『너같은 비도덕군자와 나같은 도덕군자가 같이 있다는 게 슬픈 일이다.』

『어차피 인생은 그런 거 아니냐.』

『너같은 친구 때문에 더러운 놈의 법이 생긴 거 아니가.』

어린것들의 노는꼴은 차마 눈뜨고 볼수없는 것이었다
青春왕국을 범했으니 표본실 청개구리로 만들어 주지

『맞다 맞아.』

『설악동 여관단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옛날의 어지러운 정취만큼 정들어 보이지 않았다. 이런 번질거리는 외모만이 관광개발이라면 뭐하러 개발하는 건지 모를 일이었다.

외국의 산장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산장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개발인 것만 같았다.

외국의 흉내를 그렇게 내고 싶으면 설악산도 외국의 산처럼 깎고 다듬어서 새로 만들 일이지. 이름도 알프스라고 고치고 구경 오는 사람들도 정형수술이라도 해서 고쳐 놓을 일이지.

T산장에 짐을 풀었다. 주인 남자가 친절하게 짐을 받아주며 불편한게 있으면 언제나 말씀하라고 일러주었다. 인상이나 태도가 장사꾼같지 않았다. 태도나 말씨도 관광지의 장사꾼이 아니라 집안에 온 손님 대하듯 해서 기분이 좋았다.

온통 외국 흉내만 낸 설악산에서 내가 유일하게 맛보는 우리나라의 정취가 바로 주인의 친절이었다.

『오늘은 요 앞 물가에 가서 밥이나 해먹고 일찍 자자. 하루 종일 차를 탔더니 피곤하다.』

내 제안이 달갑지 않은 듯 명식이는 자꾸 설악산과 바깥 풍경만 바라다 보았다.

『있고 싶을 때까지 있을테니까 오늘은 푹 쉬는 게 좋아.』

내가 또 거들었다. 녀석은 그제서야 방바닥에 철버덕이 주저 앉았다.

저녁밥을 먹고 우리는 계곡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텐트촌을 끼고 왼쪽으로 숲길을 따라 걸었다. 명식이는 느닷없이 시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개나 걸이나 시인 되는 게 아니다.』

『나는 개나 걸이 아니니까.』

명식이는 확실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그가 고시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같았다.

『어린것들이 너무 많다.』

명식이가 숲속을 가리키며 말했다. 텐트촌을 벗어나도 곳곳에 작은 촌락처럼 텐트들이 많았다. 외진 곳에는 까까머리 사내들과 단발머리 계집애들이 많았다. 우리는 호기심으로 그곳을 기웃거렸다. 어둠 속으로 경쾌한 디스코 음률과 괴성이 흩어져 나오고 있었다.

우린 숲속으로 자꾸 빠져 들어갔다. 형광랜턴의 조명 밑에 나이 어린 소년과 소녀들이 얼크러져 춤을 추고 있었다. 맥주병과 소주병이 그들처럼 땅바닥에 질펀하게 깔려 있었다.

『저 꼴을 눈 뜨고 봐야만 하는 거니? 정의도 이런 땐 침묵하는거니?』

명식이가 나를 충동질하고 있었다.

『한두 쌍도 아니고 수십쌍을 어떻게 다뤄.』

『대여섯 쌍씩이니까 차례차례 훈계를 하면 되잖아.』

『저런 경우엔 경찰에 연락해서 훈계하는 게 현명해. 철 모르는 애들이라서 우리 얘기가 씨도 안먹혀.』

우리는 어린 그들의 방사작용을 짐작하고 눈길을 피해 더 안쪽으로 걸어갔다.

『저런저런!』

명식이가 이렇게 소리 질렀다.

『이놈들! 이 나쁜놈들.』

내가 말릴 틈도 없이 명식이가 버럭 고함쳤다. 나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청계천 골목에서 눈짓 신호로 파는 이른바 문화영화 필름 한장면같았다.

『어떤 새끼야? 칵 씹어버린다.』

술취한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소리쳤다. 소녀들은 벗은 채 텐트 속으로 뛰어 들어갔고 소년들은 재빨리 수영복이나 반바지를 입었다.

벌써 그들 손에는 손도끼와 등산용칼, 식칼과 몽둥이가 들려져 있었다. 아홉명의 소년들 덩치가 모두 건장해 보여서 명식이가 움츠렸다.

『건방진 놈들 같으니라구. 학생녀석들이 이따위로 놀아!』

내가 앞으로 나서며맞받아소리쳤다.

『으흐흐, 우리의 청춘공화국을 무단침입한 너희들을 지금부터 심판하겠다.』

소년들이 재빨리 우리를 포위했다. 술냄새가 역하게 끼쳐왔다. 술병을 깨뜨려 들고 서있는 소년은 비틀거리고 있었다.

『한놈은 병신이구나.』

『머리통을 수박 쪼개듯 박살내줄게.』

『어른인데 하는 새끼들 보면 골통부터 깨 줘야해.』

『재들도 어른야? 그렇다면 표본실의 청개구리 실습좀 해주지.』

『배때기 장다서 창자 구경좀 해보자.』

모두들 입이 험했다. 나는 대꾸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명식이가 센 나무를 들고 입을 앙다물었다.

『느이들은 형도 없냐?』

명식이의 목청 터지는 소리였다.

『형님 아구통부터 조져주지.』

한 소년이 도끼를 치켜 들었다.

나는 명식이를 그 자리에 주저 앉혔다. 그리고 명식이의 몽둥이를 뺏어 들었다.

『얼씨구, 한번 해보자 이거가.』

소년들이 바짝 다가섰다. 나는 몸을 낮추고 소년들의 동작을 유심히 살폈다. 어린 애들한테 표창을 쓰고 싶지는 않았다.

『좋게 말할 때 비켜라.』

내가 위엄있게 한마디 했다.

『나쁘게 말해보시지 그래.』

애들이 일제히 덤볐다. 나는 명식이를 밀어내며 앞쪽에서부터 몽둥이를 후렸다. 세 녀석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다시 세 녀석을 걷어 찼다. 조금이라도 여유를 줘선 안되는 게 어린애들이었다. 몸사릴 줄 모르기 때문에 큰 녀석들보다 더 위험한 것이었다.

나머지 세 녀석을 땅바닥에 눕혔다. 텐트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던 소녀들의 고개가 쏙 들어갔다.

『너희들 모두 나와.』

내가 소리쳤지만 텐트 속의 소녀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명식이가 텐트를 찾아 찼다. 텐트 속의 소녀들은 아직도 발가 벗은 채 수건이나 등산모자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린채 잔뜩 수그리고 있었다. 그녀들도 술에 취해 있어서 술내음이 풍겨 왔다.

『이년들, 빨리 옷 입어.』

명식이가 계집애들의 따귀를 한대씩 올려 붙였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계집애가 무릎을 꿇고 명식이에게 빌었다.

『빨리 옷 입어!』

명식이가 악쓰듯 했다. 계집애들이 다른 텐트 속으로 뛰어 들어가 옷을 입고 나왔다. 쓰러졌던 소년들을 풀밭에 앉혀 놓았다. 녀석들은 아직도 도전적인 자세를 풀고 있지 않았다.

나는 돌아가면서 한 녀석씩 잡쳐 주었다. 급소를 정통으로 맞은 녀석들이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빨리 옷입고 짐 챙겨. 늦는 놈은 진짜 맛을 보여주겠다.』

『형님, 저희들이 잘못했읍니다. 다시는 이러지 않을테니 한번만 봐 주세요.』

한 녀석이 무릎을 꿇자 나머지 녀석들도 모두 무릎을 꿇고 빌었다.

명식이가 내 옆구리를 쿡 찔렀다.

『저 녀석들 파출소에 넘기면 모두 퇴학 당하고 부모들이 알면 기집애들은 머리끄댕이가 싹뚝 날아가. 그러니 대충 용서해버려.』

나는 그 순간에 내 계집애 동생 미숙이 생각을 했다. 하찮은 일로 퇴학을 당한 한 때의 실수를 그들만의 잘못으로 치부하기엔 어른들 세계가 너무 지저분하고 야박하다는 생각을 했다. 어린애들을 저렇게 [illegible] 부모와 어린애들이 이런 곳에 와서 저 지경으로 놀 수밖에 없는 사회의 틀 이해를 나는 그 순간에 또 생각했다. 건전하게 교제할 수 없게 만든 어른들 잘못을 나는 따지고만 싶었다.

『좋다. 대신 나하고 약속한다. 내가 여기서 너희를 떠날 때까지 같이 지낸다는 조건이다.』

『승복하겠읍니다.』

소년들이 이렇게 말하자 계집애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세명은 명식이 형님 따라가서 짐을 가져와라.』

명식이가 세 녀석을 데리고 짐을 가지러 갔다. 나머지 녀석들의 근육을 풀어준 나는 애들을 둘러앉게 하고 오락시간을 갖게 했다. 애들은 티없이, 언제 그런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재미있게 놀기만 했다.

<다음호에 계속>

주간女性

바르고 빠른 소식을 전하는 한국일보

주간女性

홍콩夜話

◇홍콩夜景。홍콩섬 보다는 바다저쪽의 九龍에서 더욱 현란한 밤이 무르익는다。

女體에 손댔다간 女性虐待罪

풀벌레 개구리들의 울음소리로 요란한 시골 농촌이 아닌바에야 세계의 어느나라 어느 都市치고 夜話가 없을수 있으랴. 그래서 홍콩에도 물론 夜話가 있다. 한데「홍콩의 밤」이라면 보통 도시들의 밤하고는 좀 색다르다고 보는것이 어떨까.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만 일생을 살아가고있는 시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것도 다른곳과 같고 뭐, 사람이 모여사는 동네에 별다르다면 얼마나 별다르랴 싶지만 그래도 홍콩은「밤의 도시」로 불려질만큼 뭔가 색다른데가 군데 군데에 있다. 뭐니 뭐니해도 이곳을 지나가고 지나오는 숱한 외국인 여행객들의 밤이니까 그렇다는 얘기다.

♥市民들은 일찍歸家

서울만해도 퇴근후에 한잔, 모임이 있어 한잔, 아니면「자기」(젊은여인들의 상대방호칭)들끼리 어울려 밤거리를 쏘다니는 경우가 지나칠만큼 많다. 그러나 홍콩에서라면 일반시민들의 조기귀가(早期歸家)하나쯤은 눈여겨 배우고 싶을만큼 철저한것도 생각해보면 이러한 밤의 특성을 보고 알기때문이다.

홍콩섬보다는 九龍반도의 밤이 더욱 짙고 흥겹게 끓는다.

저녁8시가 지나 변두리에서는 사방이 어둠속에 싸여있을때 홍콩, 그보다는 九龍의 밤하늘이 휘황한, 오색네온으로 불그스레 물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거리 곳곳의 행상, 그리고 밤의 쇼핑객을 기다리는 상점들에나 일반시민들이 있을 정도. 거리는 온통 밤의 열기에 들뜨기 시작한 외국인 여행객들로 붐빈다.

이 외국인 여행객들은, 거의가 술과 여자, 그리고 노래와 술을 위해 호텔을 빠져나온 사람들. 간혹 예외가 있다면 저녁식사를 제때에 못해 식당문을 두드리거나 당장 다음날 떠날시간은 다가오는데 살것을 미처 다 사지못한 여행객들이 상점을 찾아헤매는 경우쯤 들수 있다.

국적이 다르며, 연령층이 다르고, 거기에 풍습하며 기호들이 모두 같을수는 없기때문에, 이 밤거리의 여행객들이 반드시 어느곳에서 어떻게 홍콩의 밤을 즐긴다고 일률적으로 얘기할수는 없다.

호텔에서의 무료를 씻기위해「한잔」쯤 하고싶으면 특별한 내력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만이 모이는 술집으로 찾아가 세미클래식 오르간 연주를 들어가며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도 있고 오랜만에 한번쯤 홍콩의 밤에 흔들고 싶으면 또 그런대로 술도 마시며 춤을 추는곳이 얼마든지 있다.

어디 술뿐인가.

「때는 이때다」싶어 엉뚱한 외도(外道)를 시도하는「꾼」들도 있고, 오랜만에 자신의 목청을 시험해보려는 가수아닌 가수들은 또 그런데「[illegible]」자도 찾아가다.

外國 여행객들로 成市…토플리스·바서는 各國의 女體감상

나이트·클럽 아가씨들은 손님시중 안해

하지만, 특히 남성들이라면 거의 나체가 되다시피한 여체(女體)감상으로부터「이 반」을 시작하는것, 이것만은 동서양과 나이의 젊고 늙음에 별차이가 없는것같다.

이른바 그 흔한「토플리스·바」라는 곳 말이다.

우리말로하면『어이, 거 있잖아, 계집애들 발가벗고 있는곳말야, 그게 어디 있는거야. 먼저 그곳부터 가보도록 하지.』

현지(홍콩)의 친구나 안내자들에게 전네는 첫마디다.

대개는 컴컴한 입구에서 부터 계단을 한참 내려간 지하실쯤.

손님 10여명이 둘러앉을수 있는 둥근 테이블이 여럿 있고 그 한가운데 움푹 파인곳에 그야말로「밤의 꽃」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

이 밤의 꽃을 감상하는데는『어느나라 색시를 원하느냐?』는 안내종업원의 물음이 있을뿐이다.

♥밤의 꽃과 夜總會

홍콩아가씨에서부터 인도, 필리핀, 태국, 미국, 영국, 불란서, 일본아가씨가 앉아있는 테이블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테이블 가운데의 아가씨는 밑부분만을, 그것도 간신히 가릴곳을 가린 정도. 그밖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았다.

손님이 주문하는 어떤 종류의 술도 이 아가씨는 즉석에서 만들어낸다. 그뿐인가. 물수건도, 또 기본으로 나오는 안주도 이 아가씨들은 따로 종업원을 부르거나 손뼉을 치며 소란을 떨 필요없이 그자리서 미리준비해논것들을 제공한다. 굽거나 끓여야하는 요리종류의 안주는 시킬수도 없고, 시키지도 않기때문이다.

테이블 주위에 죽 둘러앉는 손님들은 별로 대화가 없다. 그저 앞의 女體만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저마다 자기생각만을 할뿐. 어쩌다 대화가 있을때, 그것은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소근거리며 女體품평회를 갖는중이다.

이런 술집에서 넋나간채 1시간이상 앉아있었다면 그 여행객은 주머니가 두둑하거나 아니면 촌뜨기중에서도 촌뜨기임이 틀림없다.

술잔속에 포함된 아가씨의 나체감상료가 보통집 술값의 몇배인지를 몰랐기때문이다.

이렇게해서 눈요기를 끝낸 여행객들은 대개가 다음코스로 흔드는곳을 향한다. 이른바 나이트클럽, 중국어로는 夜總會라는곳.

♥노래回數적는게 일

우리의 맥주홀과 엇비슷하지만 춤을 추는 홀이 넓고, 악단이 매머드로 짜여져있으며 가수들의 노래가 그치질않고 실내 조명이 화려한것들이 다를 뿐이다.

자리를 잡은 손님에게는 따로 주문을 받을 필요 없이 아가씨 한명씩이 따라붙는다.

영어나 현지 중국어로 얘기가 통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할때는 얼굴표정만으로 대화를 나눈다.

「비어」,「위스키」,「코냑」,「브랜디」쯤 술을 먹는 사람이 모를리 없다. 그래서 이 술 이름만 한마디하면 이내 술과 안주가 들어온다.

다른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이미 普편화돼있다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서먹서먹한 정경이 이때부터 펼쳐진다.

옆자리의 아가씨, 술을 따라주거나 손님을 즐겁게 해줄생각은 않고 앉은채로 쪽지에 뭔가를 열심히 적어 탁자위의 통에 집어넣는것이다.

바로 자신에게 돌아올 봉사료가 이 쪽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이곳에서는 대개「가수의 노래 1곡」이 6달러(약8백원)씩 계산돼 아가씨들은 손님과 같이 앉자마자 가수들의 노래 횟수를 적는 것만이 임무이자 본업인 셈이다.

술도 마셔가며 춤도 추고, 어쨌든 2차쯤 됐으니 어느정도 술기운이 몸았다하자.

하지만 아가씨들의 그 어느곳에라도 남자의 손길이 뻗쳤다가는 기분이고 뭐고 다 잡친채 망신만을 당한다.

1차때의 토플리스·바도 마찬가지. 女體에 손을 댔다가는「여성 학대죄」라는게 있어 경찰에 신고 하나만으로 벌금을 물리거나 심한 경우 구류처분을 감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록 술집에서지만「오늘밤은 우리 둘이」라는 생각도 홍콩안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손님이 별로 없는 날이야 싫하지 않지만 일손이 달릴때 옆아가씨가 수시로 자리를 뜨거나 한참만에 다른 아가씨가 와 앉아도 불평을 했다면 역시 시골뜨기란 말을 듣기 알맞다.

다시말해 나이트클럽의 아가씨들은 가수들의 노래횟수를 적는것, 그리고 이따금 손님과 춤을 추어 주는것 뿐이지, 자리는 뜨는것도 멋대로다.

물론 언어가 통할때 가벼운 얘기쯤 주고 받는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어딜 주물러라, 안주를 입에 갖다바쳐라, 자리를 떠서는 안된다는 요청은『당신, 어느나라 사람이냐?』는 경멸스런 질문을 받기 십상이다.

부부동반여행자거나 단체여행객들에게는 있기도 어렵고 떠 드문일. 하나, 간혹 홍콩의 밤을 색다른 추억으로 간직하기위해 처음부터 딴전을 부리는 여행객이 없는것은 아니다.

♥50個國 사람들 살아

쉽게 말해「한못밤을 돌이서」지내기위해 흥정을 하는 경우 말이다.

하지만, 이 시도(試圖)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이만저만 복잡한게 아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아가씨가 보통때 정상적으로 근무해야하는 시간(새벽3시)까지의 임금(에스코트·차지)을 업주에게 선불해야한다.

『일을 할수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을때, 몇살까지 일을 했더라면 얼마』하고 가해자가 보상해주는 재판상의 원리와도 같다.

그렇게해서 업소 밖으로 나가게되면, 이번에는 아가씨의 빈 뱃속을 채워줘야하는 남성의 에티켓이 뒤따른다.

기왕 얻어먹는바에, 값싼음식을 먹지만은 않는 아가씨들때문에 남자손님은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夜食代를 지불해야한다.

그러고서도『기본도 그렇지 않은데…』하며「조용한곳에가서 또한잔」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해결해줘야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도착하는곳은 호텔. 그 안에서는 어떤일이 있었는지 두사람만이 아는일이다.

이렇게되니, 에스코트·차지에서부터 야식대, 술값, 호텔값, 또 아가씨에게 따로 주는 몸값하며「홍콩의 하룻밤」을 추억속에 담으려면 미화 5백달러(35만원)쯤은 온데간데가 없다.

하룻밤값 에스코트·차지까지包含 35만원

이 얘기는 그쯤해 두고.

현재 홍콩에는 줄잡아 50개국의 사람들이 살고있다.

그렇지만 거주자의 수로 볼때는 역시 중국, 영국 다음으로 인도, 필리핀, 일본, 태국사람들이 많이 살고있는 실정.

그래서 이 거주자들은 또 그들 나라 특유의 술집들을 여기 저기에 차려놓고 고국의 손님을 부른다.

홍콩의 한국인거주자는 줄잡아 2천3백명. 한글 간판을 써붙인 한국인 경영의 술집만해도 여섯군데나 되는데 이, 자기나라 사람들끼리 모이는 술집엔 가면, 그야말로 홍콩의 밤거리에서 자기나라의 가요를 맘대로 불러댈수 있어 아예 처음부터 이런곳만을 찾아나서는 여행객이 적지가 않다.

한국술집인 Y집의 분위기.

홀안에 들어서면 이미 와 앉아있던 모르는 사람이라도 눈인사쯤 서로 가볍게 주고받게 되고 상대방이 한국인임을 확인하게되면 스스럼없이 통성명이 오간다.

이런 곳에서라면, 손님들중 일부는 현지교포들이기 때문에 역시 흘러간 옛 노래가 제격(格).

어쩌다 요사이 국내의 젊은이들중에 유행중인 노래가 시작되면 흥을깨고 만다.

밤이 지새도록 마이크는 이손에서 저손으로, 이 테이블에서 저쪽 테이블로 분주히 오간다. 이렇게되면 술에 취해 하룻밤을 즐겨보는 일반적인 홍콩의 夜話는 대략 소개가 된셈.

이번에는 좀더 음침한 곳으로 얘기를 바꿔보자.

아바던 이라는 홍콩섬 서쪽항구를 비롯해서 모두 7、8개소의 작은 항구마다 옹기종기 모여살고있는 선상마을.

여기가 또하나 홍콩의 야화를 만들어내는 곳이기도 하다.

◇(上)노래와 춤으로 밤을 즐기는 홍콩의 나이트클럽。손님들은 국적도, 인종도 서로 다르게 마련이다。(下)각국 여자들의 몸매를 감상할수있는「토플리스 바」간판들。외국여행객들은 대개가 이곳에서부터「홍콩의 밤」을 시작한다。

船上마을 夜史는 위험…「더듬는 것만…」파는 密室도

쉽게말하면 통나무배안에서 1남1녀의 야사(夜史)가 자주 이뤄진다는 얘기다.

사내가 어떤 경로를 거쳐 이 통나무배에까지 가게되었는지는 기자도 잘 모른다.

♥영화관선 特別映畵

이곳이라면 밤의 흉기(凶器)(강도)가 많은데다 현지사정에 아주익숙한 안내인이없다면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夜史는 주로 홍콩거주자가 많은 필리핀, 말레이지아, 태국사람들에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다.

하룻밤에 홍콩돈 50달러, 우리돈으로치면 6천5백원꼴이니 어떤곳, 어떤분위기 인지는 대략 짐작할만한 일이다.

또 이와 비슷한 형태로 九龍의 변두리 지역엘 가면 컴컴한 밀실에서 홍콩돈 10달러(1천3백원)에「이름도 성(姓)도 몰라」뿐만이 아니라 얼굴도, 몸매도, 나이도, 심지어는 국적까지도 모르는 여자를 20여분동안, 위아래로 더듬는 것만으로 끝나는 곳이있고, 어떤곳은 여자의 나체쇼가 계속되는곳이 있다는 얘기.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현지거주 중국사람들끼리 통하는것으로만 알려져있다.

홍콩에서는 상당수의 영화관들이 밤12시부터 1편씩의 특별영화를 상영한다.

「임」을 잊지못해 잠못이루는 사람.

손목을놓기가 아쉬운 연인들이 주로 드나들기 때문에 이 특별영화의 내용역시 대개가 성(姓)을 주제로 한것들이다.

어떤 영화관은, 상영이 시작되어 소문이 나기 무섭게 몇주일이고 만원사례를 계속해 나가기도한다.

하지만, 모처럼 홍콩에 들른 외국여행자가 이 특별영화를 보기위해 영화관을 찾는일은 극히 드물다.

역시 여행자들이라면 거의가 마시면서 즐기고 노래도 하며 춤을 추는것으로 홍콩의밤을 보내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욱 늘어만간다는 홍콩(주로 九龍)의, 밤거리인파.

이 인파들가운데 술도, 여자도, 노래도, 춤도 모두 싫다는 외국여행자가 있었다면 이들이 밤을보내는 방법은 또 있다.

대개는 새벽2시까지로 돼있지만, 영업용 호화유람선이나 시간마다 일정한 코스를 왕래하는 정기관광선에 몸을 실어보는것도 그럴듯하기때문.

홍콩섬을 한바퀴 돌아오는데 2시간.

값은1인당20달러(2천6백원)씩으로 바다위를 지나면서 홍콩의夜景을 구경하는것인데 승객들중 대부분은 역시 老부부가 차지한다.

홍콩의夜話다해서 포복졸도한다거나 기절초풍할만한 사연들이 있다고는 할수없다.

하지만 아뭏든 홍콩의밤은 주로 외국인 여행자들의차지. 그래서 이들(외국여행자)을반기며 맞는 술집들은 심하게 말해, 바카지요, 점잖게말해 비싼 술값을 서슴없이 요구한다.

그래도, 면세지역의 잇점이 있어 그정도라면 분명, 홍콩의 夜話를 기억하기위해서는 술값도, 여자값도, 춤값도, 노래값도 그 모두가 엄청나게 비싼것만은 틀림없다.

〈한국일보外信部金澤精차장〉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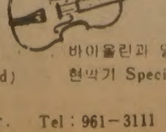
NIPPON VIDEO CENTRE
일본비데오센터
많은 한국테프가 새로 들어왔읍니다
주6일 OPEN
1993 DANFORTH AVE. TOR. ONT.
TEL. 698-0633
TOSH HAMAGUCHI (하마구찌)
(우드바인 서쪽 1 block)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M. ~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식 중국음식 뱅킷 카드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Spadina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모든 악기를 취급합니다
부속품 · 악기수리 · 대여
Remenyi
house of music
1890년에 설립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피아노 (새것과 Reconditioned)
바이올린과 일체의 현악기 Specialist
210 Bloor St.W. Tor. Tel : 961-3111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陳氏眼鏡公司
MARWITZ Zeiss Gruppe West Germany
ZEISS West Germany
●고급안경취급
●Rodenstock
*콘택렌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썬글라스를 선물 합니다.
BAY OPTICAL CO. LTD.
LUCLIFF PLACE
700 BAY ST. (at Gerrard)
TORONTO, ONT.
TEL : 595-1665
FASHION OPTICAL
525 DUNDAS ST.
(at Spadina Av.)
TORONTO, ONT.
TEL : 363-0684
영업시간 :
●월~토 9 : 30AM~6 : 00PM
●월~토 11AM~7PM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Daily Newspaper ·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구독신청은 (416) 533·2361

北傀挑發 응징報復策있다"

이미措置…보복땐 全面戰 각오

"北傀미사일 發射 單獨行動도 가능"

周國防장관 國防委답변

국회는 2일 하오 外務·國防委연석회의를열고 盧信永외무·周永福국방장관으로부터 최근 日本巡視船의 獨島領海침범과 北傀의 백령도領空침범및 美SR71機 미사일공격에대한 정부측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盧信永외무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美정찰기 공격사건은 美軍機의 리비아機격추사건이후 美蘇양국관계가 不安定한 상태에서 미국의 對蘇강경자세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분석하고『지금은 자유우방의 결속 특히 韓美日안보협력체제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강조했다。

그는『美정찰기 공격사건이후 우리정부는 즉각 蘇·中共이 北傀에 대해 군사도발을 억제해줄것을 요구한 미국부성의 對蘇·中共촉구내용을 통보받는 한편 서울과 워싱턴간의 긴밀한 협의체제아래 類似한 사건의 再發방지를 위해 강력한 결의를 보여줘야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盧장관은 또 답변을 통해『北傀는 白翎島침범과 美정찰기에 대한 미사일공격사건으로 우리측의 1·12및 6·5제의를 거부하고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기도를 다시한번 증명했다』고 말했다。

盧장관은 이어 일본 순시선의 獨島영해침범사건과 관련, 정부는 사건이후 駐韓일본대사를 외무부로 불러▲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獨島는 엄연한 한국 영토이므로 이번 사건은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이러한 침범행위재발을 방지해달라는 내용의 항의를 했고 또…

◇국회外務·國防委연석회의에서 周永福국방장관이 北傀의 美SR71정찰기 공격사건경위를 보고하고있다。

…周永福국방장관은 이날 회의에서『北傀의 美정찰기 공격사건에 대해 韓美간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지만 그조치는 밝힐수없다』고말했다。

周장관은 이날 답변을통해『보복행위는 全面戰을 각오해야한다』고 말하고『응징보복책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朴敬錫 郭正出 柳根桓 河舜鳳(이상 民正) 申鉉洙 金德圭(民韓) 尹錫民 林德圭의원(국민)등 與野의원들은 이날 심의를통해 美SR71 高空정찰기에 미사일공격을 한 北傀의底意…

日船 獨島침범때 空軍機급파

周永福국방장관은 2일『北傀가 지난 26일 美정찰기에 발사한 미사일은 전술무기로 소련의 승인없이 단독사용이 가능하며 北傀의 獨斷的인행동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周장관은 이날하오 국회外務·國防委 연합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日本의 獨島領海침범직후 우리 空軍機가 현지에 急派되었다』고 말했다。

美 對北傀항의 中共 전달거부

【北京1日=聯】중공은 1일 美공군 SR71정찰기에대한 北傀의 미사일공격과 관련, 北傀측에 항의를 전달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했…

中共副首相 仲勛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중공이 미국의 불만을 북한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히면서『미국은 북한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나른 외교경로를 이용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말했다。

颱風약화 南海岸스칠듯

全南일원에 颱風경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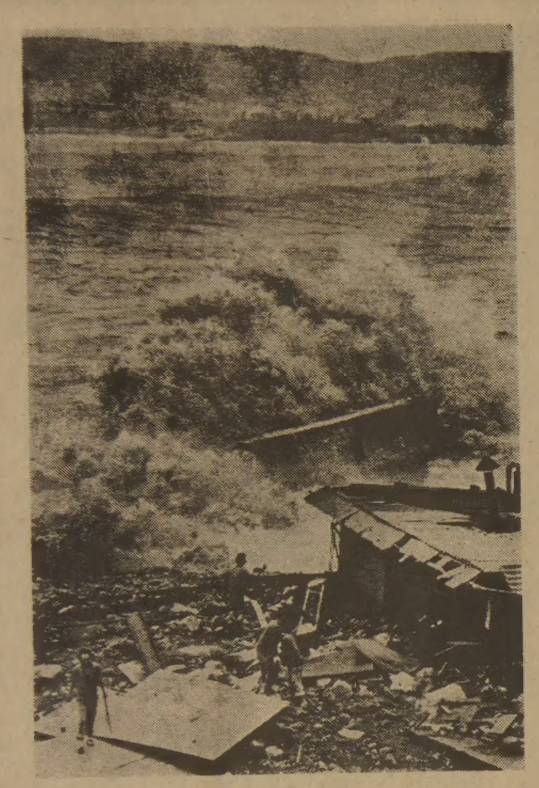
島嶼지방거쳐 오늘東海로

下午 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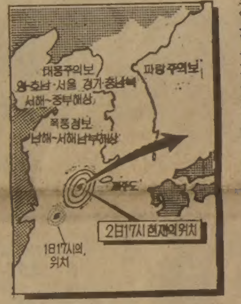
우리나라 남서해안에 상륙할것으로 보였던 제18호 태풍 애그니스호가 2일새벽부터 세력이약화되면서 진로를바꿔 3일중 남해 — 도서지방만을거쳐 동해로 빠져 나갈것같다。한편 관상대는 2일 하오6시를기해 全南일원에 태풍경보를 내렸다。

2일 중앙관상대에 의하면 낮12시 현재 濟州남서쪽 1백60㎞해상(북위 32·5·동경 1백24·3도)에서 매시 8㎞의 느린속도로「북상」중이어서 우리나라가 피해권에 들게됐다는 것인데 이날밤 진로를 동북동쪽으로 전환하면서 가속화될경우 3일 하오에는 남해안을거쳐 동해로 빠져나가 우리나라는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2일상오 중심기압이 9백75밀리바 B급태풍으로 약화된애그니스의중심최대풍속은…



◇육지로 둘러싸인 釜山內港에서까지도 집채같은 파도가 해변을때리며가옥들을 삼킬듯 넘실거리고있고 불안한 주민들이 노인을부축해서대피하고있다。【釜山市南富民洞＝金海雲기자찍음】



SR71공격 미리探知·

조종실 警報…레이더로 逆捕捉

【뉴욕2日=金泰雄특파원】지난26일 西海상공서 북괴의 미사일공격을 받은 SR71(정찰기)경보장치로 북괴의 공격을 미리 탐지했다고 뉴욕·타임즈紙가 한美행정부 관리의말을 인용해 보도했다。이 보도에 의하면 SR71 정찰기는 機體에 부착된 레이다탐지장치를 이용해 북괴군의 레이다 추적을 逆탐지하고있었으며 미사일이 발사됐을때는 熱에 민감한 특수장치로 미사일의 분사열을 감지, 미사일의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목표가되는 비행기의 위치를 놓치지않기위해서는 2개의 레이다유도체제가 이용되고있는데 시속3천2백㎞를 넘는 SR71기를 추적한것을보면 북괴는 2개이상의 레이다유도체제를 이용한것같다。

레이다의 추적이 심할수록 조종석에서 울리는 경보는 요란해진다。

SR71기는 레이다의 전파가 발사되는 원천(基地)을 찾아내는 장치도 갖고있다。

【워싱턴1日=曺淳燦특파원】 및 태평양담당차관보는 8월말또는 9월초로 예정되었던 한국방문계획을 취소했다고 캔·데일리즈국무성 동북아부대변인이 1일 말했다。

홀드리지 訪韓取消

【워싱턴1日=曺淳燦특파원】홀드리지 미국무성 동아시아…

北傀, 최근에 配置

美機공격 미사일

【워싱턴1日=曺淳燦특파원】북한은 美SR71 고성능정찰기에 발사한 바로 그 미사일 장치를 극히 최근 해안지대로 이동하여 열심히 목표선정연습을 해온것으로 밝혀졌다고 뉴스위크誌최근호(9월7일자)가 보도했다。

漢江水位조절 철저히"

全대통령, 새벽 統制所등 일대視察

◇全斗煥 대통령이 漢江홍수 통제소에서 水位상황을점검하고있다。

全斗煥 대통령은 2일아침 水位가 불어나고있는 漢江등 일대를시찰, 홍수대비상황을 살피고 漢江홍수통제소에 들러 철야근무중인 관계직원들을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상오6시15분 南民홍를떠나 城山大橋 북쪽으로부터 강변로를따라 漢江水位가 불어나는 상황을 살피며 제1漢江橋를거쳐 江南區盤浦洞에있는 건설부산하 漢江홍수 통제소에들러 약30분동안 吳達泳소장으로부터 北漢江및南漢江등 漢江水系의 홍수조절업무에 관해 보고 받았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昭陽江댐과 華川댐등 다목적기능을 갖고있는 댐의水位조절을잘해 태풍18호로 인한 많은 降雨에 대비, 漢江유역전체의 홍수조절에 만전을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보고가끝난뒤 통제소내의 홍수조절용 無電室과 電算室등을둘러보며 철야근무중인 관계직원들을 격려하고 상오8시10분 청와대로 돌아왔다。

退職교육자에 오찬

全斗煥 대통령은 2일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退職교육자 1백54명을 위해 오찬을 베풀고 노고를 치하했다。이자리에는 任正淳씨(前서울大교수)등 前대학교수 29명, 朴贊敎씨(前天安중화교장)등 前中高교사 59명, 具完會씨(前서울新踏국민학교장)등 前國校교사 66명등 모두 1백54명이 참석했으며 李奎浩 교부장관이 배석했다。

北傀미사일高性能

美機위高空서爆發

【東京2日=聯】북괴가 지난달26일 미국의 SR71정찰기를향해 발사한 SA2地對空미사일은 3만m이상의 고도에 도달할수있는 고성능지사일로 SA2 신형이거나 북괴가 독자적으로 개량한것일 가능성이있다고 일본산케이(產經)신문이 2일 보도했다。

산케이에 의하면 이소식통은 SR71機가 공격을받았을 당시의 고도가 3만m이상이었으며 북괴미사일은 비스듬히앞을가로질러SR71機위쪽에서 폭발했다고말하고 따라서 북괴는 실제로SR71機격추를노렸을가능성이 크다고 시사했다。

社會漫評

山너머山…

태풍애그니스는 2일밤 이같이 애그니스는▲방향을 바꾸어 속도가 느려진것은…

地平線

태풍 애그니스가 당초 예상했던것처럼 혹독한산처는안입힌것같으나 거목가로수들이 뿌리째뽑혀 길가에 나뒹굴고 있는것을 보면 그무서움을 새삼일깨워준다。…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 439
은: 온스당 US 10.15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현대한국작가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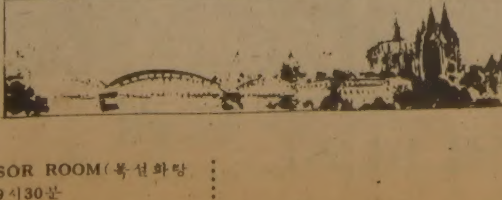
(양로원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 전시회)

이 양 원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신인 예술상 수석상 수상
—국전 특선5회
—국전 문공부 장관상
—국전 입선8회
—각종 초대전 출품및 개인전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일연회 회원

유 종 민
—서울미대 조각과 졸업
—서울대 교육대학원 졸업
—각종 초대전 출품
—국전6회 입선
—제3회 개인전 가짐
—각종 미전 심사위원
—현 관동대학 미술교육과장
한국미술협회 회원, INSEA한국회원

조 용 각
—서울 미대회화과 졸업(서양화)
—신인 예술 장려상 수상
—각종 국제대회 초대전 출품전및 개인전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추계예술 조교수
제3구룹회원

권 숙 연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1회특선)
—창작미협전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제3구룹전
—한국현대 도자기 상인전



한 풍 렬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서울미대 대학원 졸업
—대학교 강사
—관인 모뉴망 미술학원장
—경기도전 수석상 수상
—국전특선1회 입선6회
—각종 미전출품및 개인전2회
—중앙미술 내상전 장려상 수상
—현 한국미협회원, 일연회 회원

장 연 탁
—서울미대, 온타리오 미대졸업
—국전출품
—나우회 회원전 출품
—이태리 마리노(로마)국제 비엔나레 출품
—이태리 카라라 국제조각 심포지움 참가
—이태리와 카나다에서 4번 개인전
—현 캐나다 조각협회 회원
●장씨 작품이 영구소장된 화랑
이태리 미라노 현대미술관
베니스 누오브 스파지오 화랑
토론토 가보 화랑
캐나다 조각협회

나 영 삼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
—한국대상전 출품
—제1회 한·일 작품 교류전 출품
—미술회관 초대전 출품
—창작미술 협회전 출품
—한국미협선

장 소: THE SHERATON CENTRE WINDSOR ROOM(복선화랑)
시 간: 10월8일(목) 9일(금): 오후6시~9시30분
〃 10일(토) 11일(일): 〃 2시~ 〃
〃 12일(월) 13일(화): 〃 6시~ 〃

캄보디아 抵抗세력 3者회담

「聯立政府구성」중점토의

反越 연합戰線도 모색

싱가폴서 시아누크·손산·키우삼판參席

◇키우·삼판

◇시아누크

◇손·산

【싱가포르1日聯合=聯】각각 독자적인 反베트남활동을 벌여온 캄보디아의 3개저항세력지도자들이 2일 싱가포르에서 3者회담을 개최, 反베트남연합전선구축및 연립정부구성을위한 공동기반마련방안을 토의한다.

이번 회담에는 비교적 소수단체인 클리나카를 이끌고있는 前국가주석 노로돔·시아누크公、前수상이며 캄보디아인민민족해방전선(PNLF)지도자인 손·산및 크메르·루지舊정권대통령겸수상 키우·삼판이 참석한다.

이들의 유일한 합치점은 1978년 침공이래 지금까지 캄보디아를 장악하고있는 베트남軍을 캄보디아에서 축출하자는것이나 그방법론에서는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있다.

싱가포르의 외교관측통들은 지금까지 서로불신하던 3명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모이는데 동의한 사실은 그들스스로가 큰성과를 거둘것으로 기대하지않고 있다하더라도 중대한 사태진전이라고평가했다.

관측통들은 3일부터 2~3일간 계속될 이번 회담의 성패여부는 자신에게 實權이주어지지 않는한 크메르루지側과는 여하한 협상도 할수없다고 고집해온 손·산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있다.

손·산은 연립정부가 구성될 경우 自派에 주요 각료직을 할당하고 1975~78년 캄보디아 대학살과관련된 크메르·루지의 입부지도자들을 국외추방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對베트남戰의 실질적인 抗戰세력을 이끌고있는 크메르·루지의 키우·삼판은 손·산의 두가지조건을 모두 거부해왔다.

중공의 강력한 지원과 유엔에서의 계속적인 지지를받고있는 크메르·루지側의 거부이유는 손·산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革命 12주맞아 기념식장으로 가는 가다피
모아마르·가다피 리비아대통령이 1일 리비아혁명12주년을 맞아 기념식장으로 향하고 있다. 【트리폴리 1일AP聯=聯】

美서 시드라灣 攻擊해오면 리비아 地中海 核기지攻擊

【트리폴리(리비아)1日AP=聯】가다피 리비아 대통령은 1일 미국이 또다시 리비아 연안의 시드라灣을 공격할 경우 지중해에있는 美핵무기 기지들을 공격하여 국제적 재앙을 일으킬것이라고 위협했다.

가다피 대통령은 이날 트리폴리 중심가의 녹색광장에서 벌어진 그의 쿠데타 집권12주년기념 연설을 통해『우리는 미국이 또다시 시드라灣을 공격할경우 시칠리아와 크레테 터키및 모든 지중해국가들에 있는 핵기지들을 공격하여 국제적 재앙을 일으킬 것임을 이들 국가들에 경고한다』고 선언했다.

南阿洲에 "폭발적事態"

앙골라에 蘇·東獨·쿠바등 人民기구지원

美高位官吏 밝혀

【워싱턴1日AP=聯】앙골라에 1천여명의 東獨및 소련고문단이 주재하면서 1만5천내지 1만9천명의 쿠바軍과 함께 서남아프리카인민기구(SWAPO)를 지원하고 이에맞서 남아공화국이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남부아프리카에『폭발적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미행정부의 고위관리가 1일 말했다.

신분을밝히기를 거부한 이관리는 쿠바軍외에 東獨및소련 군사고문단이 상당기간전부터 앙골라에주둔하면서 앙골라軍을『소대단위』까지자문하고 앙골라에 근거를 두고있는 SWAPO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南阿共軍의 증강과 함께『폭발적사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리는 최근 앙골라를 침공한 남아공군이 작전도중 소련고문관들과 전투를 벌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는 소련이 앙골라軍의 小隊까지 개입하고 있다는『청증거』라고 지적했다.

이 관리는 이같은『폭발적사태』가 나미비아(西南아프리카)의 흑백인이 동시에 수락할수 있는 독립해결방안이 나와야만 해소될수 있다고 말하고 오는 24일 유엔에서 미국과 다른 4개 서방국간의 회의에서 미국의 구체적해결안이 제시될것이라고 말했다.

앙골라戰에 蘇軍개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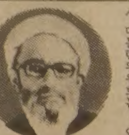
南阿共軍이生捕 射殺도

【케이프타운1日AP=聯】南阿共군인들은 앙골라를 침공하던중 소련군인들을 발견、이들중 일부를 사살하고 소련군 준위1명을 생포했다고 南阿共국방상 마그누스·말란장군이 1일 밝혔다.

서남아프리카경지대에서 벌어지고있는 아프리카 밀림전쟁에『소련이 개입하고있다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갖고 있다는 말란남아공국방상의 이같은 성명은 미국이 남아공의 침공을 비난하는 유엔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지 24시간만에 나온것이다.

새首相에 카니內相

이란 臨時大統領委


◇새首相카니

【테헤란1日AP=聯】이란임시대통령위원회는 1일 지난30일 발생한 폭발사고로 사망한 바호나르수상 후임에 모하마드·레자·마다비·카니 내상을 임명했다고 관영 파르스통신이 보도했다.

메아리

모세가 유태민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출애급기의 기록은 고대 민족대이동의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福地」를 찾아 그들은 고난의 길을 서슴지않고 떠났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세계 여러 곳에서「자유의 福地」를 찾아 정든 고향을저버린 현대판 출애급기를 낳았다. 미국의 시사잡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誌는 지난해 여름「현대판 민족대이동」의 실상을 숫자로 밝혔다.

1천6백만명이 훨씬 넘는 세계인이 공산주의 지배를 배격하고 조국과고향을 잃었다. 이 중 가장 많은것이 동구권의 6백20만명ㅡ. 그 다음이 소련군진주이후 북한을 탈출한 5백만명의 우리 월남동포다. 1백80만명의 이디오피아인도 고국을 등졌다.

인도차이나 赤化로 1백20만명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버렸다. 보트 피플은 지금도 바다에서 구원의손길을 벌리고 있을것이다. 소련군이 강점한 아프간에선 1백10만명、카스트로의 쿠바를 벗어난 사람도 1백만명에 달한다. 소련을등진 숫자는 30만명을 헤아린다고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는 보도했다.

목숨건 歸順

동구권의 심각한「脫祖國」현상은 베를린 장벽이 극적으로 말해준다. 베를린장벽은 지난달13일로 구축20년을 맞았다. 이 장벽이 세워지기전엔 해마다 10만~20만명의 동독인들이 이곳을 통해 자유를 찾았다.

大脫走에 질린 동독은 66억달러라는 막대한돈을 들여 1백60㎞에 이르는「철의 장선」을 쌓았다. 그래도 필사의 탈출은 계속되었다. 20년간 70여명이 이장벽을뛰어넘다 목숨을 잃었다.

서독에선베를린장벽을「수치의 장벽」이라 부른다. 이보다 더 무섭게 같은 민족을갈라놓은것이 우리휴전선의 장벽이다. 휴전선을 무사히 넘어오기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바늘구멍을 꿰뚫고 또 한사람의 장한 북한동포가 자유의 땅에 섰다.

폭우로 온국민이 水防에 조바심을 하고있을때 바로 이 폭우를 이용하여 북한주민이 임진강을 건너 탈출에 성공했다. 공산세계에선「비당원」은 더욱「비인간」의 취급을 받는다. 플래스틱물통에 생명을 걸고 죽음의 탁류를 헤친 배병관씨는「나도 인간이되련다」고 절규하고있다.

이란 回教聖職者 怪漢에 1명被殺

【테헤란·앙카라1日AP·UPI=聯】이란의 한 회교성직자가 31일 상오 오토바이를 탄 2명의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이란집권회교공화당(IRP)기관지「回教共和報」가 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회교성직자 호자톨레솔람·모르테자·아야톨라히가 31일 상오5시45분(현지시간) 자택앞에서 살해됐다고 전했으나 괴한들이 도주했는지 체포됐는지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南阿共軍 攻勢강화 民間人마을도 爆擊

【리스본1日AP=聯】앙골라를 침공한 南아프리카共和國의 병력이 전혀 철수할 움직임을 보이지않고있는것은 물론 오히려 공군기를 동원해서 민간인마을을 무차별폭격하는등 공세를 강화하고있다고 앙골라관영 ANGOP통신이 1일 보도했다.

보카사、佛시민권確認요청

佛서 入國거절하자 法院에提訴

【파리1日AP=聯】잠·베델 보카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前황제가 프랑스법정에 자신의 프랑스시민권을 확인해주도록 요청했다고 그의 변호사가 1일 밝혔다.

지난79년9월 보카사가 축출된후 프랑스정부는 그가 더이상 프랑스 시민이 아니라며 프랑스입국을 거절했었다.

◇동전대신 磁氣카드로 통화

크레디트·카드만한 크기의 磁氣카드를 사용해서 통화가능한 새로운 공중전화 메이폰(Pay Phone)。日本電信電話公社(NTT)가 개발한 이공중전화는 3천엔(9천원)을 지불、10엔짜리 기준통화 3백회를 할수있는 분량의 카드를 구입하여사용할수 있는데 내년봄부터 東京시내의 주요정거장 공항 백화점등 공공장소에 설치된다. 【東京=聯】

全面核戰땐 人類종말

國際平和硏 바너비所長 경고

【요크(英)1日AP=聯】전면적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반구에 소재한 인구5만이상의 모든도시는 완전 파멸할것이며 남반구의 주민들도 점차 사멸, 결국 인류의 종말을 맞을것이라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프랭크·바너비소장이 1일 경고했다.

바너비소장은 이날 영국과학촉진협회연차회의에서 연설하는 가운데 美·蘇등의군사비증액경쟁이 계속됨에따라 전세계는『어쩔수없이 核전쟁쪽으로 표류해가고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련이 레이건美대통령의 대폭적인 군사비증액결정과 필적할 군사력증강노력을 펼것으로 보이며 쿠바미사일위기때 맛보았던 모욕을 다시는 감내하려들지 않을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너비박사는 또『이같은 군비증강은 전쟁에이르는 추세임이 역사에 의해 밝혀지고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면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北半球의 인구5만이상 도시는 모두 파멸할것이고시골주민들도 대다수가 방사능 피해로 사망하며 남반구인구는 방사성낙진으로인해 광범한 지역에서 인명피해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인류의 일부가 핵전쟁에서 살아남더라도 방사능및 방사성낙진으로 끼칠 유전학상의 영향은 예측불가능한것으로서 아무도 인류의 생존 가능성을 장담할수없다고 지적했다.

土星環에 강력한電光

百~1千메가와트程度 電力

【패사디나(캘리포니아州)31日AP=聯】美우주탐색선보이저2호가 보내온 정보를분석한 결과 土星의 中間環 두번째 층에 지상의 어떤 전류보다 1만배정도 강력한 번쩍이는 電光이 나타난것으로 밝혀졌다. 패사디나 제트추진연구소의 전파천문학자 조셉·로미그씨는 보이저2호의 전자감응장치에 포착된 이강력한 電光은 육안으로는 관측할수없으나 1백~1천메거와트정도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소의 전문가들은 土星상공10만㎞고도에서 발생하는 이들 電光이 지상의 관측자들에게 검은띠로 보였던 정체불명의 橫斷光線의 성격을 구명해줄 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제의 電光이 中間環속의 미립자들이 상호자기작용으로 형성되었으며 이環의 밝게보이는 부분은 일종의 철분으로 구성돼 쉽게 磁氣化할수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중국식 만찬에 초대된 카터前美 대통령부처。【新華社전송사진=AP】

中共、美 退職 高位관리에

융숭한 國賓대접

前美 대통령 지미·카터씨는 즐거웠던 10일간의 중공여행을 끝내고 3일 다음 여행지 일본으로 향한다.

1949년 중국대륙에 共産정권이 들어선이후 30년간 敵國관계로 이어져왔던 美ㅡ中共관계를 다정한 친구사이로 완전히 正常化한 카터였기에 그의 이번 첫 중공방문은 더욱 감회가 깊었던 것이다.

옛친구를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中國의 美德을 간직하고있는 중공사람들은 카터의 방문에 극진한 國賓대접을 했다.

부인 로절린여사, 아들칩, 딸 애미및 조디·파월前백악관대변인등을 대동한 카터는 24일 北京에 도착, 趙紫陽총리및 최고실력자 鄧小平부주석의 영접을 받고 古都西安을 비롯, 徐州, 上海등을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카터부처는 北京에서도 조깅을 거르지않았고 만리장성등 고대중국유적을 관람하는 동안 환영나온 인파에 싸여 시종 흡족한 표정이었다.

카터일행엔鄧·趙영접

兩國利益에 서로이용

「西方政策」영향…「두中國」마찰완화 속셈

카터의 중공방문은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중공은 공직에서물러난 세계각국의 지도자들의 訪中을 반가이 맞아왔다.

전직 미국 대통령의경우만 따져보아도 76년에 닉슨이 중공을방문했고 금년3월에는 포드가訪中했으니 카터까지 세명이 중공을여행했다.

중공을방문하는 서방의 전직고위관리들은 대부분 재직시 중공에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폈던 인물들이다.

美·中共관계정상화의 초석을 마련했던 닉슨이나 日中共관계정상화를 이룩했던 다나까 前일본수상등은 치욕스럽게 공직에서 물러났음에도불구하고 현직때에 못지않게 중공정부로부터 환대받았다.

美·中共수교를 이룩했던 카터행정부때의 美고관들도 그동안 줄줄이 중공을다녀왔다. 지난 5월이후만 보아도 브레진스키 前백악관 안보담당보좌관을 비롯,슐레진저前에너지장관, 블루멘덜前재무장관, 버글런드前농무장관, 홀브루크前국무성 亞太담당차관보등 8명이 중공을방문했다.

이들은 대부분 전직의 후광을업고 현재 종사하고있는 사업체의 이권을 따내기위한 로비활동을벌여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둔것으로알려졌다.

중공은 서방측의 눈으로보면 과분할정도의 예의를갖춰 서방의 전직고관들을 대접하고있다.

닉슨、포드、카터등 전직대통령을 華주석이나 수상등이 만나주고 환영만찬을 베푸는 것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난3월과 5월 두차례나 北京을 방문했던 홀브루크까지 鄧小平이 직접만나주며 귀빈대접을 해준것은 확실히 이례적이다.

일부 서방평론가들은 중공의 이같은 전직고관환대는 이들을 이용, 서방의 對中共정책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의도때문이라고 보기도한다.

하지만 전직고관들을 중공에 보내 무언가에「이용」하려는 생각은 미국도 가지고있다. 이번 카터訪中을 두고는 對대만무기판매에 대한 중공측의 反感을 누그러뜨리려는 레이건행정부의 속셈이 깔려있다는추측이파다하다.

또 지난3월 訪中한 포드는 鄧小平、趙紫陽과 연쇄회담을갖고 레이건행정부 등장이후 두개의 中國문제를 둘러싼 양국간의 마찰을 완화하기위한 레이건의 친서를전달했다. 76년 닉슨의 중공방문때도 美·中共유대강화를위해 국무성이 닉슨의 中共行을 간청했다는說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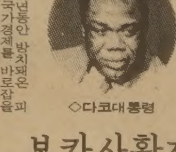
카터는鄧小平과 오찬을나눌때『만일 귀하가 나와함께 러닝·메이트가 되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이길수있었다』며 조크를 던지기도했다.

10일간의 중공여행을 통해 카터는 분명 美·中共국교정상화는 옳은방향이었으며 좋은친구인 중국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져야한다는 생각을 굳혔을것이다.

바로 이것이 중공이바라는 바요, 환대의「목적」이다. 【朴永赫기자】

佛입김에「權座」뒤바뀐다

初代대통령 다코 두번째실각


◇다코대통령

첫번짼 보카사황제가 축출

非常事態선포 佛의 미움사

軍총사령관、미테랑에改革압력요청

1일의 무혈쿠데타로 축출된 다비드·다코대통령(51)은 1960년 드골대통령의 프랑스로부터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독립한이래 1966년 보카사황제에 의해 失權할때까지 초대 대통령으로 통치했었다.

소박하고 ,호감을 주는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인기를 얻었던 다코는 국가경제를 튼튼히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위해 많은 내핍정책을 실시했으나 소기의 성과를 보지못했으며 이로인해 당시軍최고사령관인 보카사가 정계에서 은퇴한지 10년만에 보카사의 개인보좌관으로 임명된 다코는 79년9월20일에 프랑스공정대의 지원을 받아 보카사를 축출하고 권좌에 복귀했다.

그러나 그는 보카사에의해14년동안 방치돼온 피폐한 국가경제를 바로잡을수있는 힘이 없었다.

다코 대통령은 정치·경제불안에 따른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7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한편 모든 정당활동을 금지시킨바 있는데 이같은 강경조치들은 프랑스와·미테랑 대통령의 프랑스정부의 불만을 사왔던것으로 알려졌다.

미테랑 대통령은 특히 다코 대통령의 주요政敵인 앙지·파타스前首相과 친밀한 관계를유지해왔다.

파타스前수상의 지지자들은 최근 미테랑 대통령에게 中央阿共에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해서라도 다코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킬 것을 요구해왔으며 미테랑 대통령자신도 지난7월 다코 대통령이 내정개혁을 펴지않는다면 경제원조를 중단할것임을 시사한바있다.

프랑스외무성은 다코대통령이 이날 친필서한을 방기주재 프랑스대사에게 보내『건강상의이유때문에 정권을軍에 이양한다』고 통보해왔다고 확인했다.

샤를르·앙뉘 프랑스국방상도 中央아프리카共和國의 쿠데타소식을 확인하면서『나는 방기에서 일어나고있는 일이 權力이양의과정으로 생각한다』고 논평하면서 이번사태는『그나라의 내정문제일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中央阿共에 주둔한 1천6백명의 프랑스軍병력이 그들의 병영내에 머물러있도록 지시됐다고 전했다.

쿠데타를 주동한 군총사령관 앙드레·콜링바장군은 방송을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中央阿共이 지난 6개월간『민주주의와 성·명예·권리를 교란하는 일련의 무분별한 행동이 빚어져 극도의 혼란을 빚어왔다』고 비난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인구 약4백만으로 아프리카 중심부에 위치한 국가이다.

카메룬、콩고、차드、수단、자이레등 5개국에 둘러싸인 이국가는 광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年間개인소득이 2백10달러에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이다. 【파리1日=聯】

사진촬영대회 시상식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열린 제6회 사진촬영대회 시상식이 다음과 같이 거행되오니 당일 대회 참여자는 물론 많은 사진애호가 교민들이 참석하셔서 사진을 감상하시고 좋은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시상자 명단은 이날 현장서 발표됩니다.

때 : 1981년9월19일(토) 하오7시

곳 : 한인회관(20 MOBILE DR. TORONTO ONT)

한인사진협회
한국일보사 드림

DIPPER DAN ICE CREAM SHOPPES

DIPPER DAN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아이스크림회사로서 일본·미국등 350개의 Franchise가게를 갖고 있읍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20,000달러의 돈을 투자함으므써 아이스크림 비즈네스에 성공을 기약 할 수 있읍니다

더 이상의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675-8930으로 전화하십시요

DIPPER DAN
240 HUMBERLINE DR.
REXDALE, ONTARIO
TEL. 675-8930

논밭도 市街地도「南쪽 바다化」

◇풍랑피해 車道에 끼어든 遊覽船 풍랑을 피하기위해 유람선 1척이 차도위에 끌어올려져있다。【釜山松島】

◇家財 하나라도 더… 집안과 도로가 온통 물바다를 이룬木浦시내 저지대의 한때。한주민이 허리까지차는 물속길을 뚫고 집안에서 가재도구를 머리에 이고 나오고 있다。【木浦=임시취재반】

◇車도 사람도 물道路로 폭우로 침수된 沙上공단입구。공단의 직원들이 물속을 걸어 출근을 서두르고 있다。【3일상오=임시취재반】

◇헬機로 救助되는 이재민들 폭우로 고립된 전남昇州郡松光面洛水里주민 36명과 국민학교교사2명등 38명이 3일상오7시께 전남도경 헬기에 의해 구조되고있다。【光州=聯合】

流星의 賦 〈175〉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山空花自紅 ㉕

묘한 긴장감이 도는 시간이었다。

바깥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장지문이 열렸다。하인으로 보이는 사람 둘이 큼직한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그런데 그것은 밥상이라고 하기보다 요릿상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지 몰랐다。

하인 하나가 아까 이영이 앉아 있던 자리로 옮기라고 계남에게 권했다。

계남이 사양하자

『나으리께선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이리로 앉으셔서 잡수시오』

하며 권하는 것이었다。

계남은 어리둥절했다。이영이 떠났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다。계남이 좌정하자 하인들은 바깥으로 나갔는데 그들이 나간 얼마 후 예쁘게 치장한 처녀가 하녀를 앞세우고 방으로 들어섰다。하녀는 술병을 얹은 쟁반을 들고 있었다。이윽고 하녀는 나가고 처녀가 계남의 오른편 상머리에 앉아 나붓이 절을 하고 술병을 들었다。계남이 잔을 내밀지 않을 수 없었다。처녀가 술을 따랐다。

남끝동을 단 하얀 모시 저고리에 쪽빛 숙고사의 치마를 입은 처녀의 얼굴은 하늘거리는 촛불에 연연한 옥같처럼 맑고 아름다웠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었더란 말인가)

계남은 울렁거리는 가슴을 진정하고 관찰한 결과 처녀의 얼굴이 이영의 얼굴을 영판 닮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데 이렇게 아름다운 처녀를 어째서 불쌍하다고 하고 나 같은 놈에게 맡기려고 하는걸까)

계남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다。

한데 술맛이 그만이었다。아직껏 이런 술을 마셔본 적이 없었던 터라、마음의 불안을 덜기도 할 겸 거푸 대배(大杯)를 다섯개쯤 비웠다。

처녀는 비어버린 술병을、젓가락으로서 두세번 두드렸다。장지 바깥에 대기하고 있었던 모양으로 아까의 하녀가 다른 술병을 들여놓았다。

계남은 다시 부워주는대로 술을 마셨다。그래도 정신이 말짱한 것은 계남이 워낙 술에 강한 탓도 있었지만 풀리지 않는 긴장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계남이 말문을 열었다。

『내가 왜 이처럼 융숭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그까닭을 얘기해 주실수 없읍니까』

처녀는 다소곳한 미소를 띤채 말 없이 고개를숙이고 있었다。

『내 이름은 송계남입니다。아가씨의 이름을 알고자 하옵니다』

해도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남녀가 유별한데 이름을 모른다는건 실례인줄 아옵니다만、이렇게 같은 방에 단 둘이 있게 되었으니 통성명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계남이 이렇게 말했을 때 처녀는 대답대신 젓가락을 들어 술병을 두번 두드렸다。장지 밖에서 말이있었다。

『아가씨의 이름은 숙낭이라고 하옵니다。맑을숙、낭자 낭으로 쓰옵니다』

그말과 함께 처녀는 얼굴을 붉혀선 보일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다。순간

(벙어리)

란 생각이 계남의 뇌리를 스쳤다。

바깥에서 다시 말이 있었다。

『아가씨는 어렸적 약을 잘못 잡수시어서 말을 못하시게 되었아옵니다。그러나 나면서의 벙어리와는 달리 들으실줄은 아옵니다』

노점상 할머니

저녁 장을보러가면 시장 모퉁이에 할머니 한분이앉아 고추나 감자들을 팔고 있다。노점상치고도 너무 초라하고 물건도 보잘것없어서 사람들의 발걸음이뜸하다。단돈 백원어치를 팔릴까 싶지않다。나는 그동안 단한번도 그 할머니의 노점을 이용한적이없었다。

그러던 내가 할머니의단골이된것은 참으로 우연한 기회에서다。장마가 계속되던 어느날、하수도가 넘쳐흐르자 사람들은 다른길로 빙돌아서 시장을 다니게 되었다。불편함이 여간 아니었다。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돌다리를 놓을생각을 안했다。

그런데 그날 시장에 가다보니 바로 그 할머니가 무거운 돌과 벽돌들을 끙끙거리며 주워다가 돌다리를 놓고 있지 않은가。60도 훨씬 넘었을 할머니가혼자서 말이다。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사실은 시장상인들이 고객들을 위해서라도 솔선해서 징검다리쯤 놓아야 할텐데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일을 그 할머니가 혼자서 해냈던것이다。

비록 시장 모퉁이에서초라한 행색으로 노점을 보는 가난한 할머니였지만 그마음만은 초라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았다。

그때 할머니의 이타행(利他行)을 본 이후로 나는 그 할머니의 단골이 되었던것이다。

【김병주·서울시영등포구 도림2동 162의94 박명수씨댁】

女子의마음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張吉山 (1641)

黃晳暎 作
崔然石 畵

一部 四章 彌逆勒謀 (101)

초여름에 접어들었건만 작년에 이은 금년도 흉황이어선지 그 번잡하던 파주 문산포도 한산하였다。더구나 며칠째 궂은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서 임진나루에는 배를 타고 건너는 도강객마저 뜸하였다。이경순은 안채의 사랑에서 미닫이를 열어두고 마당에 떨어져 몰려 내려가는 빗물을 내다보고있었다。그의 객점은 문산포에서 가장 크고 자리도좋았다。마방이 바깥쪽에 십여간 짜리가 달려 있었고 안으로는 술청과 봉로가 길게 연이어 있었으며 다시 살림집과의경계에는 광이 수십간 지어져 있었다。살림집은 안방 건너방 마루가 달린 본채와 뒷마루에 널찍한 방 둘이 붙은사랑채의 두 초가로 이루어져 있었다。그리고 살림집 뒤곁에는 풀무간이 있었는데근년에는별로 작업을 하지않아서 찬광으로 쓰고 있었다。전에는 풀무간에서 일하던 연철장 수철장의 숙수와 조역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안나오는지 오래였다。중노미 하나와 세마 놓을때 따라가는 마부 두엇이 봉놋방에 기거하였고 이제는 훤칠한 청년이 된 송파장의 깍정이장쇠가 실제 객점주나 다름없었다。

장쇠의 어미는 아들과함께 묘옥을 따라와 이 문산포 주막에서 살다가 이년 전에 저승으로 떠났던 것이다。전생이는 집에 붙어있는 날보다도 솔부리에 나가거나 양주를 나다니는 일이 많아져서 이경순의 사랑채 아랫방은늘 비어 있었다。어린아이의 키득거리는 웃음 소리가 마당 저편에서 들려오고 있었다。이경순은 곰방대를 입에서 뽑으며 바깥채에다 대고 외쳤다。

『우리 여문이 거기 있느냐?』

대답 대신에 깔깔대는 아기의 웃음소리와 함께 묘옥이 나타났다。묘옥은 서른의 나이에도 처녀처럼 가녀린태가 있어 보였다。객점 주인의 아낙답게 수수한 검은 무명 치마에 흰 저고리 입고、머리는 댕기없이 바짝 땋은 얹은 머리를 하였는데、비록 창기생활을 보내고 사당까지 했으나 안색은 말끔하고 청수해 보였다。다만 눈가에 어린 푸른기와 가늘게 이어진 눈꼬리에 비친 방금 울고 난 뒤와 같은 그늘은 지워지지않고 남아 있었다。묘옥은 아이를 업고는 제 등 뒤에 우삼(雨衫)을 쳐들어 비를 가리고 있었다。기름먹인 우삼에 떨어지는 빗소리며제 어미가 가끔씩 우삼을 들치며 고개를 돌려 깜짝 놀릴 적마다 아이는 까르르 웃곤 하는 것이다。

『어허、그러다 고뿔이라두 걸리면 어쩔려구 그러오』

이경순은 잠시 안채 마당으로 들어서서 처마 밑과 한데를 들락거리는 묘옥에게핀잔을 주었다。

『요것이 선잠을 깨고는 어찌나 밖에 구경나가자고보채던지。장쇠 삼촌이 한참을 데리구 놀았다우』

『어서 이리루 들어 오라니까。어서…』

이경순은 애가 타 두 팔을 벌리며 애소하듯 말하였다。

『어이구、여문아 느이 아부지 숨넘어 가신단』

묘옥은 아이를 어르느라 상기된 얼굴에 피식 웃음을 떠올리고는 마당을 건너왔다。묘옥은 툇마루에서 얼른 우삼을 젖혔고 이경순은 어미의 등 뒤에서 무우를 뽑듯이 아이를 훌쩍 끄집어 올렸다。아이는 이경순에게로 옮겨가자 곧장 상을 찡그리더니 울음을 터뜨렸다。이경순은 은근히 부아도 나고 아이를 놓기는 싫어서 제딴에 달랜다고 이상스런 혓소리를내면서 얼굴을 갖다 비벼댔다。수염이 따가운 아이가 더욱 크게 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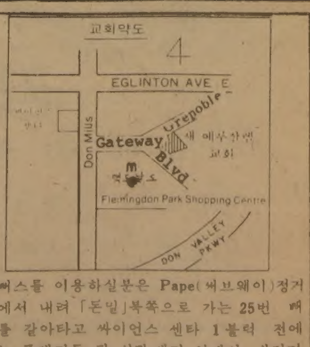
고포특별우대…언제든지 20%할인…남자용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 오 선물쎈터
TIE CITY Square One 275-2187 Burnhamthorpe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606 Bloor St. Yonge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869-0589 King St. Bay Yonge

새 예루살렘 신앙특별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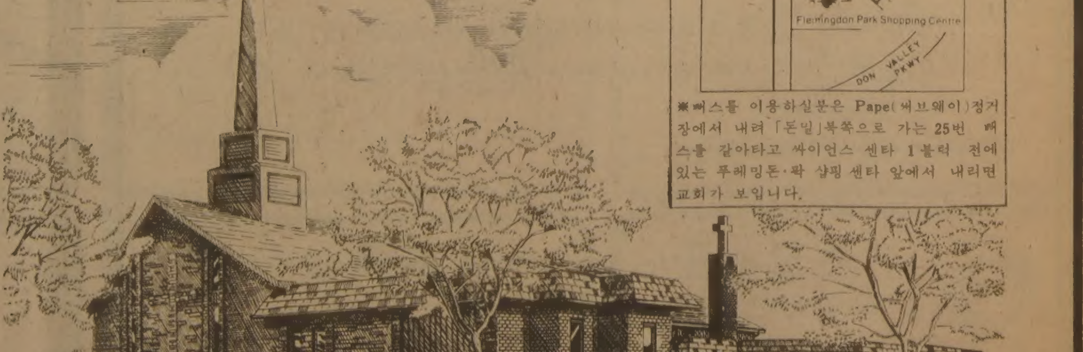
강 사 : 안 이 숙 선생
「죽으면 죽으리라」및
「죽으면 살리라」의 저자

일 시 : 9월10일(목)오후7시30분
11일(금) 〃 〃
12일(토) 〃 〃
13일(일)오후2시
※청소년을 위한 영어설교
12일(토) 오후1시

장 소: 새 예루살렘교회
5 GRENOBLE DR., DON MILLS
담임목회자 김 승 환



※뻐스를 이용하실분은 Pape(써브웨이)정거장에서 내려「돈밀」북쪽으로 가는 25번 뻐스를 갈아타고 싸이언스 센타 1블럭 전에 있는 푸레밍돈·팍 샵핑 센타 앞에서 내리면 교회가 보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Korean New Jerusalem Pentecostal Church
5 GRENOBLE DRIVE, DON MILLS, ONTARIO M3C 1C3 TEL: 429-1430

颱風방향 南部 3일째 豪雨

嶺·湖南·濟州피해 계속늘어

海溢·폭풍우…물바다 교통마비

한반도를 횡단하게될지, 대한해협위로 빠져나갈지 진로가 분명치 않았던 제18호 태풍 애그니스가 3일 하오쯤 우리나라 남해안을 통과할것이 확실해짐에 따라 제주도, 전남, 경남일대는 다시 초비상에 들어갔다。2일밤 라디오와 TV의「대한해협 통과설」로 다소 마음을 놓았다가 태풍이 지그재그로다시 북진하게 되자 초조와 불안이 되살아난것이다。그러나 영향권 5백㎞의 애그니스는 이미 연3일째 한반도남쪽에 집중호우를 뿌려 적지않은 피해를 내고있어 앞으로 피해를 어떻게하면 더 줄일수 있느냐가 관심사가 아닐수 없다。

木浦 최대의 暴雨…3천여棟 침수
南海岸 선박파괴·農耕地유실 늘듯
死亡·실종8명…全國被害 2억여원

湖南 서남해안지역주민들은 1일과 2일 내린폭우로 엄청난 피해를입은데다 3일상오에는 애그니스가 木浦지방으로 상륙할것같다는 木浦측후소의 예보에따라 다시 초긴장상태다。2일하오2시현재 木浦시내와 新安郡관내의 도서지방에는 각각 3백16㎜와 3백10여㎜의 폭우가내려 큰재해를 냈는데 新安郡의 경우 31일밤과 1일새벽사이에 해일과 폭우가겹쳐 小黑山島항만 축조공사장 화약창고 2동과 부속건물등이 전파되고 기초부분이 마무리된 방파제1백25m가 유실돼 20여억원의 피해를냈다。

또 黑山島에 내린 폭우로 가옥2동이 전파되고 7동이 반파됐으며, 해조처치선11척이 전파또는 반파됐다。

木浦지방에는 木浦측후소가 개소된 1904년이래 처음으로 하루강우량으로는 최고인 2백24.5㎜의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비로 木浦시내에는 3천여동이 침수됐고 2천여명이 대피했으며 시내간선도로도 한동안 침수돼 교통이 마비되는 물난리를 겪었다。

1일내린 집중호우로 이날상오8시20분께 木浦市 溫錦洞27 이영수씨(68)집에세든 산모 崔英淑씨(25)가 뒷산에서 무너져내린 흙더미에 깔려 숨졌다。

또한 木浦항에는 연3일째 어선·연안여객선등 6백30여척이 발이묶여있고 시내곳곳에는 하수시설의 미비로 물이 거꾸로치솟는등 시내전체가 물바다를 이루었다。

木浦의경우 3일 만조시간이 상오5시44분으로 태풍중심권에 들게되는 시간과겹쳐 木浦항주와 인근상가까지 해일의 우려가있다는 木浦측후소측의 예보에따라 이일대의 비상복구대책도 마련했다。

木浦측후소 예보에 따르면 3일상오까지 木浦지방에는 4백여㎜의 비가 내릴것으로 예상된다。

嶺南 嶺南재해대책본부요원들은 애그니스가 진로를 바꾸고 약화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2일밤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했는데 애그니스가 진로를 바꾸어 영남일대를 강타할것이 예상되자 다시 총비상상태에 들어가 필사적인수해대비를 하고있다。

2일상오에 집계된 경남지방의 태풍피해는 농경지침수 2천4백15㏊, 도로유실6개소, 선박피해4척, 건물파괴 2동등 모두 2천4백68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것이나 대책본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위험물을점검해주도록당부했다。

유실된 도로중 3개소는 이날 상오10시 현재 소통이 재개됐으며▲昌寧郡 南旨읍 漆峴里앞 5백50m▲昌寧郡 釜谷面飛孔里앞 3백m▲密陽郡 武安面 城德里앞 2백m등 3개소는 비가 오지 않으면 3일상오 10시부터 소통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統營郡欲知面 老大里남우섬등 3곳에서 낚시를하다 태풍으로 고립됐던 忠武市 西湖洞1의1 심채정씨(54)등 12명이 긴급출동한 경찰관 6명에 의해구조됐다。도당국은 주민·공무원등 7천9백명의 인원과 그라인더 4대 덤프트럭 7대등 중장비 15대로 긴급복구반을 편성,만일의사태에대비했다。

濟州 태풍이 제주남서해상에서 계속 주춤거림에 따라 제주도일대는 2일 상오11시현재 전국에서가장많은 3백90㎜이상의 비가퍼부었고 최대풍속 29m(초속)의 강풍이 몰아치는등피해가가장많다。

2일 새벽5시께 제주변전소의 전기인출장치가 강풍에 고장이나 상오10시께까지 제주전역에 한때 송전이중지되었다。

한편 태풍이 북상함에따라 제주도내 항구에는 제주근해에서 조업중이던 자유중국어선들이 속속대피,입항하고있어 2일현재 1백15척의 어선들이 몰려들었다。

災害대책위 集計

제18호태풍 애그니스의 영향으로 9명의인명피해와 2억7천7백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일상오6시현재 중앙재해대책본부집계에따르면 인명피해는 사망1명 실종7명 부상1명등이다。

재산피해내용은 건물1동▲선박22척▲농경지 2백16정보▲도로8개소 5백16m▲하천4개소 1백23m▲항만8개소▲어항5개소▲수리시설2개소등이 파손·침수 또는 유실됐다。

◇바닷물에잠긴 影島區 공장지대 방파제를 넘어 쏟아져들어온 바닷물로 물에잠긴 부산 影島區南港洞의 공장지대。공장직원들이 크레인으로 복구작업을 하고있다。

◇폭우가 쏟아진 木浦중심가。빗물이 빠지지 않아 깊은 곳은 사다리와 장대로 막아 통행을 막고있다。

漢江 경계水位(8.5m)육박

春川등 5개댐 水門열어

漢江수위가 2일하오6시현재 8.09m까지 올라가 경계수위8.5m에 점점 육박하고있다。

강원,충북,경기지방에내린 폭우로 南·北漢江수계에있는 5개댐(春川·華川·衣岩·淸平·八堂)의 수위가 만수위에 달해 거의 모든수문을 열고 수위조절을 함에따라漢江수위가급격히높아지고있다。

北漢강 최상류의▲華川댐은 2일상오9시 수위가 1백80.69m로 만수위 1백81m에 바짝 접근, 수문16개를 모두 열어 초당 4천9백톤을 방류하고있으며 春川댐은 만수위 1백3m에 수위가 1백2m에 이르자 수문12개를 열어 초당 6천2백76톤을 흘려보내고있다。

▲衣岩댐은 수위가 70.3m(만수위71.5m)로 수문14개중 11개를 열어 초당 6천9백8톤▲淸平댐은 수위가 49.7m(만수위 51m)로 수문24개중 23개를열어 초당 7천9백8톤▲八堂댐은 수위가 24.8m(만수위25.5m) 수문15개중 14개를 열어 초당 1만4천5백84톤을 각각 방류하고있다。

한강수력발전소측은 北漢강상류에 초당 7천7백11톤의 물이 유입되고있어 앞으로 3일은 계속 수문을 열어 수위조절을 해야될것이라고 밝혔는데 5개댐의 수문을 이같이 한꺼번에 열어놓은것은 지난71년 여름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颱風 피해지역 休校·수업단축

文敎部 指示

문교부는 2일 각시도교위에 대해 태풍진행상황을 면밀히 주시,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휴교 또는 수업단축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시달했다。

문교부는 또 지난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실시키로되어있는 고입및 대입체력검사도 지역실정에 따라 적절히 연기토록 지시했다。

海外스포츠話題

投手보다 1루수高額

메이저리그 選手는 얼마나 버나

평균 14萬弗線…1루수는 28萬弗

公表額은 과장…据置拂등 복잡

메이저리그 야구선수들의 봉급은 천차만별이다。팬들의 입에오르내리는 유명선수들의 봉급은밀워키 브루어스팀의 피처 피트·버코비치처럼 연 60만달러 (한화약4억2천만원)에 달할정도로 엄청난가하면 일반에 널리 알려져있는것과는 달리 별로 많지않은경우도 있다。봉급액수의 다과뿐만아니라 지급방법또한 여러종류가 있다。이같은 메이저리그선수들의 봉급수준과 지급방법을살펴보자。

뉴욕 메츠팀의 피처 크레그·스완은 양키팀의 스타 론·기드리보다 두배이상의 봉급을 받고있다。밀워키 브루어스팀은 로빈·얀운트선수에 3.5%의 저리로 40만~70만달러의 돈을 빌려주고있다。필라델피아 필리스의 개리·매슈즈를 대표하는 대리인은 11만6천7백50달러의 봉급을 받아내고있다。배리·푸트선수의 아내는 1만달러의 하비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세상에 알려진 선수들의 봉급과 실제로 수령하는 봉급사이에는 차이가많다。이는 봉급지불을 뒤로미루는 이른바「거치 봉급」을 받기때문이다。거치봉급 이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야구선수들의 봉급계약은 가장 야릇하고 복잡한것으로 알려져있다。

야구선수들의 평균봉급은 10년전에 3만1천5백43달러였다가 5년전에 5만1천5백1달러로 오른 다음 현재는 14만3천7백56달러에 이르렀다。

지난 77년 연봉 5만달러를 받았던 브루스·서터는 금년 시즌경기에 97만5천달러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파이러트팀의 데이브·파커는 79~83년까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30만달러의 기본봉급을 받고있다。정규봉급 이외에 그는 계약당시 62만5천달러의 계약서명 보너스를 받았으며 오는 1990년~2010년 사이에 5백62만5천달러의 거치봉급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거치봉급까지도 5년계약에 따른 봉급에 가산하여 계산한다면 파커의 연봉은 1백50만달러인 셈이나 사실은 거치봉급을 받게되는 10년뒤의 달러가치를 미리추산할수없기때문에 거치봉급을 미리 포함시켜 봉급을 계산한다는것은 정확한것이 아니다。

뉴욕 포트·체스터의 공인회계사 어빙·마크스는 파커선수의 봉급계약을 다음과같이 풀이하고있다。『내가 파커의 고용자로서 79년 파커와 계약당시 1백만달러를 10%의 이율로 예치시켜 놓았다면 연평균28만1천2백50달러씩 20년간 모두 5백60만달러를 파커에게 지불할수있다。20년뒤에는 아직도 1백34만8백11달러가 남기 때문에 거치봉급은 실제로 5백60만달러가 아니며 전체계약에 드는비용은 약1백82만5천달러에 지나지 않는다는 계산이 서게된다』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개리·매슈즈는 아틀랜타·브레이브스팀과 지난77년 5년 계약을 체결하고 연봉 10만달러를 받고있으며 12만5천달러의 계약서명 보너스와 특별투자수당도 받았다。특별투자수당은 처음에 3만달러였다가 매년 1만달러씩증가, 이번 시즌에 7만달러가 됐다。

그는 또한 매월 7천5백달러의 거치봉급을 60개월간 받는 이외에 시즌과 시즌사이의 봉급으로 주 2백50달러를 받고 있다。이모든 계약조건에 따라 브레이브스팀은 매슈즈 대리인에게 직접 11만6천7백50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공인회계사 마크스는 또한 매슈즈의 봉급을 분석, 총계약금이 1백17만2천달러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이보다 16만7천달러가 적은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매슈즈는 지난봄 필라델피아 필리스팀으로 옮긴뒤 봉급이 인상되었다。

야구선수들의 계약조건은 보편적인 가치판단 기준이나 선수들의 전적이 항상 고려의 대상이 되고있지는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예를 들면 양키팀의 론·기드리와 메츠팀의 크래그·스완은—경기전적과 봉급액수가 상반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승79·패29의 기드리는 연봉23만3천7백91달러를 받는가하면 승45·패54의 나쁜 기록을 가졌을뿐아니라 경기중 부상을 잘입는 스완은 연봉 62만5천 달러를 받고있다。

한편 메이저리그 야구선수들의 연평균 봉급을 포지션별로 살펴보면 별표와같다。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투수들이 가장 많은 봉급을 받을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연평균 봉급을 포지션별로 살펴보면 피처는 17만3천4백달러로 가장 뒤떨어진다。흔히 투수와함께 팀의배터리라는 포수역시 홀대를 받고있는 느낌이다。

19만3천7백79달러로 피처·2루수에 이어 저소득 랭킹 3위이다。

가장 많은 봉급을 받는 포지션은 의외로 1루수이며 28만달러가 넘는 액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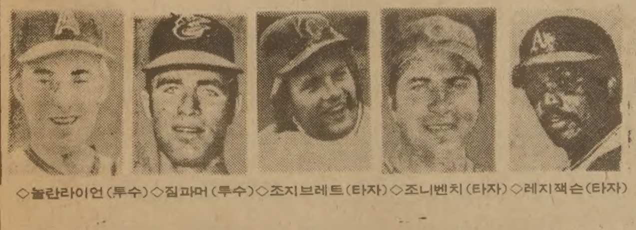
릴리프투수와 지명타자는 11만3천여달러, 15만4백달러로 정해진 포지션을 가진 선수보다 훨씬 적은 봉급을 받고있다。【로스앤젤레스支社】

◇메이저리그가 오랜 휴식끝에 경기를 재개하자 갖가지 화제가 만발하고있다。리그재개를 계기로 야구선수들의 봉급내역이밝혀지고있다。

포지션별로 본 연평균 봉급액

(단위 : 달러)

피처	17만3천4백달러
캐처	19만3천7백79 〃
릴리프피처	11만3천2백52 〃
1루수	28만2천8백33 〃
2루수	18만9천1백79 〃
3루수	20만2천8백33 〃
유격수	20만1천9백 3 〃
외야수	23만2천1백63 〃
지명타자	15만4백29 〃



◇놀란라이언(투수)◇짐파머(투수)◇조지브레트(타자)◇조니벤치(타자)◇레지잭슨(타자)

안 바레인을 비롯 6개국을 순방한 韓相國부회장은『東南亞국가는 물론 친北傀경향이 짙은 쿠웨이트·리비아등 아랍국들이 모두 北傀의 초청을 거부한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하면서『日本과 中共은 ATTU집행위원국의 입장에서 체면을 유지하기위해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韓부회장은 특히 아랍국가들은 서울오픈 국제 탁구대회 참가를 비롯, 최근 韓國에서 있은 전지훈련과 친선경기를 갖고 韓國탁구의 실력을 인정하고 있기때문에 平壤대회에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臺灣 IOC委員 曺회장초청 來韓

自由中國의 헨리·슈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 曺相鎬체육회장의 초청으로 내한한다。

슈위원은 10일까지 머물면서 오는 88년의 올림픽대회 유치신청을한 서울시의 체육시설을 비롯 숙박·교통시설등을 돌아볼 계획이다。

광고문의
533·2361

목돈 만드는 신용적금

공　　고

임시총회　안건 : 정관개정

온타리오 신용조합법 제72조및 73조3항에 의거 조합원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때 : 1981년9월11일(금요일) 오후7시

곳 : 한 인 회 관
20 MOBILE DR. TORONTO, M4A 1H9

의　제 : ① 출석호명 또는 등록
② 정관개정(개정안은 본 조합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음)
③ 폐　회

※회의 참석시 통장을 지참 혹은 구좌번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돈 주는 적금대출

=부 흥 성 회=

한인침례교회

720 OSSINGTON AVE. (AT BLOOR ST. W)
531-7604(교회), 533-1377(자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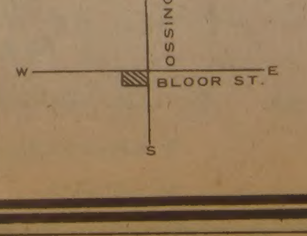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교민여러분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본 교회에서는 대전제일성결교회 목사님이시며 신유의 은사를 받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구원의 확실한 길을 제시하여 주시는 이형구 목사님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흥성회를 갖고자 하오니 오셔서 육체의 질병을 고침 받으시고 마음의 위로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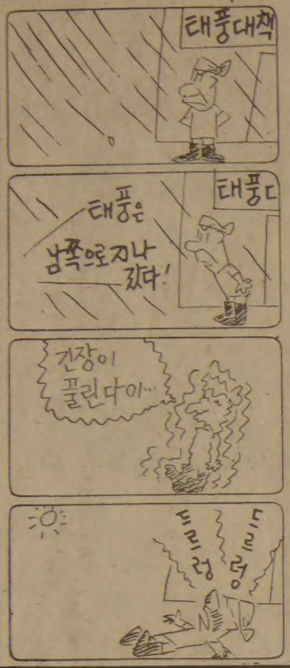
담임목사 홍 신 웅

— 아　래 —

강　사 : 이형구 목사(대전제일성결교회)
일　시 : 1981년9월11일 저녁8시
〃 12일 〃
〃 13일 〃
장　소 : 한 인 침 례 교 회



두꺼비 안의섭



한국文化 海外소개 20년

英文月刊誌 코리아·저널 創刊20周年

한번의 缺刊도 없이 2백41號

韓國學연구 충실한 길잡이役

◇이번 9월호로 창간20주년을 맞는 Korea Journal誌。㊧는 창간호, ㊨는 20주년 기념호。

百55개國에 배포…共産圈서도 큰關心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발간하는 英文月刊誌 「Korea Journal」이 이달로써 창간20주년을 맞았다。코리아·저널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한국의 문화전통과 창작예술활동 및 국내에서 이루어진 학문적인구업적의 해외보급과 소개를 목적으로 지난61년 9월 창간호를 낸이래 지난20년동안 단한號의 缺刊도없이 계속 발간돼 이달로써 通卷제2백41호를 발간하기에 이른것。

특히 코리아·저널은 우리나라에서 한기관에의해 외국어로 발행된 정기간행물 가운데 20년의 연륜을 기록하기는 처음이라는데서 「한국소개20년」의 업적이 높이 평가되고있다。

코리아·저널의 업적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업적은 유네스코가 지니고있는 범세계적인 지식정보교류망을 통해 널리 보급됨으로써 해외에서의 한국학연구에 길잡이 구실을 해왔다는점이다。

현재 코리아·저널의 한달 발행부수는 3천5백여부。이가운데 7백부가 국내에서 소화되고 2천8백부가 해외로 배포된다。美貨 1달러로서 배포되는 나라는 세계 1백55개국 (8월말현재 유엔회원국 1백54개국)。월남과 북한을 제외,전세계각국에 고루 들어가고 있다。

지난20년동안 코리아·저널誌편집책임을 맡아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부장 白永吉씨(49)는 「한국문화의 해외소개」란 창간목적을 감안, 한국문학작품과 한국학관계논문을 주로 실었다고 설명하면서 반응이 좋을땐 일하는 보람을 느끼곤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코리아·저널에 실린 문학작품은 8백여편,그리고 한국학관계 논문은 7백여편에 이른다。문학작품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나누어 시·시조·가사·소설등을 골고루 실었다。한국학관계논문은 그달(月)에 이슈가 됐던 논문이라든가 세미나가운데서 한국학관계를 발췌했는데 번역진은 모두 국내의 권위자들에게 위촉,외국인에게 생소한 한국학의 이해에 도움이되도록 했다。

이밖에 시사논문도실었는데 창간호때 「한국의 민주주의는 가능한가」를 게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白永吉씨는 코리아·저널이 공산국가인 소련과 동독,유고슬라비아,체코등에서 상당한 관심이 되고있다고 밝히고 年前엔 체코의 한 학자가 缺本을 보내달라고 요청해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파리 국립도서관은 지금까지 한號의 缺本도 없이 완벽하게 이를 갖추어 인덱스까지 만들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는데 세계 각국의 유수한 도서관은 모두 코리아·저널을 구입,우선순위에서 제1위로 놓고있다고 설명했다。

코리아·저널의 체제는 2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겉표지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그림이나 문화재를 넣고있다。창간호의 표지를 보면 雲甫 金基昶화백의 「群馬圖」를 넣었으며 이번 20주년기념호에는 작고한 문화재 수집가 東垣 李洪根씨가 국가에 헌납한 문화재 가운데 朝鮮朝의 儒學者 金宏弼의 그림을 실었다。

한편 유네스코 사무총장 아마두·마타·므바우박사는 코리아·저널 창간2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므바우총장은 이메시지에서「코리아·저널 20년간의 성과와 업적에대해 큰자부심을 가져도 좋을것」이라고 지적하고 코리아·저널은 한국문화의 이미지와 예술적유산을 온세계에 널리 인식시키는데 큰공헌을 해왔다고 칭찬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코리아·저널 창간20주년을 기념, 이번9월호를 특집으로 펴내는한편 지금까지 실렸던 주요내용을 분야별·저자별·연도별로 종합정리한 索引集도 간행했다。

이번 20주년 특집호에는 「한국학연구의 現況」이라는 題下에 李基文 趙東一 金元龍 李光奎 千寬宇씨등의 글을 싣고있으며 東垣 李洪根씨의 컬렉션가운데 6점을 골라 컬러畵報로 설명과함께 특집으로 펴냈다。〔丁 기자〕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㊲

西大門경찰서에 수감된뒤 왜놈형사들은 밤낮으로 취조를 하면서 의도했던대로 사건이 엮어지지 않자, 모진 고문을 가하기 시작했다。日帝는 대상이 사회중진들인만큼 당시 倭警중에서 미와(三輪)구로누마(黑沼)와함께 악질로 이름높은 京畿道경찰부의 슈또(首藤)경부가 취조를 맡게했다。

나와 그리고 ML黨사건으로 7년복역을 하고나온 金俊淵과 呂運亨의 사돈인 교육자 李萬珪등 3명이 가장 혹독하게 고문을 당했다。

형사들은 「비밀결사를 대라」,「해외인사관계를 밝혀라」하며 수없이 각종 고문을 가했다。

소위 「海戰」이라는 물고문이 가장 고통스러웠다。목욕실로 끌고가 칠성판에 머리를 젖혀 눕혀놓고 두팔을 널판대밑에 묶어놓고 한놈은 배위에 올라앉고는 주전자나 양동이로 얼굴에 물을 들어부었다。물이 폐에 들어가면 숨이막혀 죽을 것 같으니까 연신 코로 삼키려고 발버둥을 쳐야했다。기절하면 인공호흡을 시키고 깨어나면 다시 시작이었다。

밤12시이후엔 지하실의 암실에다 달아매고 인일 고문을 했다。소위 「空中戰」이다。두팔을 등뒤로 묶어매 목총을 찌러넣고는 목총양끝에 밧줄을 매어 천장에 매달아놓는 것이다。그러면 어깨,팔다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줬다. 혼전하기 일쑤다。고문당하길 48회。海戰 空中戰 손가락비틀기 뭇매 손톱에 침넣기등 숱한 고문을 당하다보니 마지막에는 악이받쳤다。나라없는것이 너무나 원통했지만 내한목숨바쳐 國權회복에 一助가 된다면 차라리 죽는것이 좋다는 생각이 모아졌다。형사들도 마치 전쟁이나하

拷問의 連續

「海戰」「空中戰」등 갖은방법동원 취조

國權회복 信念으로 끝까지 굴복안해

듯 이불안돋고 밤낮으로 고문을했다。그들은 목사 교육자 지식인등 국내의 웬만한 지도급인사들은 모두대면서 관련자를 짚으라고 강요했다。기억하고있는 인사는 모두대라는 式이다。그러나 나는 얻어맞으면서『모르는 인물이다』『만난적도없다』고 잡아뗐다。그런데 이상한것은 그들이 내민명단중 YMCA연합청년회총무를지낸 S와 여성교육자인 K의 이름이 없지않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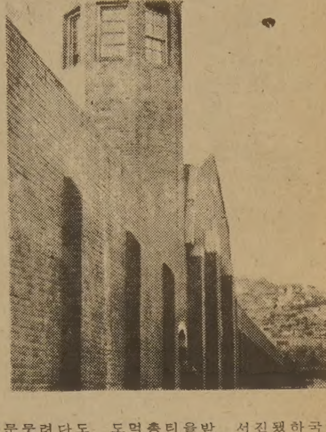
지방의 無名목사 교육자까지 마구 잡아들여 조사하는판에 흥업구락부와 관련있고 과거 汎태평기구에도 참석했던 그들의 이름이 빠져있는게 아무래도 이상했다。

날카롭기로 유명한 日警이 모를리 만무였다。

S는 당시 미국을 너무 자주 드나들면서 在美한국 교포사회에서나 본국의 일각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었다。나는 흥업구락부 제1주모자로 나를끌어 조사하는판에 둘의이름이 빠져있다는것이 이상해정략적으로 S와 K의 이름을 댔다。

그랬더니 취조하던 슈또경부가 붓을 놓고 날 잔뜩 노려보았다。그는 상관에게 보고하려는지 2층으로 올라갔다。

그사이 난 책상에 놓여있던 日本외무성情報錄을 훔쳐보았다。난 일단 안심했다。내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致昊·致昭형님과 閔大植、金性洙、金一善씨등이 극비자금을 모아 美洲에 독립자금으로 보낸 사실이 들통날까봐서였다。다행히도 정보록엔 그런 내용이 보이지않았다。우리집에서는 내가 고문당해獄死하는줄로 알았다。어느날은 한雜犯이 나가기에 집에 전해달라며 몰래 쪽지를 주었더니 입에 넣고나갔다。그뒤 아내가 경찰서에 와서는 S와 친한 사이인 朴仁德이 집에 찾아와『尹致暎씨가 S를 자꾸 끌고들어가는데 빼달라』고 말하더라고 했다。


◇나는 興業俱樂部 사건으로 倭警에게 6개월간 拷問으로 시달리다가 西大門형무소로 넘어갔다。사진은 西大門刑務所。

그들은 3、4개월을 계속 끌더니 나중에 S와 俞星濬선생의 자제인 俞億兼을 잡아들여 취조했다。결국 나때문에 2~3개월 獄살이를 하고 해방후엔 독립운동자로 기록됐다。지조있는 교육가로 널리알려진 俞億兼은 純宗황제의 동서라해서 처음엔 그냥 봐주었던모양이다。

형사들은 흥업구락부사건을 자백받아 電光石火식으로 지도급인사들을 묶으려고 했으나 내가 끝내 버티자 무척 조바심했다。그들은 목총、책상다리로 마구 후려치고 주먹질 발길질을 가하는 난장질고문도 했다。

어느날 내가 한참 고문을 당하는도중 한국인기자한사람이 문을열었다고 슈또이하 倭警들은 그에게 달려들어 유도로 동댕이를 치고 마구 뭇매질을 했다。그는 당시 매일신문의 徐廷檍기자(前京鄕신문主筆)로 취재차 문을연것을 倭警들은 못된짓을 하다 들킨데다 혹시나 고문사실이 외부에 새어날까두려워 徐기자를 초죽음이 되도록 때렸던 것이다。나는 그가 꼭 죽는줄만 알았다。

동료가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玄命健(大阪매일신문京城支局·歌手 玄仁君부친) 金乙漢등 西大門署출입기자들은 크게 흥분,다께우찌(竹內)京畿道경찰부장에게 항의한결과 그도 잘못을 인정했고 수일후 슈또는 기자단에 고개숙여 정식 사과하기까지했다。

그러나『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가서 화풀이한다』는 格으로 기자를 잘못 건드렸다가 코가 납작해진 倭警들은 그다음날부터 모든것이 우리때문이라며 더욱 혹독한 고문을 가했던것이다。

모눈종이 위의 生 〈192〉

趙善作 作
禹慶熙 畫

灰色노우트㉔

그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밝은 햇빛이 방안 하나 가득히 쏟아져 들어왔다。

『지금부터 당신은 이 아파트의 주부요。여자 하날 얻기가 이렇게 힘든는 전가? 덕분에 지각이군』

나는 상체를 일으켜 침대머리장 위에 있는 탁상용 시계를 보았다。열시가 조금 지나 있었다。

J씨가 욕실에 다녀오는 동안 나는 침대에서 나왔다。그의 테이블앞 의자에 걸쳐놓았던 옷들은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놓여 있었다。그것들을 나는 간밤에 벗어놓았던 역순으로 한 가지씩 꿰어 입었다。옷을 입으며 나는 그의 테이블 위에 놓인, 그리고 테이블 뒤쪽의 벽을 꾸민 물건들을 바라보았다。J씨의 시화(詩畵) 한 점,

상패, 클럽의 페넌트가 몇점 벽에 걸려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패널로 만든 소녀의 사진이 세워져 있었다。아, J씨가 말한 그의 딸 이 사인 모양이지, 하고 생각하며 나는 소녀의 사진을 찬찬히 들여다 보았다。

『딸이오』

어느새 침실로 온 J씨가 수건으로 얼굴의 물기를 닦으며 말했다。

『일곱살인데 도무지 부담을 주지않는 아이요。엄마전에는 말이、아빠에게는 새엄마가 필요없는지 몰라도 이삭이 한테는 꼭 필요해요、그러지 않겠소? 누군가 가르쳐주었을 테지만 기가 막히더군』

나는 사진속에 들어있는 소녀의 인상을 정직하게 말했다。그러나 그애는 내몸으로 낳은 아이가 아니었고、그이상의 친밀감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귀어 보면 괜찮은 사이가 될수 있을거야。집에 새엄마가 와 있다고 하면 금방 달려올 걸』

『그래요?』

나는 가볍게 대꾸하고 소녀의 사진에서 눈을 떼었다。

J씨는 옷장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넥타이를 골랐다。그는 힐끔거리며 내가 그일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는 눈치였다。나는 서슴지 않고 체크 무늬의 자주빛 타이를 골라 주었다。

『괜찮은데? 넥타이 하나로 새 신랑이 된 기분일야。』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나는 J씨의 좋은 기분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나가서… 점심이나 먹지』

나는 J씨가 양복 저고리와 코트 입는 것을 뒤에서 도왔다。그가 돌아서서 내이마에 키스하고 말했다。

『오후에 파출부가 올거야。두시쯤? 그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쇠로 문을 열 테니까 놀라지 말고。그녀한테서 열쇠를 받아。그건 당신 것으로 하도 좋고。잠이 부족하면 더 자둬요、배고프면 주방을 뒤져봐요。아홉은 오늘 하루는 꼼짝 말고 집에 있어야 해。알겠소?』

그는 불안한지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 보았다。그러나 나는 J씨가 밖에 나가서 무슨일을 저지르고 다닐는지 걱정이었다。간밤의 일을 말하기 위해 서둘러 출두로의 여관으로 달려가지나 않을는지。나는 J씨의 다짐하는 듯한 시선을 비키며 조그맣게 말했다。

『비밀로 해주세요』

J씨의 표정이 절망으로 이지러지는 것을 나는 얼핏 보았다。

잠시후에 그가 말했다。

『알겠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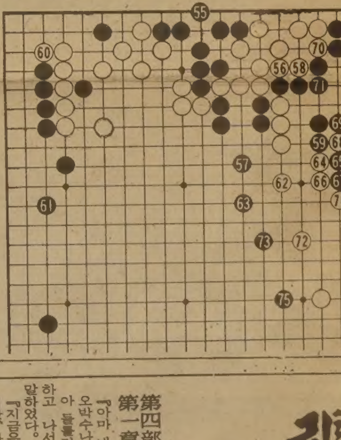
그는 화가난 걸음걸이로 침실을 나갔다。나는 그를 뒤따르지 않았다。현관에서 J씨가 멀리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잠그고 있어요』

第13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局 第4譜 55~75 (각 5시간 덤 5집반)

白(5段)張秀英
黑(4段)鄭壽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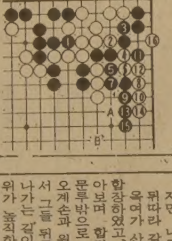


숙제거리였던 우상白은 56의곳이 유일한 活路였다。

이다음 黑이 계속 잡으려고하면 고도처럼 黑1에 파호해야 되지만 白2가 진작부터 마련된 반격수。거듭 黑3으로 파호하면 그때부터는 白4이하의 수단이 성립되어 16의 축수 일발로 黑이 얻거에 망해버린다。수순중 黑15를 16에두어살면 白15에 젖히고 黑「A」때 白「B」의 추격을 당하여 중앙黑4점과더불어 양곤마가 된끝에 둘중의 하나는 무사하기 어렵다。

鄭4단은 黑55를 8분간이나 숙고했지만 張5단이 13분을소비하며 참고도의 수단을 확인하고 白56에 끊을때에야 비로소 자신의 착각을 깨달았다。

妙手 풀이의 解答



그래도 참고도처럼 당하지 않은것은 역시 전문가인 때문에 사전에 방지할수 있는 일이지만 黑57로 중앙을 정비해야 되어서는 상변의손실이너무커서 고전이다。

물론 白은 망외의 소득으로 大滿悅。졸지에 우세를 과시하게되었다。白58선수로 삶을 확인할때 黑59는 이에대한 읽기의 응수。白60으로 실리를 취하고 62이하72까지 張5단은 흐뭇한 기분으로 이곳 白일단의 모양을 갖춘다。

한편 黑은73、75로 세력을 확장하여 일전을 피한 자세。【二凡】

宗敎 소식

救世軍、WCC脫退

救世軍 만국본영 (대장아널드·브라운) 이 지난 8월24일자로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탈퇴했다。구세군측은 WCC가 78년부터 짐바브웨 애국전선을 지원해오고 있는것과 관련,불만을 표시해오다가 탈퇴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한국구세군은 만국본영의 통보에 따라 KNCC에서의 거취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大 宗敎學모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학과는 「한국종교계의 오늘」이란 주제하에 진행되는 학술세미나의 두번째 모임을 8일하오 4시 종교수회의실에서 갖는다。이날 모임에서 尹의榮씨가 한국이슬람교단이 당면한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基監女宣敎會 바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지역주민과 회원들의 가계 도움을 위한 선교바자를 7~8일 이틀간 서울 漢南洞 여선교회관에서 갖는다。바자에서 얻어지는 기금은 국내외 선교사 후원에 쓰인다。

月樓스님 就任法會

佛國寺신임주지 月樓스님의 취임법회가 3일상오11시 불국사에서열렸다。조계종총무원이 임명한 주지취임을 둘러싼 말썽이 해소됨에따라 月樓스님은 사찰운영방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취임사를 발표했다。

民衆神學과 기독교 KNCC 심포지엄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KNCC 총무 金昭暎)가 주최하는 제2회 에큐메니컬 심포지엄이 오는 10일 하오6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열린다。「民衆神學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徐南同·安炳茂교수가 발제연사로,邊鮮煥·閔泳珍교수가 응답자로 나선다。

成均館서 秋期釋奠

成均館은 孔夫子탄강 2천5백32년 秋期釋奠을 6일(음력 8월9일) 상오10시 大成殿에서 봉행한다。이어서 李炳勇변호사의 「동성동본불혼과 호주제도는 유지되어야한다」는 제목의 특별강연이 있다。

張吉山 (1640)

黃晳暎 作
崔然石 畫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00)

『아마 내가 찾아 가거나、오박수나 다른 이가 번갈아 들를지두 모르네』

하고 나서 옥여는 여환에게 말하였다。

『지금은 자네가 먼저 가지만、나도 곧 그쪽 길로 뒤따라 갈걸세』

옥여가 산문 앞에 멈추어 합장하였고、여환도 마주 돌아보며 합장하였다。옥여는 문루밖으로 나오지 않았다。오계손과 원향이만이 계속해서 그들 뒤를 따랐다。은율로 나가는 길이 내다보이는 바위가 높직한 언덕까지 따라나온 원향은 예전에 여환이 월정사를 떠나던 날과도 같이 느꼈다。그때에 여환은 돌멩이를 주워 이합회별(離合會別)의 덧없음을 알려주려고 애썼던 것이다。그런데도 이번에는 그가 자꾸만 원향이 쪽을 돌아다 보았다。

하루 연유도 모르는 계화는 원향의 손을 마주잡고 말하였다。

『에그…널두고 떠나려니 마음이 영 내키지를 않는구나。하지만 어쩌느냐, 여기선 대들보를 뽑혔으니 아무데라두 옮겨 가야지。부디 성님에 못찮은 큰만신이 되거라』

계화의 눈에는 벌써 벌겋게 충혈이 돌고 눈물이 흘러내렸다。원향이는 정신이 들고부터는 아예 여러 삶을 살아온 여인처럼 말수가 적고 눈은 안정되어 보였으며 도량 넓게 푸스스 웃고는 하였다。

『가서 잘 사세요』

계화가 코를 풀었고、김승운은 곁에서 헛기침을 하며 거들었다。

『성신께서 다 보살펴주실것이니 염려마라。오박수도 있는데 뭐 걱정이 있겠어』

김승운이 아내의 어깨를 두드려 재촉하며 먼저 언덕을 내려갔고、여환은 오계손이와 뒤미처서 천천히 걸었으며 원향이는 바위위에 가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여환이 계손에게 말하였다。

『자주 만날것으로 알고있소。해서의 일은 오박수만 밀겠읍니다。여차하여 그르치면 오박수의 몸 이상 번져서는 안될게요。잘라야 합니다』

계손은 무심한듯 대꾸하였다。

『저두 읍률을고르다가 줄이 늘어져 가락이 변하면 곧 끊고 다른 줄로 잇습니다。그쯤은 안심놓으시우』

『나두 금년 안으로 해서에 오게 될겁니다』

『그동안 나는 사람 많이 모아 치성이나 열심히 드릴테요』

여환은 바위 옆을 지나치려다가 잠깐 원향을 올려다 보았다。그들의 눈이 마주쳤다。원향의 시선은 깊숙하고 평온해보였다。골짜기를 스쳐온 맞바람이 가리마를 흐뜨려서 그 여자의 이마위에다 흩날려 주고 있었다。여환은 위쪽에 조그맣게 무릎을 꿇고 뭉쳐있는듯이 앉은 원향에게 말하였다。

『원향아…곧 다시 만나게 될게다』

『알아요』

원향이는 무릎 위에 턱을 괴고 그를 내려다 보았다。여환은 더 이상 할말이 없었다。여환이 계화 부부의 뒤를 따라서 내려갈제 원향이는 바위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여환은 길이 굽어지는 저 아래 모롱이에서 한번 뒤돌아 보았고 원향이는 그냥 앉아 있었다。그들이 굽어진 모롱이를 돌아 사라지자 원향이는 천천히 일어났다。오계손이 말하였다。

『나두 내일은 신천으로가야겠다。날 따라 가려느냐?』

『아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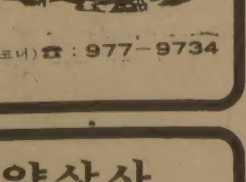
원향이는 그렇게만 답하고서 뒤편에 우뚝 치솟은 아사봉을 올려다 보았다。섬주께서 그를 부르고 계신 것이었다。

코리아 하우스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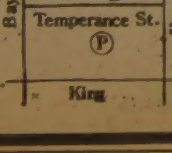
意 安 飯 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PM ~ 4AM
토요일
일요일 : 12PM 부터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一 品 香 飯 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 · 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덴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 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SHANGHAI RESTAURANT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 - 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 - 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메이커
숙녀복(size 5 ~ 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일요일 : 오후3시~7시
706BLOOR ST·W
☎ : 534-2003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급 구"
소형차를 갖고 계신분으로 주3회 식품점에 신문 배달하실분 구함.
☎ 533－2361 MRS. KIM

FULL TIME HELPER구함 : 남자 유경험자에 한함 막일과 CASHER를 함께 할 사람요.
☎ 534－3338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 (오후5시～오후11시)
☎ : 466－3995 QUEEN E. 지역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 구함.
오후3시～밤 11시까지 (주6일) ☎ : 921－0624.

사무실 청소할 분 : 부부로서 경험있고 영어회화 가능한분, 파타임
☎ : 298－3383 마이크

도나스 샾에서 캐시어 구함
여자(아침8시～오후4시)
남자(밤12시～아침8시)
☎ : 531－2689 1468 QUEEN ST. W.

급 구
● 스토어 매니저 구함. 약간의 보증금 요함.
● 풀타임 캐쉬어, 풀타임 헬퍼 구함
☎ 742－0800, 241－4755 미스타 차

주말에 맥스밀크에서 일하실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KINGSTON & MIDLAND
☎ : 266－3644

야채가게에서 피타임으로 일하실 분 구함
자세한 것은 전화문의 바람
☎ : 964－3354

도나스 샾 헬퍼구함 : FULL TIME=3시～11시
PARTIME=토3～11시, 일 9～9시
☎ : 782－7409(오전중)

주방헬퍼2명, 웨이트레스 1명 구함
☎ : 536－0290
한 국 관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WEST근처
☎ : 767－0762 미스타 김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 구함.
오후3시～밤 11시까지 (주6일) ☎ : 921－0624.

베이비 시터 구함 :
입주자 우대함
☎763－7450 미세스. 김

미싱자수 기술자 구함 :
자격2년이상
☎ : 690－3434 미스타 유 (오후6시～9시).

FULL TIME가게헬퍼구함
남자분에 한함
☎ 762－1572, 769－9854

DRESS MAKER : 경험있는 FULL TIME
미싱사 구함(GOOD PAY)
☎ 368－2819 미스타 윙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500달러
고등학교앞에 있음.
☎ : 533－0334

매매 : ● 도나스 캐비넷 셋트
●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15년 리스 아스킹 $165.000
☎ : 535－2804 미세스 김

매 매
FRUIT & FLOWER가게 : 3개월전 OPEN
전부 새장비, 주매상 4000－4500, 권리금 3만달러
917 KINGSTON RD.
☎ 691－6768

가게있는 건물 팝니다 :
주매상 $3.500 이상
☎ : 690－3382

부 동 산 매 매
동부끝에 있는 방 여섯개의 집.
즉시 입주가능, 모게지가 없음.
ASKING $79.500.00
☎ : 461－5463

버라이어티 스토아매매 : 주매상 5200・로타리오 수입으로 렌트 충당함 호조건으로 양도코자 함
주소 : 3240 EGLINTON E.

80년도 GMC VAN추럭 팝니다.
2만km
☎ : 923－6074

가정형편상 가게를 급히 팝니다.
주매상 : $3천2백(좋은 Offer중)
☎ : 781－7305

위치좋은 코너 그로서리 가게 매매
주매상 : $3000～$3500(특히 야채 적합함)
3888 BLOOR RT. W.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22년된 꽃가게 매매 : F. T. D와 U. F. C멤버쉽이 있음.
☎ : 826－1992, 저녁6시이후 826－3246 SANDER JOHN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배리지역)
주매상 : 8.000달러, 리스 : 4년＋5년
직접방문 요망
☎ : 705－726－5224

①버라이어티・스토아(주매상 $5.500)
②버라이어티・스토아(주매상 $3.500)
③버라이어티・스토아(주매상 $4.000)
황 순 일 ☎ : 481－3443, 745－5485
CANADA PERMANENT TRUST CO. REALTOR

아내의 장바구니 밑에 살짝 넣어놓는
주 간 여 성
행복한 결혼속의 작은 기쁨입니다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갤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바구니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어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용품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미 용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힐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헬 렌 미용실 미세스・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상하수도 수리시설
☎ : 535－4441 미스타 김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쉐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악 기 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 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점검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일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DALMER'S시설판매수리
에어콘・전기・개스・워킹쿨러, 후리저
☎ : (B) 746－3840, (R) 493－9945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리 운 수

자동차수리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824(B), 226－5430(R) 변 달 원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김용환

기 타

온가족이 꼭 필요로하는 교과서
WORLD BOOK…월부가능
문의처 : 533－2364(day) 242－5774 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탁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바르고 빠른 소식을 전하는 한국일보

流星의 賦 <174>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山空花自紅 ㉔

『앞으로 세상은 더욱 시끄러울것 같다』

이영은 화제를 바꾸어 시국을 논하더니 계남의 손을 잡으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홍공 내 부탁을 들어줘야 하겠네』

『무슨 말씀이오이까』

계남이 이영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자네의 처지나 내 처지엔 비슷한데가 있네』

이영의 말이 침통하게 울렸었다。

『꼭 같진 않지만 비슷한데가 있어。아니 내 형편에 비교하면 자네의 처지가 조금 나을지 모른다。나는 평생 그늘에서 살아야 할 몸이지만 자네는 때가 이르면 활개를 치고 살 날이 있을거니까 말일세』

이영은 잡았던 계남의 손을 놓고 한숨을 쉬었다。아까와 꼭 같이 깊으고 긴 한숨이었다。

계남은 극도로 긴장했다。이런 상황에선 이영이 무슨 부탁을 해와도 거절할수 없을 것이란 마음이 들어서였다。그리고 그 부탁은 엄청난 위험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짐작되기도 했다。

『내게 누이동생이 하나 있네』

하고 이영이 뚜벅 덧붙였다。

『불쌍한 아이다』

그리고는 조금 사이를 두고―

『누이동생을 자네에게 맡기고 싶네』

계남이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영을 말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

『맡아 주겠나?』

『그런 일은 제게 어른이 있으니 어른들과 의논해 보아야 할 것 아니겠읍니까』

엉겁결에 계남이 한 말이었다。

『이치는 그러하다。그런데 그 정실을 자네의 입존(一字)으로 해달라는게 나의 부탁이다』

『내 누이동생을 자네의 정실로 삼아 달라는 말은 아닐세』

『……부부의 예를 갖추어 달라는 말도 아니고』

『……그저 하나의 남자로서 하나의 여자와 부담없이 사귀어 달라는 얘길뿐인데』

『……』

『먹여 살리란 것도 아니다。누이동생은 자기 먹을건 가지고 있다。이 집은 누이동생의 것이다。자네가 할 일은 짬이 있으면 가끔 와서 그 애를 돌봐주면 되는거다。자네 집이 안성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엔 이 집에서 묵도록 하면 될게 아닌가』

『내 누이동생을 불쌍하게 여겨주는 일 외엔 어떠한 부담도 느낄 필요가 없네』

『……』

『맡아주지 않으려는가?』

계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에게 만은 의논을 드려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말했다。

『좋아。좋은 말이다。그럼 어머니의 승낙을 기다리기로 하고 오늘밤은 여기서 묵으며 서로 만나보기라도 하여라。내 잠깐 안에 들어갔다가 오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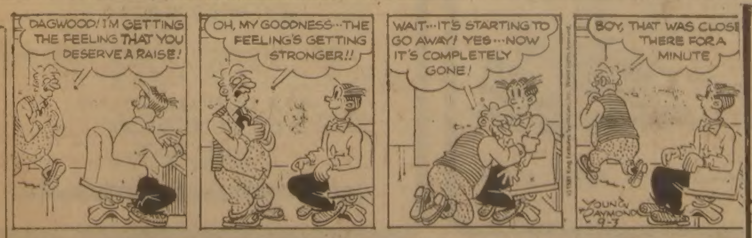
이영이 일어서서 나갔다。

홍계남이 뭐라고 말할 틈도 주지 않는 민첩한 동작이었다。

CENTRAL AUTO-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김창세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대그우드! 자네한데 봉급을 올려줄만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차츰드네!"
"허, 참, 그런 생각이 자꾸만 더 강해지는군 그래!!"
"가만있자…그 생각이 도망치기 시작했어! 그래…이제는 완전히 꺼져 버렸어!"
"제기랄, 1분동안이나마 그게 거의 성사될 뻔했다네"

싸다고 소문 난 가나안
카텐
2390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모든 좋이 외의 生 <191>

趙善作 作
禹慶熙 畵

灰色 노우트 ㉓

마침내 그는 내 두개의 다리를 콤파스처럼 벌렸다。침구 속에서 그는 어느 새 하의를 벗고 있었으며、그것을 깨닫고 내가 그를 밀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안타깝게 망설이는 사이、그리고 그의 하체에서 허우적거리던 내 손이 무엇인가 엄청난 것에 닿았다는 느낌과 함께 질겁을 해서 달아나는 사이 그는 유연하게 내 몸 안으로 들어왔다。

비로소 나는 그의 몸을 안정되게 수용했다。그러나 참혹한 느낌으로부터는 스스로를 구해내지 못했다。

『이건 운명이야。지금 난 내 운명을 확인하는 중이야』

조금있다가 J씨가 다시 웅얼웅얼 말했다。

『당신도 당신의 운명을 확인해야 돼』

그는 손으로 내 눈밑에 번진 눈물을 닦아주었다。그러나 나는 내 운명을 확인하는 대신 오기노식 계산법을 머리에 떠올렸다。숫자가 자꾸만 헛갈렸다。되풀이 계산해서 마침내 나는 내가 안전한 기간에 속해 있음을 확인했다。

J씨의 일은 내게 식민지 시대처럼 길고 지리했다。모멸감과 함께 잠깐씩 잠깐씩 나는 내 자신을 잃곤했다。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정신을 차려 혼미를 쫓아버렸다。사랑이란 선호하고 그 다음은 의지로써 가꾸어 나가는 것이라고 했던 J씨의 말이 다가오자 나는 한사코 그것도 쫓아 버렸다。이건 작은 수단일 뿐이야。J씨의 입을 확실하게 막아두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뿐、구차한 죄를 덮어서는 안 돼。울기는 해도 지지는 말아야지。창녀들은 불쌍해。그녀들은 매번 다가오는 모멸감과 무지개빛 혼미를 무엇으로 물리치는가。불쌍해、그녀들은…。

나는 J씨가 내 위에서 절정에 이르는 매우 짧은 순간을 눈으로 큰 활자를 읽는것처럼 또렷하게 읽었다。그러나 내게는 끝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오기노식 계산법에 의해서 안전한 기간에 속해 있었던 일이 내게 안도감을 주었다。

J씨는 내 위에서 내려와 담배를 피워 물었다。

『어젯밤 내가 했던 말, 취해서 한말이 아니었어。당신이 내 침대로 온걸 나는 간밤의 내 제의에 대한 수락으로 간주한 거요。착각이었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말하고 나서 J씨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연기를 토해내고 나서 다시말했다。

『난 당신이 영리한 여자라는 걸 잘알아』

『아녜요。미쳤어요。전바보예요。정신의 밸런스를 잃고 방황하는 미친 여자예요』

누운 채 머리를 도리질하며 내가 참혹한 목소리로 말했다。함부로 흐르는 눈물이 얼굴 가로 흘러 내렸다。

J씨는 다시 손등으로 내 눈물을 닦아 주었다。

『얼핏은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지。처음에는 나도 속았으니까。더러 그런 광적인 문학 소녀의 얘기가 글 쓰는 사람들 사이에 심심찮게 유포되어 있기도하거든。하지만 당신은 전갈해。당신이 만약 소파에서 그냥 눈을 붙였다든가 했다면 나도 속았을 거야。미스터 한은 핑계에 불과해。미스 안한테는 그냥 남자가 필요할 뿐이야。그게 나야。난 당신이 자고 있는 동안 그걸 알았어。내가 당신에게 그 필요한 남자가 되기로 결정한 이상 당신의 작은 정신적 불균형쯤、만약 그런 게 있다면 말이지。그런 건 문제도 아니야。두고봐 내 고쳐서라도 데리고 살 거니까』

J씨는 한 가지씩 옷을 꿰어 입고 침대에서 내려섰다。

한국기원
영업시간 : 1시～11시
653A BLOOR ST. W.
☎ 533－0168
부설 : 고려전자원